

# 총만국 6

## 수능 (상)편

### 10개년 실전 모의 형

1회 2018 수능-----6쪽  
 2회 2017 수능-----54쪽  
 3회 2016 수능 A-----108쪽  
 4회 2016 수능 B-----160쪽  
 5회 2015 수능 A-----192쪽  
 6회 2015 수능 B-----238쪽

### 원점수 등급컷

등급	1회	2회	3회	4회	5회	6회
1	94	92	96	93	97	91
2	89	85	90	88	92	85
3	82	78	82	81	85	78
4	74	69	72	72	75	70
5	62	56	60	61	62	59
6	48	39	47	49	48	47
7	34	25	35	36	35	35
8	24	18	25	24	25	24

### N회독 체크

	1회독	2회독	3회독
1회 2018			
2회 2017			
3회 2016 A			
4회 2016 B			
5회 2015 A			
6회 2015 B			

## 전체 정답

### 1회 2018 수능

- 1.② 2.② 3.④ 4.③ 5.④ 6.⑤ 7.③ 8.① 9.④ 10.② 11.④  
 12.① 13.③ 14.② 15.① 16.⑤ 17.③ 18.② 19.③ 20.③ 21.④  
 22.⑤ 23.② 24.④ 25.① 26.⑤ 27.① 28.⑤ 29.① 30.④ 31.③  
 32.② 33.① 34.③ 35.⑤ 36.⑤ 37.① 38.② 39.② 40.⑤ 41.④  
 42.④ 43.③ 44.② 45.④

### 2회 2017 수능

- 1.② 2.④ 3.④ 4.④ 5.⑤ 6.④ 7.② 8.⑤ 9.⑤ 10.③ 11.①  
 12.⑤ 13.③ 14.③ 15.④ 16.② 17.④ 18.⑤ 19.⑤ 20.② 21.④  
 22.④ 23.⑤ 24.③ 25.③ 26.⑤ 27.② 28.② 29.① 30.② 31.④  
 32.③ 33.⑤ 34.④ 35.① 36.③ 37.③ 38.④ 39.⑤ 40.① 41.④  
 42.① 43.③ 44.⑤ 45.①

### 3회 2016 수능 A

- 1.④ 2.② 3.① 4.④ 5.③ 6.⑤ 7.④ 8.③ 9.④ 10.③ 11.③  
 12.③ 13.④ 14.② 15.② 16.⑤ 17.② 18.④ 19.② 20.③ 21.③  
 22.⑤ 23.① 24.⑤ 25.⑤ 26.① 27.① 28.③ 29.⑤ 30.② 31.①  
 32.③ 33.④ 34.① 35.⑤ 36.⑤ 37.① 38.⑤ 39.③ 40.⑤ 41.②  
 42.④ 43.⑤ 44.④ 45.③

### 4회 2016 수능 B

- 3.⑤ 4.② 5.① 6.① 7.② 8.⑤ 11.⑤ 12.④ 13.⑤ 16.② 17.⑤  
 18.① 19.① 20.④ 21.③ 22.③ 23.③ 24.② 29.④ 30.⑤ 31.④  
 32.② 33.⑤ 34.③ 35.② 36.④ 40.① 41.④ 42.①

### 5회 2015 수능 A

- 1.① 2.② 3.⑤ 4.③ 5.④ 6.① 7.② 8.③ 9.⑤ 10.④ 11.③  
 12.④ 13.⑤ 14.⑤ 15.② 16.③ 17.① 18.③ 19.② 20.③ 21.②  
 22.③ 23.④ 24.② 25.② 26.③ 27.⑤ 28.④ 29.① 30.④ 31.③  
 32.③ 33.④ 34.① 35.① 36.④ 37.② 38.① 39.⑤ 40.⑤ 41.④  
 42.⑤ 43.① 44.④ 45.⑤

### 6회 2015 수능 B

- 3.① 4.⑤ 5.③ 6.④ 7.④ 8.③ 11.⑤ 13.② 14.③ 16.③ 17.④  
 18.④ 19.③ 20.③ 21.① 22.② 23.① 24.⑤ 25.② 26.④ 31.④  
 32.⑤ 33.④ 34.② 35.③ 36.⑤ 37.② 43.① 44.③ 45.①

기출의 正道  
 총만국 시리즈  
 1~9

## N회독 방법

N회독은 권장이 아니라 필수다. 어떤 공부든지 한 번 보는 것으로 단기간에 성적이 오르길 기대하지 마라. 특히 국어는 최소 3개월, 보통은 6개월 이상 꾸준히 해야 성적이 오른다. 1회독으로 그친다면 교재를 30%밖에 공부하지 못한 셈이다. 최소 2회독, 권장 3회독으로 교재를 100% 체화하여 비문학 고수가 되길 바란다.

### 1회독 (가볍고 신속하게)

처음은 모든 지문과 문제를 가볍고 신속하게 끝내야 한다. 쉽거나 어려운 것에 일희일비 하지 말고, 일단 진도를 빼는 것에 초점을 두자. 진짜 공부는 최소 2회독부터이므로 1회독은 비문학과 친해지며 규칙적인 학습 습관을 기르고 자신의 적나라한 상태를 지속적으로 파악하는 정도에 그치면 된다.

#### \*제한 시간 내에 문제의 정답을 찾는 것에 초점을 두자

-수능 국어 시험의 관건은 긴장감과 시간 관리이다. 초기부터 문제 풀이의 시간 제한성을 필히 고려해야한다

#### \*빠른 진도를 위해, 채점 후 틀린 문제의 해설만 보자

-깊은 분석은 2회부터, '이래서 틀렸네' 정도의 느낌만 챙기고 신속히 넘어가자.

#### \*의문점은 물음표나 메모를 하고 넘어가자

-물음표가 많을수록 메모가 구체적일수록 자신의 문제점을 잘 파악할 수 있어 좋다. 2회독 때 자연스럽게 해결되거나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공부할 재료를 준비한다고 생각하자.

### 2회독 (하나하나 철저하고 완벽하게)

지문 요약과 문제 분석을 병행해야 한다. 이때부터는 진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문과 문제 하나하나를 완전히 파헤치는 것이 중요하다.

#### \*비문학은 문제를 풀기 전에 지문을 문단별로 요약하자

-자신의 요약과 해설의 요약을 비교하여 빠진 부분을 보완하자.

#### \*시간제한 없이 선지 정/오답의 근거를 찾는 것에 중점을 두자

-문제를 푸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분석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답이 기억나도 상관이 없다.

#### \*모든 문제의 해설을 꼼꼼히 살펴보자

-맞은 문제 틀린 문제 모두 어떤 해설이 담겨있는지 꼼꼼히 살펴보자.

### 3회독 (체화하여 응용하고 써먹기)

2회독의 과정을 반복하되 온전히 내 것으로 만들어야 한다. 어떠한 의문도 남겨서는 안 되며 체화된 해설은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그렇다면 흔들리지 않는 실력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

\*2회독의 과정을 동일하게 반복하되 부족하거나 틀린 문제에 중점을 두자.

\*정/오답을 판단하기까지의 사고 과정과 타 지문&문제에 적용될 수 있는 해설을 떠올리거나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 선지의 법칙

선지의 일정한 패턴을 통해 정답의 확률을 알고 문제 풀이의 감각을 더한다. 5개의 선지 중 임의로 선택한 선지의 산술적인 정답 확률은 20%이지만 그 이상의 유의미한 확률이 되는 경우가 있다.

### 1. 대립 선지의 법칙

<적절하지 않은 것>을 묻는 부정형 발문에서, 선지 간에 전체 혹은 그 일부라도 서로 반대(대립, 모순, 부정)의 맥락을 이루면, 양상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답 확률을 예측할 수 있다.

1 대 1 대립 (두 개의 선지 중 하나: 70% 이상)

1 대 2 대립 (1의 비율 선지: 80% 이상)

1 대 3 대립 (1의 비율 선지: 90% 이상)

▶대립의 양상은 국어 시험에서 굉장히 자주 등장하는 평가 요소이다. 이에 익숙한 출제자는 문제 제작 시, 정답을 먼저 만들고 이와 반대 맥락의 오답을 만드는 경우가 있다. 이를 토대로 <대립 선지의 법칙>은 수험생의 입장에서 문제 풀이에 역이용하는 것이다. (주의: '부정형 발문'에서만 고려할 것)

### [2016 수능 비문학]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정답 ①)

- ① 많은 관찰 증거를 확보하면 귀납의 정당화에서 나타나는 순환 <논리 문제>는 해소된다.→(긍정)
- ② 직관에 들어맞는 확률 논리라 하더라도 귀납의 <논리적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한다.→(부정)
- ③ 관찰 증거가 가설을 지지하는 정도를 확률로 표현할 수 있다는 입장은 귀납을 옹호한다.
- ④ 흠에 따르면, 귀납의 정당화는 귀납에 의한 정당화를 필요로 하는 지식에 근거해야 가능하다.
- ⑤ 귀납의 지식 확장적 특성은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을 근거로 아직 알지 못하는 사실을 추론하는 데에서 비롯된다.

<논리 문제> 해결에 관해 (①: 긍정적 ⇔ ②: 부정적)으로 선지가 1대1 대립을 이룬다. 그래서 지문과 상관없이, 선지 ①, ② 중 정답이 있을 가능성은 70% 이상이 된다.

### [2014 수능 비문학]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해석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정답 ④)

- ① 항성 a는 태양이 아니겠군.
- ② 항성 a의 별빛 스펙트럼에는 리튬이 빛을 흡수해서 생긴 <검은 선들>이 있겠군.→(있음)
- ③ 항성 β에는 리튬이 존재하지 않겠군.
- ④ 항성 β의 별빛 스펙트럼에는 D선과 일치하는 <검은 선들>이 없겠군.→(없음)
- ⑤ 항성 β의 별빛 스펙트럼에는 특정한 파장의 빛이 흡수되어 생긴 <검은 선들>이 있겠군.→(있음)

<검은 선들>의 유/무로 선지 (④↔⑤), 1대2 대립을 이룬다. 그래서 지문 및 발문과 상관없이 선지 ④가 정답이 될 가능성은 80% 이상이다.



[2016 수능 비문학]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의 '본 실험' 결과를 예측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정답 ③)

- ① 역방향 전압을 100V로 바꾼다면 증배 계수는 40보다 **작아지겠군.** →(부정)
- ② 역방향 전압을 120V로 바꾼다면 더 약한 빛을 검출하는 데 유리하겠군.
- ③ 작동 온도를 20℃로 바꾼다면 단위 시간당 전극으로 방출되는 전자의 수가 **늘어나겠군.** →(긍정)
- ④ 광통신 케이블의 길이를 100m로 바꾼다면, 측정되는 전류는 100nA보다 **작아지겠군.** →(부정)
- ⑤ 동일한 세기를 가지는 900nm 파장의 빛이 입사된다면 측정되는 전류는 100nA보다 **작아지겠군.** →(부정)

선지의 일부를 수량 혹은 크기의 **긍정 / 부정**으로 분류해 보면, 선지 ③↔①,④,⑤) 1대 3 대립을 이룬다. **그래서 지문과 상관없이 1의 비율인 ③이 정답이 될 가능성은 90% 이상이다.**

2. 공통 선지의 법칙

<가장 적절한 것>을 묻는 **최선 긍정형 발문** 문제에서, 선지 간에 **최대 공통점(답은 꼴)의 한 쌍**이 존재하는 경우 그 **둘 중 하나의 선지가 정답이 될 가능성은 약 70% 이상**이다.

▶<가장 적절한 것>을 묻는 문제는 매우 주관적인 언어(국어) 시험에만 출제되는 문제 유형이다. 이런 유형에서 출제자는 정답을 먼저 만들고 이와 유사한(답은) 매력 오답을 만들어 수험생을 혼란에 빠뜨린다. 이를 토대로 <공통 선지의 법칙>은 수험생의 입장에서 문제 풀이에 역이용하는 것이다.

(주의: '최선 긍정형 발문'에서만 고려할 것)

[2017 수능 비문학]

윗글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정답 ④)

- ① 포퍼가 제시한 과학적 방법에 따르면, 예측이 틀리지 않았을 경우보다는 맞을 경우에 그 예측을 도출한 가설이 지식으로 인정된다.
- ② 논리실증주의자에 따르면, "총각은 미혼의 성인 남성이다."가 분석 명제인 것은 총각을 한 명 한 명 조사해 보니 모두 미혼의 성인 남성으로 밝혀졌기 때문이다.
- ③ 과인은 관찰과 실험에 의존하는 지식이 관찰과 실험에 의존하지 않는 지식과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한다.
- ④ **과인은 분석 명제가 무엇인지는 동의적 표현이란 무엇인지에 의존하고, 다시 이는 필연성 개념에, 필연성 개념은 다시 분석 명제 개념에 의존한다고 본다.**
- ⑤ **과인은 어떤 명제에, 의미가 다를 뿐만 아니라 서로 대체할 경우 그 명제의 참 또는 거짓이 바뀌는 표현을 사용할 수 있으면, 그 명제는 동어 반복 명제라고 본다.**

선지 ④, ⑤는 핵심어(과인, 명제)가 공통된다. **그래서 지문에 상관없이 ④, ⑤ 중에서 답이 있을 가능성은 약 70% 이상이다.**

[2016 수능 비문학]

㉠과 글쓴이의 견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정답 ⑤)

- ① ㉠과 달리 글쓴이는 도덕적 평가는 '상식'을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 ② ㉠은 글쓴이와 달리 운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 ③ ㉠과 글쓴이는 모두 같은 성품을 가진 사람은 같은 행위를 한다고 생각한다.
- ④ ㉠과 글쓴이는 모두 도덕의 영역에서는 **운에 따라 도덕적 평가가 달라지는 일은 없다**고 생각한다.
- ⑤ ㉠과 글쓴이는 모두 도덕적 **운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은 도덕적 평가를 불공평하게 만든다**고 생각한다.

선지 ④, ⑤는 **운의 영향력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 공통된다. **그래서 지문과 문제에 상관없이 ④, ⑤ 중에서 답이 있을 가능성은 약 70% 이상이다.**

3. 일탈 선지의 법칙

특정한 기준으로 선지의 핵심을 분류했을 때, 나머지와 다른 한 개의 선지가 눈에 띄면 이를 **일탈 선지**라 칭하고 그것이 **정답이 될 확률은 약 80% 이상**이다. 주로 선지의 핵심을 **긍정-부정**으로 구분한다.

▶매우 주관적인 문학 문제를 객관식의 뚜렷한 정답을 설정하려다 보니 위와 같은 일탈 선지가 나오는 때가 있다. 이를 알고 문제를 푸는 것과 모르고 문제를 푸는 것은 분명 다르다! 문제를 풀다 자연스럽게 위와 같은 선지가 보인다면 다른 선지보다는 좀 더 집중해서 살펴보자. 사소한 팁 하나가 문제 풀이 시간을 절약해 1점 더 올릴 수 있는 중요한 보조 무기가 될 수 있음을 명심하자!

[2016 수능 문학]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정답 ⑤)

- ① '나'가 '권 씨네'를 의식하면서도 '권 씨네'의 상황에 **거리를 두려는 것은 소시민의 내적 갈등**을 보여 주는군. →(부정적)
- ② '권 씨'가 일정한 직업 없이 막일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은 계층이 분화하면서 생겨난 **도시 빈민의 처지**를 나타내는군. →(부정적)
- ③ '아내'가 '권 씨네'를 대하는 **이중적 태도**는 공동체 의식과 개인주의 사이에 놓인 소시민의 모습을 반영하는군. →(부정적)
- ④ '권 씨 부인'이 혼자 힘으로 해산을 하려는 모습은 **공밀한 삶에 내몰린 소외 계층의 처지**를 반영하는군. →(부정적)
- ⑤ '나'가 '권 씨네'에 대해 염려하며 '우리를 위해서'라고 말한 것은 **공동체적 유대감을 회복**하려는 소시민의 욕망을 드러내는군.

→(긍정적) (☆정답)

☞**⑤만이 나머지와는 다르게 긍정적 이미지로 ⑤는 일탈 선지이며 지문과 발문에 상관없이 정답이 될 확률은 80% 이상이다.**

[2016 수능 문학]

(나)의 [A]~[E]에 대한 감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정답 ③)

- ① [A]에서 화자는 '텔레비전'을 끈 후 **평소 관심을 두지 못했던 '풀벌레 소리'를** 지각하고 있어. →(긍정적)
- ② [B]에서 화자는 '큰 울음'뿐만 아니라 '들리지 않는 소리'도 존재한다는 것을 알게 됨으로써 화자의 **인식 범위가 확장**되고 있어. →(긍정적)
- ③ [C]에서 화자는 '들리지 않는 소리'의 주체들이 화자 자신 때문에 **서로 소통할 수 없게된 것**에 대해 미안함을 느끼고 있어. →(부정적) (☆정답)
- ④ [D]에서 화자는 자신이 의식하지 못했던 '그 울음소리들'을 떠올리

며, 그 소리를 **간과했던 삶을 성찰**하고 있어. →(긍정적)

⑤ [E]에서 화자는 '그 소리들'을 귀로만 듣지 않고 **내면 깊숙이 받아들이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확인**하고 있어. →(긍정적)

☞③만이 나머지와는 다르게 부정적 이미지로 ③은 일탈 선지이며 지문과 발문에 상관없이 정답이 될 확률은 80% 이상이다.

#### 4. 비교 선지의 법칙

<적절하지 않은 것>을 묻는 부정형 발문에서 두 대상을 비교하는 선지가 나오면 그것이 정답일 확률은 상당히 높다. (2배, 3배 등 수치가 나오거나 '~에 비해~하다'의 형태라면 더 확률이 높아짐) 왜냐하면, 출처자는 지문의 내용을 바탕으로 숫자 등을 사용해 틀린 선지를 만드는 일이, 다른 오류가 있는 선지를 만드는 것보다 비교적 쉽기 때문이다. (주의: '부정형 발문'에서만 고려할 것)

#### [2017 수능 비문학]

윗글로 볼 때, 반추위 미생물에서 배출되는 <숙신산>과 <젖산>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정답 ③)

- ① 숙신산이 많이 배출될수록 반추 동물의 간에서 합성되는 포도당의 양도 늘어난다.
- ② 젖산은 반추 동물의 세포로 직접 흡수되어 반추 동물의 에너지원으로 이용될 수 있다.
- ③ 숙신산과 젖산은 반추위가 <산성>일 때 **보다 <중성>**일 때 더 많이 배출된다.→(산성vs중성)
- ④ 숙신산과 젖산은 반추위 미생물의 세포 내에서 대사 과정을 거쳐 생성된다.
- ⑤ 숙신산과 젖산은 프로피온산을 대사산물로 배출하는 다른 미생물의 에너지원으로 이용되기도 한다.

#### [2016 수능 비문학]

윗글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정답 ③)

- ① 폴라니는 고도로 형식화된 과학 지식도 암묵지를 기초로 하여 형성된다고 본다.
- ② 폴라니는 지적 활동의 주체와 분리되어 독립된 객체로서 존재하는 지식은 없다고 본다.
- ③ 노나카는 <암묵지>가 그 속성 때문에 지식의 공유 가능성이 <명시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다**고 본다.→(암묵지vs명시지)
- ④ 노나카의 지식 경영론은 지식이 원활하게 변환되도록 기업의 조직 구조가 재설계되어야 한다고 본다.
- ⑤ 폴라니는 지식에서 암묵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노나카는 지식들 간의 변환 과정에 주목한다.

#### 5. 보기-선지의 법칙

한 시험(전 영역)에서 <보기>가 제시된 문제 중 1~2개는 지문을 보지 않고도 보기-선지 대응성만으로 답이 된다.

- \*긍정 발문형: <보기>의 핵심과 **가장 관련성 있는 선지**가 정답
- \*부정 발문형: <보기>의 핵심과 **가장 동떨어진 선지**가 정답

#### [2011 수능 비문학]

<보기>의 입장에서 위 글의 자산을 평가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정답 ①)

#### <보기>

노자(老子)는, 만물의 생성과 변화는 자연스럽고 무의지적이지만, 스스로의 작용에 의해 극대화된다고 보았다. 인간도 이러한 자연의 원리에 따라 삶을 영위해야 한다고 보아 통치자의 무위(無爲)를 강조하였다. 또한 사회의 도덕, 법률, 제도 등은 **모두 인간의 삶을 인위적으로 규정하는 <허위>라 파악**하고, 그것의 해체를 주장하였다.

- ① 인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겠다는 시도는 결국 **현실 사회를 <허위>로 가득 차게 할 것**이다.
- ② 자연이 인간의 회복을 주관하지 않는다는 생각은 자연의 의지에 반하는 것이다.
- ③ 현실주의적 개혁은 궁극적으로 백성들에게 안정과 혜택을 줄 것이다.
- ④ 사회 제도에 의거하는 정치 개혁은 사회 발전을 극대화 할 것이다.
- ⑤ 사회 규범의 법제화는 자발적인 도덕의 실현으로 이어질 것이다.

#### [2009 수능 비문학]

위 글을 바탕으로 <보기>의 'A시'와 'B시'에 대해 평가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정답 ④)

#### <보기>

- A시는 제조업 퇴조에 따른 경제 침체를 해결하기 위해 '예술의 산업화'를 시도하기로 했다. A시 시장은 사업 추진체를 구성하고, 이해당사자 설득에 힘써 왔다. 공장을 미술관으로 개조하고 보행자 전용의 아름다운 현수교를 세워 관광객을 유치하고 고용도 창출하고 있다.
- B시는 창의적 연구에 중사하는 전문 인력이 많다. 대기업 부설 연구기관이 많아 자본도 많이 투입된다. 그러나 이 연구 기관들은 **지역 산업체와의 교류가 부족해** 경제적 부(富)가 지역으로 환류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산업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특화된 연구 단지를 계획하고 있다.

- ① A시는 문화 및 거주 환경의 창조성을 중시하고 있군.
- ② A시는 지도자의 의지와 리더십을 바탕으로 창조 환경을 마련하고 있군.
- ③ B시는 창조 환경의 요소 중 개인의 자질이 우수하군.
- ④ B시는 창조 계층과 **산업 환경 간에 네트워크가 잘 구축**되어 있군.
- ⑤ A시와 B시 모두 지역 특성을 반영하여 창조 도시에 접근하고 있군.

#### 6. 1항목 후순위의 법칙

문제의 지문 혹은 제시문이 A, B 등의 항목별로 나열되어 있고 선지에서는 그 항목을 1개 혹은 2개 이상을 가져와 설명한다. 이때 **<항목을 1개만 가져와 설명하는 선지>가 정답이 될 가능성은 <항목을 2개 이상 가져와 설명하는 선지>보다는 많이 낮은 편이다.**

▶위와 같은 문제만이라도 선지를 꼭 ①에서 ⑥의 순서대로 봐야한다는 고정관념을 깨자. **작은 습관의 변화가 정답의 정확성을 높이고 수능 국어의 생명인 문제 풀이의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

#### 7. 선지 오류의 법칙

지문과 문제에 상관없이 선지 자체가, 국어 지식 혹은 일반 상식적인 판단에 의해 오류가 확실히 있거나, 적절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알 때가 있다. 이런 **자체 오류의 선지**는 부정형 발문에서 지문을 보지 않고도 100% 정답이 된다.

**[2017 수능 비문학]**

윗글의 <고지 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고지 의무를 위반한 보험 가입자가 보험사에 손해 배상을 해야 하는 근거가 된다. (정답)

→법(고지 의무)을 위반한 이(보험 가입자)가 손해 배상을 당하는 것도 아니고 손해 배상을 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적절하지 않다.

**[2012 수능 비문학]**

<보기>에서 ㉠~㉢의 합성에 적용된 원리를 분석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③ ㉠<발 바로 아래에서 나는 마루 삐걱거리는 소리>는 같은 소리가 두 귀에서 시간 차이를 두고 들리도록 했겠군. (정답)

→상식적으로 각각의 귀에서 발 바로 아래까지의 거리는 거의 동일한데, 밑에서 올라오는 소리가 시간 차이를 두고 들릴 수가 없다.

**수능 (상)편 적용 문제 수**

	대립 선지	공통 선지	일탈 선지	비교 선지	보기 선지	1항목 후순위	선지 오류
2018	3	4	0	0	2	3	0
2017	1	4	0	1	0	2	1
2016	5	9	4	3	3	3	1
2015	11	7	0	2	1	4	1

(수능 다른 연도 및 평가원 적용은 해당 교재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선지의 법칙 활용 방법 및 주의 사항**

실전에서 지문 분석하기도 바쁜데 선지의 법칙을 따질 여유는 당연히 없다. 하지만 이를 알고 문제를 푸는 것과 전혀 모르고 문제를 푸는 것은 분명 다르다. 시험 시간을 1초라도 줄이고 정답을 찾을 확률을 1%로라도 높이려는 동기가 있다면 충분히 살피 볼만은 하다. 이 법칙들은 문제 풀이의 감각을 더해줄 것이다. 하지만 이 법칙들을 체화해서 실전에서 반드시 써먹겠다는 마음보다는, 이 교재를 통해 가볍게 보는 정도로 그치고 실전에서 이것들이 불현듯 생각난다면 그때 참고하자. 물론 시간이 없어 문제를 제대로 풀지 못하는 극단적인 상황에서는 적극적으로 시험의 법칙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정답을 조금 더 빨리 만나는 방법>**

다음의 문제 유형들은 반드시 선지를 (③→④→⑤→①→②) 순으로 검토한다.

\*<보기>가 제시된 3점짜리 문제

\*윗글을 읽고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윗글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부정형도 마찬가지)

**<지문 독해 메모 및 표시 방법>**

문제 풀이 시간의 단축을 위해 지문에 적절한 표시는 필수!

○ :주체나 대상, △ :반대 맥락,

> :같은 맥락 혹은 결과, / :흐름 끊기

\*요소나 서술의 키워드는 밑줄이 적절

\*비례나 비교 표현 등 빈출되는 항목은 물결무늬가 적절

(주의: 지문의 핵심을 판별을 위해 지문 표시는 최소화하는 것이 좋다)

**저자의 당부**

\*적극적으로 N회독을 하자

\*모르면 질문하고 해결하자

\*수능 날까지 기출을 곁에 두자

\*매일 2~3지문 씩 꾸준히 공부하자

\*지문 공부와 문제 풀이를 병행하자

\*실력 향상은 최소 3개월 후어나 기대하자

\*실력 향상을 위해 어렵고 힘든 것을 이겨내자

\*1회독만 할 생각이라면 바로 2회독 과정을 시작하자

# ※1~3, <말하기 계획 평가>

## 1. <화법>

#발표 #최선의 조건 #평가 기준의 척도 #질문의 유형

정답률	선지별 선택비율				
	①	②	③	④	⑤
83%	8%	83%	5%	3%	1%

### ◆정답 ②

\*수라상의 음식을 포함한 1)조선의 궁중 음식은 우리 전통 음식을 대표한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이는 궁중과 민간의 교류를 통해 조선의 궁중 음식이 민간의 음식뿐만 아니라 민간의 뛰어난 조리 기술까지 받아들여 우리 음식 전반을 아울렀기 때문이지요. 이러한 <의의>가 인정되어~수라상에 대해 제가 2)참고한 기록은 대한 제국 시기 상궁들의 구술을 토대로 한 것입니다.

[끝문단]

⇒끝부분에는 조선의 궁중 음식의 <의의>를 밝히고1) 발표에 활용된 정보의 출처를 언급했을 뿐,2) 내용을 요약하며 중심 내용을 강조한 것은 아니다.

▶평가원 화법 문제에서 요약과 관련된 선지는 대부분 부적절 선지로 설정되기 마련이다.

### ★최선의 조건★

선지 ②를 검토하는 데 지문을 처음 부분부터 봤다면 반성하자. 선지 ②는 <~마무리하여>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지문 끝부분만 살펴보면 된다. 어렵지 않은 문제일수록 선지의 정/오를 판단하는데 1초라도 시간을 아껴야 한다. 실전에서는 1초라도 소중하다. 항상 최선의 경제적인 문제 풀이에 관심을 갖자.

### ◆오답 풀이

①

\*우선 '수라'는요, 고려 때 몽골의 영향으로 생긴 말로 왕에게 올리는 밥을 높여 이르던 말입니다.→(어휘의 유래와 의미, 어휘의 출처)-1)조선 왕조 궁중 음식이라는 책에 따르면 왕은 이러한 수라상을 아침과 저녁에 받았다고 합니다. [2문단]

\*수라상에 대해 제가 2)참고한 기록은 대한 제국 시기 상궁들의 구술을 토대로 한 것입니다. [끝문단]

⇒정보의 출처를 언급하여1~2) 발표 내용의 신뢰성을 높여야겠어.

▶('조사 기관', '조사 날짜', '조사 대상자')등 구체적인 출처 제시와 신뢰성 향상은 비례한다.

※다양한 평가 기준의 척도를 알아보자!

- ㄱ. 타당성: 사물의 이치에 맞는 옳은 성질
- ㄴ. 합리성: 이론이나 이치에 합당한 성질 →(상식적)
- ㄷ. 객관성: 언제 누가 보아도 그러하다고 인정되는 성질
- ㄹ. 공정성: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올바른 성질

- ㄴ. 정확성: 바르고 확실한 성질
- ㄷ. 신뢰성: 굳게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성질

⇒정확하고 객관적인 근거를 들어 공정하게 의견을 제시하면 의견의 타당성이 높아져 '합리적이다' 라고 할 수 있고 그 의견에 신뢰가 간다.

③

\*1)야참을 식사로 본다면 왕은 하루에 몇 번이나 식사를 했을까요? 2)(청중의 대답을 듣고) 예, 다섯 번이죠. [3문단]

⇒발표 중에 질문을 하여1) 발표 내용에 대한 청중의 이해를 확인해야겠어.2)

### 평가원 의의제기

\*청중의 이해를 확인한다는 것은 이 질문의 시점을 기준으로 질문 시점 이전에 전달했던 혹은 제시된 적이 있던 정보에 대한 질문이어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질문의 시점을 기준으로 과거에 그 질문에 포함된 정보가 이전에 제시되지 않았다면 그것을 어떻게 청중의 이해를 확인한다는 선지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이죠?

⇒3문단 3번째 문장인 <초조반상과 낮것상은 주로 죽으로, 야참은 면, 식혜 등으로 간단히 차린 걸 볼 수 있죠>가 이전 정보에 해당하고 <야참을 식사로 본다면 왕은 하루에 몇 번이나 식사를 했을까요?>가 그와 관련된 이해를 확인하는 질문에 해당한다.

※다양한 질문의 유형에 대해 알아보자!

- ㄱ. 상대에게 정보 요구 (평자 구조가 무엇인가요?)
- ㄴ. 자신의 이해여부 확인 (우리나라에 적합한 구조라는 거죠?)
- ㄷ. 상대의 이해여부를 확인 (희토류에 대해 이해되셨나요?)
- ㄹ. 상대의 배경지식 확인 (이건 어떤 원리인지 알고 있나요?)
- ㅁ. 상대의 호기심 유발 (결과가 궁금하시죠?)

### ★2016 수능 '질문' 관련 문제의 정답 사례!

[2016 수능 A 1번 문제의 정답]

\*진행자는 해설사가 말한 내용이 진행자 자신의 경험과 관련이 있는지 **질문을 통해 확인**하고 있다.

[2016 수능 A 3번 문제의 정답]

\*청중의 **이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청중에게 질문**을 한 뒤 반응을 살피고 있다.

[2016 수능 B 7번 문제의 정답]

\*글의 주제와 관련하여 상대방의 답변 내용과 관련된 **추가 정보를 요구**한다.

⇒2016 수능 한 시험에서 '질문' 관련 문제가 3문제나 출제되었고 그것도 모두 정답 선지로 배치되었다! 좀 더 꼼꼼히 공부하고 문제에 질문과 관련된 항목이 나오면 높은 정답의 가능성을 고려하여 문제에 접근하자!

④

\*오늘은 1)조선의 궁중 음식 중 수라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문단]

\*2)우선 '수라'는요, 고려 때 몽골의 영향으로 생긴 말로 왕에게 올리는 밥을 높여 이르던 말입니다.[2문단]

⇒발표 주제1)와 관련된 단어의 의미를 설명하여2) 발표 내용에 대한 청중의 이해를 도와야겠어.

**평가원 의의제기**

\*발표 주제는 '수라상'이고 그 다음 문단에 바로 '수라'에 대한 의미가 제시되어 있는데 잘못된 거 아닌가요?

⇒선지 ④는 발표 주제와 관련된 단어의 의미를 설명한다고 되어 있고 수라상과 수라는 서로 관련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⑤

\*1)발표는 수라상의 상차림, 왕의 식사 횟수와 식사 장면, 그리고 수라상의 음식을 포함한 조선의 궁중 음식이 지닌 의의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문단]

⇒발표할 내용의 순서를 앞부분에 제시하여1) 청중이 발표 내용을 예측하며 들을 수 있게 해야겠어.

**2. <화법>**

#공통 선지의 법칙 #발표 #자료 활용

정답률	선지별 선택비율				
	①	②	③	④	⑤
93%	1%	93%	2%	2%	2%

**◆정답 ②**

\*㉠지금 보시는 화면이 1)수라상의 사진인데요, 세 개의 상과 화로를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사진을 가리키며) 왼쪽에 보이는 큰 상인 대원반에는 흰밥과 탕, 반찬들이, 오른쪽에 보이는 소원반에는 팔밥과 탕, 접시가 놓여 있습니다. [2문단]

⇒수라상의 전체적인 모습을 보여 주기 위해 ㉠에 음식이 차려진 상들과 화로의 사진을 제시하였다.1)

**◆오답 풀이**

①

\*1)소원반 옆에 놓인 화로는 전골 요리에 썼다고 해요. [2문단]

⇒소원반 옆에 놓인 화로가 전골 요리에 사용되었다는 점만 언급할 뿐,1) 전골을 조리하는 과정은 없다.

③

\*왕이 하루에 식사를 두 번만 한 것은 아니었어요. ㉡두 번째 화면을 볼게요. 이것은 1)수라상 외에 왕이 받은 초조반상, 낮것상, 야참의 사진입니다. 초조반상과 낮것상은 주로 죽으로, 야참은 면, 식혜 등으로 2)간단히 차린 걸 볼 수 있죠. [3문단]

⇒㉡은 수라상 사진이 아니라, 수라상 외에 왕이 받은 초조반상, 낮것상, 야참의 사진이다.1)

**④ [선지 ③의 근거 지문 참고]**

⇒수라상이 아닌, 조반상, 낮것상, 야참을 간단히 차린 이유를 알려 주기 위함이다1~2)

⑤

\*㉢다음 화면에서 보실 것은 1)왕의 식사 장면을 재현한 동영상입니다.~이렇게 왕은 2)상궁들의 시중을 받으며 식사를 했어요. [3문단]

⇒㉢에 시중을 드는 상궁들의 모습을2) 담은 동영상을 제시한 것은 왕의 식사 장면 재현을1) 설명하기 위해서이지, 수라상을 차리는 과정을 설명하기 위해서가 아니다.

**★공통 선지의 법칙★** (자세한 내용 2쪽~ 참고)  
\*위 문제의 선지 ①, ②는 ㉠에 화로 사진이 공통된다.

- ① ~㉠에 소원반과 화로의 사진을~
- ② ~㉠에 음식이 차려진 상들과 화로의 사진을~ **(★정답)**

그래서 지문과 문제에 상관 없이 ①, ②중에서 답이 있을 가능성은 약 70%이다.

**3. <화법>**

#1항목 후 순위의 법칙 #보기-선지의 법칙 #청중의 반응 #분석 #3점

정답률	선지별 선택비율				
	①	②	③	④	⑤
94%	2%	1%	2%	94%	1%

**◆정답 ④**

<보기>

청자1: 그런데 수라상에 세 개의 상이 있다고 하면서도 1)설명은 두 개만 해서 아쉬웠어.

청자3: 2)궁중 음식이 무형 문화재로 지정되었다는 것은 단지 음식만이 아니라 조리법을 비롯한 음식 문화 전반의 가치를 인정한 것이겠군. 그리고 3)고추와 같은 재료는 조선 후기에 유입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에 따라 수라상의 음식들에 변화가 있었겠군.

⇒청자1은 발표 내용에 누락된 내용이 있는 것을 부정적으로 생각한다.1) 하지만 청자 3은 궁중 음식이 무형 문화재로 지정된 것의 의의를 밝힌 후2) 고추와 같이 조선 후기에 유입된 재료에

따른 수라상 음식들의 변화를 추론하고 있을 뿐,3) 발표에 누락된 내용이 있는 것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없다.

◆오답 풀이

①

<보기>

청자1: 궁중 음식을 민간과 무관한 것으로 생각했는데, 1)민간과 교류를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좋았어.

⇒청자1은 이전에 몰랐던 사실을 발표를 통해 알게 된 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군.1)

②

<보기>

청자2: 그리고 1)발표자가 참고한 기록이 대한 제국 시기 상궁들의 구술을 토대로 했다면, 2)오늘 들은 수라상에 대한 내용은 조선 시대 전반에 걸친 것이 아닐 수도 있지 않을까?

⇒청자2는 발표 내용의 일부를 언급하며1) 이와 관련하여 의문을 제기하고 있군.2)

③ [정답 근거 지문 참고]

⇒청자3은 발표 내용을 바탕으로 발표에서 직접적으로 언급되지 않은 내용을 추론하고 있군.2~3)

⑤

<보기>

청자2: 1)왕의 음식에 독이 들었는지 확인하는 상궁을 기미 상궁으로 알고 있는데,

청자3: 그리고 2)고추와 같은 재료는 조선 후기에 유입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청자2와 청자3 모두 발표 내용과 관련된 자신의 배경 지식을 활용하고 있군.1~2)

★1항목 후순위의 법칙★ (자세한 내용 2쪽~ 참고)  
위 문제의 경우 선지 ①~③이 각각 청자1,2,3중 1개만을 활용하여 설명하는데 다른 선지보다는 정답이 될 가능성이 낮다. 이를 고려하고 항목 2개를 가져와 설명한 선지 ④, ⑤를 먼저 더욱 집중해서 보는 것은 정답을 조금이라도 빨리 만날 수 있는 풀이법이다.

★보기-선지의 법칙★ (자세한 내용 2쪽~ 참고)  
위 문제는 정답 해설과 같이 지문 없이 보기-선지만으로도 정답을 찾을 수 있다.

※4~7, <토의 & 글의 초고>

4. <작문>

#최선의 조언

정답률	선지별 선택비율				
	①	②	③	④	⑤
97%	1%	1%	97%	1%	0%

◆정답 ㉔

㉔, ㉕, ㉖

(가)

현지: 오늘은 내가 진행할게. (활동지를 나눠 주며) 지난 시간에 「허생의 처」를 읽었으니, 이번 시간에는 ‘허생의 처가 추구하는 행복의 조건은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토의하려고 해.  
→(㉔)

현지: 정리하면,→(㉔) 허생의 처가 추구한 행복의 조건을 외적 조건이나 내적 조건으로만 접근하는 건 적절하지 않을 수 있겠네. 그렇다면 허생의 처가 추구한 행복의 조건을 다른 측면에서는 어떻게 접근할 수 있을까?→(㉕)

현지: 정리하면,→(㉔) 결국 허생의 처는 강요된 희생과 소원한 가족 관계라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행복하지 않았던 것이고,

◆오답 풀이

⇒㉕발언 순서를 지정하는 것이나 ㉖근거 없이 의견만을 이야기할 때는 근거를 함께 제시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없다.

★최선의 조언★

㉕에 해당하는 지문 근거는 ‘정리하면’으로 충분하다. 굳이 뒤의 구체적인 내용은 살펴볼 필요가 없다. 토의 내용을 정확히 정리하는 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처럼 실전 수능에서 쉬운 문제일수록 최소한의 근거로 정답을 찾아야 남들보다 시간 경쟁력이 생긴다. 단순히 정답을 찾아내는 공부는 별 의미가 없다. 항상 어떻게 하면 남들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문제를 풀까하고 끊임없는 시행착오를 겪으며 최적의 문제 풀이 방법을 강구해야한다.

5. <작문>

#이해 #의문문\_설의법\_문답법

정답률	선지별 선택비율				
	①	②	③	④	⑤
90%	1%	1%	1%	90%	7%

◆정답 ㉔

[B]

영수: 1)맞아. 2)허생의 처가 추구하는 행복의 조건을 가족 구성원의 관계라는 측면에서 더 살펴보면,

⇒[B]: ‘영수’는 ‘민호’의 의견을 받아들이며1) 이를 보완하는 의견을 추가하고 있다.2)

◆오답 풀이

①

[A]

영수: 1)과연 그럴까?→(설의법: 그럴 수 없다!) 2)허생의 처는 생존을 위한 기본적 요건을 충족하고자 한 것으로 볼 수 있어, 그런 점에서 허생의 처가 외적 조건인 부를 추구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

⇒[A]: ‘영수’는 ‘민호’의 의견에 긍정하지 않고 1) 다른 의견을 제시할 뿐이지, 2) 추가적인 근거를 요구하기 위해 질문하는 것은 아니다.

※의문문 VS 설의법 VS 문답법

- ㄱ. 의문문: 화자가 청자에게 질문을 하여 그 해답을 요구함.
- ㄴ. 설의법: 누구나 인정하는 사실(평서문)을 의문문으로 제시해 강조함.
- ㄷ. 문답법: 스스로 묻고 답함으로써 강조함.

(상대의 나이를 궁금해 하는 상황)

A: 나이가 몇인가 →(일반 의문문)

B: 20살입니다

(나이에 걸맞지 않은 행동으로 상대를 질책하는 상황)

A: 나이가 몇인가 (나이에 걸맞지 않다)의 강조! →(설의법)

B: 죄송합니다 (물음에 대한 대답이 아님!)

(자신의 삶을 성찰하는 상황)

나이가 몇인가 →(문답법)

내 나이 이제 40

잠시 나를 돌아보자

② [선지 ①의 근거 지문 참고]

⇒[A]: ‘영수’는 ‘민호’의 의견을 수용하지 않았다. 1)

③ [선지 ①의 근거 지문 참고]

⇒[A]: ‘영수’는 ‘민호’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으면서 1) 다른 의견을 진술한 것이다. 2)

⑤ [정답 근거 지문 참고]

⇒‘영수’는 ‘민호’의 의견에 대해 동의하므로 1) 논리적 오류를 지적하면서 상반된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다.

6. <작문>

#작문 계획 #반영된 내용 #토의\_토론

정답률	선지별 선택비율				
	①	②	③	④	⑤
65%	1%	8%	23%	3%	65%

◆정답 ⑤

(가)

민호: 허생의 처는 홀로 가정 생계를 꾸려야 하는 부담을 1)<일반적으로 강요>받고 있고 허생은 허생의 처의 힘겨움을 외

면하고 있어, 이 때문에 허생의 처는 행복하지 않다고 느끼는 것 같아.

영수: 남편은 제 아내인 나를 모르고...”라고 허생의 처가 남편에 대해 한탄하는 대목을 볼 때 허생의 처는 가족 간의 2) <소원한 관계>도 행복하지 않은 이유로 여기는 것 같아.

(나)

\*그리고 3)그동안 <부모님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며 살아온 것은 아닌지, 공부나 친구를 핑계로 가족과의 <관계를 소원>하게 만든 것은 아닌지 반성하게 되었다. [3문단]

⇒허생의 처가 왜 행복하지 않은지에 대해 나(민호)와 ‘영수’가 <강요된 희생>과 <소원한 관계>를 동의하며 1~2) 이를 바탕으로 자신의 삶을 반성한다. 3) 그러나 <강요된 희생>을 주된 이유로, <소원한 관계>를 부차적 이유로 구별한 것은 아니다.

◆오답 풀이

①

(가)

민호: 이런 이유로 볼 때, 1)허생의 처는 <외적 조건>인 부를 추구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

영수: 2)허생의 처는 생존을 위한 기본적 요건을 충족하고자 한 것으로 볼 수 있어, 그런 점에서 3)허생의 처가 외적 조건인 부를 추구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

(나)

\*「허생의 처」를 읽고 허생의 처가 빈곤한 형편에 힘들어 하고 한탄하는 모습을 통해, 4)나는 허생의 처가 행복의 <외적 조건>을 추구하고 있다고 여겼다. 하지만 5)토의를 통해 허생의 처는 단지 생존을 위한 기본적인 요건이 충족되기를 바랐을 뿐, 6)물 질적인 부를 추구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1문단]

⇒허생의 처가 추구한 행복의 조건이 <외적 조건>이라고 한 기준의 내(민호) 의견과 1,4) 토의를 통해 수정된 내 생각을 함께 써야겠어. 2,3,5,6)

※토의 vs 토론

ㄱ. 토론: 찬성과 반대로 나뉘는 확실한 대립점이 있는 논제이어야 한다. (교복 착용의 의무화해야 하는가? / 동성간의 결혼 합법화 필요인가?)

ㄴ. 토의: 문제해결을 위한 집단 협력적 논의이다. (불우 이웃을 어떻게 도와야 하는가? / 취업난을 해결할 정책은 무엇인가?)

②

(가)

민호: 허생의 처가 행복의 외적 조건인 부를 추구하고 있다고 보는 건 적절하지 않을 수 있겠어.

(나)

\*그런데 1)생계와 관련된 문제만 해결된다면 허생의 처는 행복해질 수 있었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다. 2)~결국 허생의 처가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가족 구성원 간의 바람직한 관계 역시 중요한 조건이었던 것이다. [2문단]

⇒허생의 처가 행복하지 않은 이유를 생계 문제를 중심으로 파악했던 의견에 의문을 제기하고1) 이에 답하는 식으로 써야겠어.2)

③

(가)

영수: 1)허생의 처가 추구하는 행복의 조건을 가족 구성원의 관계라는 측면에서 더 살펴보면, “나는 내 남편이 하는 일을 모르고, 남편은 제 아내인 나를 모르고...”라고 허생의 처가 남편에 대해 한탄하는 대목을 볼 때 허생의 처는 <가족 간의 소원한 관계>도 행복하지 않은 이유로 여기는 것 같아.

(나)

\*결국 2)허생의 처가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가족 구성원 간의 바람직한 관계> 역시 중요한 조건이었던 것이다. [2문단]

⇒‘영수’가 허생의 처의 말을 인용하면서 개진한 의견을1) 포함하여 허생의 처가 행복해지기 위한 조건(가족 간의 바람직한 관계)을 써야겠어.2)

④

(가)

민호: 1)허생의 처가 추구하는 행복의 조건은 가족 구성원의 관계라는 측면에서 접근해 볼 수 있겠어.

영수: 2)맞아. 허생의 처가 추구하는 행복의 조건을 가족 구성원의 관계라는 측면에서 더 살펴보면,

(나)

\*3)그동안 나는 돈을 많이 벌거나 좋은 직업을 갖는 등 행복의 외적 조건만이 나를 행복으로 이끌어 줄 것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이 조건만이 행복을 위한 조건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3문단]

⇒나(민호)와 ‘영수’가 허생의 처의 행복을 가족 간 관계의 측면에서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1~2) 내가 기준에 갖고 있던 행복에 대한 생각이다 편협했음을 깨달았다는 내용을 써야겠어.3)

7. <작문>

#보기-선지의 법칙 #3점

정답률	선지별 선택비율				
	①	②	③	④	⑤
90%	1%	6%	90%	1%	2%

◆정답 ③

\*하지만 ①이 조건(물질적 조건)만이 행복을 위한 조건의 전부

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보기>

③ 행복 수준을 조사하기 위해 1)물질적 풍요 수준, 2)가족이나 친구와 같은 인간관계에서의 만족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③을 활용하여, 행복을 위한 조건으로 물질적 부도1) 고려해야 하지만 가족 구성원 간의 바람직한 관계 형성도2) 고려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구체화한다.

◆오답 풀이

①

\*①소득이 높아질수록 행복 수준도 상승할 것이라는 사람들의 기대와는 달리,

⇒①는 소득 수준과 행복 간의 상관관계에 대한 사람들의 일반적인 기대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이는 행복을 위한 조건인 물질적 부의 수준이 사람마다 다를 수 있다는 내용으로 구체화될 수 없고, ①과 무관하다.

②

\*②소득이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소득이 더 증가해도 행복 수준은 더 이상 상승하지 않는다

⇒②는 일정 소득 수준을 넘어서선 물질적 부의 추구가 행복의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구체화될 수 있지만 ①과는 상관이 없다.

④

\*④소득이 높아질수록 행복 수준도 상승할 것이라는 사람들의 기대와는 달리,

④ 행복 수준을 조사하기 위해 물질적 풍요 수준, 가족이나 친구와 같은 인간관계에서의 만족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④와 ③을 활용해도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 보장이 바람직한 가족 관계 형성의 조건이라는 결론으로 이어질 수 없고, ①과도 상관이 없다.

⑤

\*⑤소득이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소득이 더 증가해도 행복 수준은 더 이상 상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⑤ 행복 수준을 조사하기 위해 물질적 풍요 수준, 가족이나 친구와 같은 인간관계에서의 만족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⑥와 ㉔를 활용해도 물질적 부의 추구와 가족 간의 관계가 서로 어떤 상관관계를 맺고 있는지 말할 수 없고 ㉔과도 상관이 없다.

★보기-선지의 법칙★ (자세한 내용 2쪽~ 참고)

<보기>: ㉔행복 수준을 조사하기 위해 **물질적** 풍요 수준, **가족**이나 친구와 같은 인간관계에서의 만족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정답 ㉔: ㉔를 활용하여, 행복을 위한 조건으로 **물질적** 부도 고려해야 하지만 **가족** 구성원 간의 바람직한 관계 형성도 고려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구체화한다.

※8~10, <메모와 초고>

8. <작문>

#내용 반영 #열거\_반복\_대구 #평가 기준의 척도

#평가원 이의제기

정답률	선지별 선택비율				
	①	②	③	④	⑤
90%	90%	1%	4%	2%	3%

◆정답 ①

(가)

\*작문 상황: <봉사의 날 운영 방식>을 글감으로 하여 교지에 글을 게재하려 함.

(나)

\*이로 인해 1)학교 구성원들 사이에서 <봉사의 날 운영 방식>에 대한 논의가 한창이다. [1문단]

⇒글감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을 드러내기 위해, <봉사의 날 운영 방식>이 논의되고 있는 우리 학교 상황을 제시하였다.1)

평가원 이의제기

\*봉사의 날 운영 방식이 논의되고 있는 우리 학교 상황을 제시한다는 것은 맞지만, 그 목적이 논의의 필요성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지문에서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래서 선지 ①은 정답이 될 수 없습니다.

\*글의 목적이 '예상 독자인 우리 학교 구성원을 설득하는 글'이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 이 문장만을 근거로 해서는 '글감에 한 논의의 필요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글을 썼다고 할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위 문제의 모든 선지들은 앞 부분이 <~위해>로 뒤 부분의 목적을 나타내는 것을 전제로, 뒤 부분이 (나)에 반영되었는지의 유/무를 판단하는 것을 의도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논의의 필요성을 드러내기 위함>을 지문에서 찾을 필요가 없다. 뒤 부분인 <봉사의 날 운영방식이 논의되고 있는 우리 학교 상황을 제시>만 (가)의 사항과 관련지어 (나)에 반영되었는지의 여부만

판단하면 된다. 이의제기한 논리로 위 문제를 살펴보면 모든 선지의 앞 부분은 전부 지문에 없기 때문에 결국엔 정답이 없다. 정답이 없는 기준이 아닌, 정답이 하나만 나올 수 있는 기준을 고려해 출제자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해야한다.

◆오답 풀이

②

\*1)우리 **학급** 학생들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해 본 결과 실제로 학생들 대다수가 현행 봉사의 날 운영 방식에 대해 만족하지 않았다. [2문단]

⇒우리 **학급**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인터뷰 자료(가1) 제시되어 있지만 자료를 수집한 과정과 우리 학교에 봉사의 날이 도입된 취지는 없다.

③

⇒주제를 선정하는 과정은 없다.

④

\*학생들은 1)동아리별 봉사 활동의 장점으로 진로와 관심사를 반영한 봉사 활동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 [3문단]

⇒동아리별 봉사 활동의 장점은 있어도1) 현행 봉사의 날 운영 방식의 장점은 없다.

※열거, 반복, 대구에 대해 알아보자!

ㄱ. 열거 (나열): 비슷한 말을 늘어놓음.

(딸기, 포도, 사과는 과일의 종류이다.)

ㄴ. 반복: 동일한 말을 연속적으로 사용. (눈, 눈, 눈이 내린다!)

☞운을 형성!

ㄷ. 대구: 문장의 동일한 구조를 짝지어 줌 ☞운을 형성!

(콩 심은데 콩나고, 팥 심은데 팥난다.)

⑤

\*1)우리 **학급** 학생들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해 본 결과 실제로 학생들 대다수가 현행 봉사의 날 운영 방식에 대해 만족하지 않았다. [2문단]

⇒조사 대상에 대한 정보는 있으나1) 설문 조사 문항(객관식인지, 주관식인지 등)에 대한 정보는 없다.

※다양한 평가 기준의 척도를 알아보자!

ㄱ. 타당성: 사물의 이치에 맞는 옳은 성질

ㄴ. 합리성: 이론이나 이치에 합당한 성질 →(상식적)

ㄷ. 객관성: 언제 누가 보아도 그러하다고 인정되는 성질

ㄹ. 공정성: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올바른 성질

ㅁ. 정확성: 바르고 확실한 성질

ㅂ. 신뢰성: 굳게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성질

☞정확하고 객관적인 근거를 들어 공정하게 의견을 제시하면 의

견의 타당성이 높아져 ‘합리적이다’ 라고 할 수 있고 그 의견에 신뢰가 간다.

9. <작문>

#1항목 후순위의 법칙 #보완 #자료 활용 방안 #평가원 이의제기

정답률	선지별 선택비율				
	①	②	③	④	⑤
90%	1%	2%	3%	90%	4%

◆정답 ④

[A]

\*우리 학급 학생들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해 본 결과 실제로 학생들 대다수가 <현행 봉사의 날 운영 방식>에 대해 만족하지 않았다.~

학생들은 <동아리별 봉사 활동>의 장점으로 진로와 관심사를 반영한 봉사 활동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

<자료>

㉠ <동아리별 봉사 활동>은 동아리 활동을 통해 계발한 역량을 봉사 활동에서 발휘할 수 있어 학생들에게 성취 경험을 제공하므로 봉사 활동에 대한 학생들의 자발성을 높일 수 있다. 하지만 학생들이 1)동아리 활동 시간에 봉사 활동 준비를 하는 경우도 있어 동아리의 본래 목적에 맞는 활동이 잘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

⇒㉠은 <봉사 활동 준비 시간>과는 전혀 상관이 없고 ㉡는 동아리 활동 시간에 봉사 활동 준비를 한다는 문제점을 1) 지적한 것으로, <현행 운영 방식>의 문제점이 아닌, <동아리별 봉사 활동>의 문제점에 해당한다.

◆오답 풀이

①  
⇒㉡는 <현행 운영 방식에 대한 우리 학교 학생들의 만족 여부>에 관한 설문 조사 결과이기 때문에 적절한 방안이다.

②  
⇒㉢에는 현행 운영 방식에 대한 학생들의 불만족 이유에 봉사 활동에서 보람을 느낄 수 없다는 점이 있기 때문에 적절한 방안이다.

③

[A]

\*동아리 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는 1)일부 학생들의 우려도 있지만,

㉣ 따라서 학교에서는 2)별도의 봉사 활동 준비 시간을 마련해 주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에는 <별도의 봉사 활동 준비 시간을 마련해 주는 방안>이 있어 2) 이를 활용해 동아리별 봉사 활동의 도입과 관련한 일부 학생들의 우려에 1) 대해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추가할 수

있다.

⑤

㉤ <현행 봉사의 날 운영 방식에 대한 불만족 이유>

1위(51%): 1)자발성이 떨어짐  
2위(13%): 보람을 느낄 수 없음

㉥ <교육 전문 잡지>

동아리별 봉사 활동은 동아리 활동을 통해 계발한 역량을 봉사 활동에서 발휘할 수 있어 2)학생들에게 성취 경험을 제공하므로 3)봉사 활동에 대한 학생들의 자발성을 높일 수 있다.

⇒㉣와 ㉥를 활용해, 동아리별 봉사 활동이 학생들에게 성취 경험을 제공하여 2) 불만족 이유 중 가장 비율이 높은 문제의 1) 해결에 도움이 된다는 2) 점을 추가해야겠어.

평가원 이의제기

\*성취 경험을 제공해 자발성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닌, 두 번째로 비율이 높은 문제점인 '보람을 느낄 수 없다'에 도움을 준다고 하는 게 옳은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성취 경험 제공'과 '가장 비율이 높은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된다'라는 부분에 오류가 있으니 선지 5번도 복수정답으로 인정해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성취 경험을 제공>하여 '보람을 느낄 수 없는' 두 번째 비율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성취 경험을 제공>하는 것이 '자발성이 떨어지는' 가장 높은 비율의 문제점에 도움이 안 되는 것은 아니기에 선지 ⑤의 적절성이 부정되는 것이 아니다.

★1항목 후순위의 법칙★ (자세한 내용 2쪽~ 참고)  
위 문제의 경우 선지 ①~③이 각각 ㉡~㉣ 중 1개만을 활용하여 설명하는데 다른 선지보다는 정답이 될 가능성이 낮다. 이를 염두하고 항목 2개 이상을 가져와 설명한 선지 ④, ⑤를 먼저 더욱 집중해서 보는 것은 정답을 조금이라도 빨리 만날 수 있는 풀이 법이다.

10. <작문>

정답률	선지별 선택비율				
	①	②	③	④	⑤
81%	10%	81%	1%	7%	1%

◆정답 ②

(나)의 마지막 문단 <수정 전>

\*1)청소년기는 육체적·심리적·사회적으로 중요한 변화가 나타나고 성장이 이루어지는 시기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2)청소년기에 수행하는 봉사 활동은 청소년들에게 나눔과 배려의 정신을 길러 줄 뿐만 아니라,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든 점에서 의의가 있다.

(나)의 마지막 문단 <수정 후>

\*3)청소년기에 수행하는 봉사 활동은 청소년들에게 나눔과 배려

의 정신을 길러 줄 뿐만 아니라,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4) 동아리별 봉사 활동을 도입한다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봉사 활동에 참여하게 되어 봉사 정신을 기를 수 있고 자신들의 진로 관련 역량을 계발하여 자기 성장의 기회를 얻게 될 것이다.

▶ 수정 전과 후를 신속하게 비교 하는 것이 관건!

⇒ 청소년기의 의의는1) 삭제하고, 동아리별 봉사 활동 도입 시 기대 효과는 추가4)

◆오답 풀이 [정답 근거 지문 참고]

① ⇒ 청소년기의 의의는1) 삭제되었지만 청소년기 봉사 활동의 의의는2~3) 추가된 것이 아니라, 원래 있던 것이다.

③ ⇒ 청소년기의 의의는1) 삭제되었지만 동아리별 봉사 활동 도입을 위한 지원 방안이 추가된 것은 아니다.

④ ⇒ 청소년기 봉사 활동의 의의는2~3) 그대로 있고, 동아리별 봉사 활동 도입 시 기대 효과는4) 추가되었다.

⑤ ⇒ 청소년기 봉사 활동의 의의는2~3) 그대로 있고, 동아리별 봉사 활동 도입을 위한 지원 방안이 추가된 것은 아니다.

※11~12, <단어 형성 방식과 국어의 변천>

11. <문법>

#어간\_어미 #어근\_어간 #단어의 형성 #어미의 종류

#품사의 종류

정답률	선지별 선택비율				
	①	②	③	④	⑤
60%	3%	3%	32%	60%	2%

◆정답 ④

㉠어미는 용언 어간과 결합

<깨뜨리는>=깨뜨리(어간)+ 는(관형사형 어미)  
 (\*깨뜨리는, 깨뜨리고, 깨뜨리니, 깨뜨리며.....)

◆오답 풀이

①  
 ㉡어근과 어근이 결합

<아기장수>=아기(어근)+ 장수(어근)

②  
 ㉢과생 접사가 어근의 앞에 결합

<맨손>=맨(과생 접사)+ 손(어근)

③  
 ㉣과생 접사가 어근의 뒤에 결합

<쌓인>의 어간=쌓(어근)+ 이(과생 접사)  
 <쌓인>=쌓이(어간)+ ㄴ(관형사형 어미)

⑤  
 ㉤조사는 체언과 결합

<모습이>=모습(체언)+ 이(주격 조사)

※<어간 vs 어미>

☞ 용언(동사, 형용사) 활용시 변하지 않는 부분을 ‘어간’, 변하는 부분을 ‘어미’ 라 한다.

\* (먹고, 먹으니, 먹자...): ‘먹→(어간) / ‘고, ‘으니’, ‘자 →(어미)

※<어간 vs 어근>

ㄱ.어간: 용언의 활용형에서 **변하지 않는 부분**.  
 →(변하는 부분인 ‘어미’와 결합됨)

ㄴ.어근: 단어를 분석할 때 **실질적 의미**를 나타내는 중심이 되는 부분을 가리킴.

☞어간이 어근도 될 수 있으나 모든 어근이 어간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 먹+ 다, 먹+ 고, 먹+ 으니...  
 →(‘먹-’은 어간, ‘-다’, ‘-고’, ‘-으니’는 어미)

☞(‘먹-’은 어근으로도 볼 수 있음)  
 \* 닭+ 개, 어른+ 스럽다...→(‘닭’, ‘어른’은 어근)

※단어의 형성에 대해 알아보자!

- ㄱ.단일어 (1어근)
- ㄴ.복합어 (합성어: 2어근 이상, 파생어: 어근+접사)
- ㄷ.어근: 단어의 중심 의미
- ㄹ.접사: 중심 의미에 더해지는 의미

※어미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자!

- ㄱ.선어말 어미: 시제, 높임 (선생님께서 가+시+었+다)
- ㄴ.어말 어미: 전성, 연결, 종결 (밥 먹기가 힘들면 말해라)

※시제 선어말 어미에 대해 알아보자!

- ㄱ.현재 시제 선어말 어미: -ㄴ- / -는- ☞(철수가 밥을 먹는다.)
- ㄴ.과거 시제 선어말 어미: -었- / -았- ☞(철수가 밥을 먹었다.)
- ㄷ.미래 시제 선어말 어미: -겠- ☞(밥을 다 먹고 숙제를 하겠다.)
- ㄹ.회상 시제 선어말 어미: -더- ☞(철수가 밥을 먹고 있더라.)

※종결 어미에 대해 알아보자!

- ㄱ.평서형 종결 어미: -다, -네, -오, -습니다. -느니라, -렀다, -마...(꽃이 예쁘다.)

- ㄴ.의문형 종결 어미: -느냐, -니, -나, -부니까, -까...  
(꽃이 예쁘니?)
- ㄷ.감탄형 종결 어미: -구나, -군, -로구나, -어라/-아라(형용사에서)...(꽃이 예쁘구나!)
- ㄹ.명령형 종결 어미: -어라/-아라, -려우나, -어/-아...  
(철수야, 밥 먹어라.)
- ㅁ.청유형 종결 어미: -자, -세(철수야, 밥 먹자.)

※연결 어미에 대해 알아보자!

- ㄱ.대등적 연결 어미: -고, -며, -면서, -거나 -거나, -든지...  
(꽃이 피고, 새가 온다.)
- ㄴ.종속적 연결 어미: -면, -니, -려고, -러...  
(봄이 오면, 꽃이 핀다)
- ㄷ.보조적 연결 어미: 본용언과 보조 용언 사이에 오는 '-아/-어, -게, -지,-고'(손을 잡아 버렸다.)

※전성 어미에 대해 알아보자!

- ㄱ.관형사형 전성 어미: -는, -(으)ㄴ, -(으)ㄹ  
(지금 밥을 먹는 사람이 누구냐?)
- ㄴ.명사형 전성 어미: -(으)ㅁ, -기 (역지로 옮기는 설지 않다.)

※<품사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자.

- 1)명사: 물건이나 장소, 사건, 추상적 개념 등의 이름을 나타내는 말 (자전거, 식당, 사랑 등)
- 2)대명사: 명사를 대신하는 말 (그, 그녀, 이것, 저것 등)
- 3)수사: 사물의 수량이나 순서를 나타내는 말 (하나, 첫째 등)
- 4)조사: 자립형태소나 조사, 어미 등의 뒤에 붙어서 그 말과 다른 말과의 문법적 관계를 나타내거나 뜻을 더해 주는 말 (우리는, 집에서, 선생님께서 등)
- 5)동사: 동작을 나타내는 말 (먹다, 자다, 공부하다 등)
- 6)형용사: 사물의 모습이나 상태를 묘사하는 말 (예쁘다, 둥글다, 빨갛다 등)
- 7)관형사: 체언(명사, 대명사, 수사) 앞에서 그 체언을 꾸며주는 말 (그 학생, 새 옷 등)
- 8)부사: 용언(동사, 형용사)을 꾸며주는 말 (매우 어렵다, 무척 예쁘다 등)
- 9)감탄사: 화자의 감정 등을 간단히 나타내는 말 (야호, 얼씨구 등)

- \*체언: 명사, 대명사, 수사
- \*용언: 동사, 형용사
- \*수식언: 관형사, 부사
- \*독립언: 감탄사

문법은 가장 정직한 영역  
반드시 먼저 잡아두어야 한다.  
이것 저것 볼 필요가 없다  
총만국에 다 정리해두었다.  
배경 지식을 만날 때마다 외워두자  
한 번 외워두면 수능 때까지 유용하다

12. <문법>

#탐구 내용 #중세 국어 #미지칭 인칭 대명사  
#평가원 이의제기 #최씨의 조언

정답률	선지별 선택비율				
	①	②	③	④	⑤
52%	52%	7%	3%	35%	3%

◆정답 ①

[A]

또 다른 예로 1)<미지칭의 인칭 대명사>에, <의문문을 만드는 보조사 '고/구'>가 결합한 형태가 굳어져 새로운 인칭 대명사가 된 경우를 들 수 있다.

<보기>

(가) 중세 국어:15세기 국어

\*누를 니르더뇨(누구를 이르던가?)

→누(미지칭의 인칭 대명사)+를(목적격 조사)

\*네 스승이 누구(네 스승이 누구인가?)

→누(미지칭의 인칭 대명사)+고(의문문을 만드는 보조사)

\*누된 누구(남은 누구인가?)

→누(미지칭의 인칭 대명사)+고(의문문을 만드는 보조사)

(나) 근대 국어

\*이 벗은 누구고(이 벗은 누구인가?)

→누고(미지칭의 인칭 대명사)+고(의문문을 만드는 보조사)

\*저 혼 벗은 누구고(저 한 벗은 누구인가?)

→누고(미지칭의 인칭 대명사)+고(의문문을 만드는 보조사)

(다) 현대 국어

\*누구를 찾으세요?

→누구(미지칭의 인칭 대명사)+를(목적격 조사)

\*누구에게 말했어요?

→누구(미지칭의 인칭 대명사)+에게(부사격 조사)

[탐구 결과]

2)<미지칭의 인칭 대명사>에 <의문문을 만드는 보조사 '고/구'>가 결합했던 형태인 '누고', '누구'는 3)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굳어져 새로운 단어가 되었는데,

※'누고', '누구'의 변천

(가) 중세: 대명사+보조사

(나) 근대: 대명사

(다) 현대: 대명사, '누구'만 사용

⇒중세 국어인 (가)에 사용된 '누고', '누구'는 <미지칭의 인칭 대명사>의 형태가 아니라 <미지칭의 인칭 대명사>인 '누'에 <의문문을 만드는 보조사 '고/구'>가 결합된 형태이다.1~2) 이들의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굳어져 새로운 단어가 된 것이다.3)

<미지칭의 인칭 대명사>는 '누'일 뿐이고 '누고', '누구'가 인칭 대명사라면, <네 스승이 누구>, <누된 누구>가 대명사의 형태로 문장이 종결되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 ② ⇒(나)에서 미지칭의 인칭 대명사의 형태는 ‘누고’, ‘누구’이다.
- ③ ⇒(다)에서 미지칭의 인칭 대명사의 형태는 ‘누구’이다.
- ④ ⇒(가)에서 (나)로의 변화를 보니, ‘누고’, ‘누구’는 체언인 <미지칭의 인칭 대명사>와 <의문문을 만드는 보조사>가 결합한 형태였다가 새로운 단어인 <미지칭의 인칭 대명사>가 되었다.
- ⑤ ⇒(나)에서 (다)로의 변화를 보니, 현대 국어에서는 미지칭의 인칭 대명사로 ‘누고’는 쓰이지 않고 ‘누구’만이 쓰이고 있다.

평가원 이의제기

\*A단락 마지막에 ‘현대 국어의 일부 방언에서도 쓰이고 있다’라고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5번 선지에 현대 국어에서는 쓰이지 않는다 라고 되어 있으므로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선지 ⑤는 현대 국어 전체로 고려해야하는 것이 아니라, <보기>의 (다)로 한정해야하는 판단이다. 이에 따라 방언이 사용되지 않은 (다)에서 ‘누고’는 쓰이지 않는다는 내용은 적절하다.

★최שמ의 조언★

굉장히 복잡한 풀이 과정인듯 하지만, 근거 지문 1~2)중 하나만으로도 선지 ①이 정답임을 90%이상 판단할 수 있다. 중세 국어가 포함된 3점짜리 문제라고 겁먹지 말고 별거 없다는 마음으로 대하여 차근차근 침착하게 살펴보면 틀릴 이유가 전혀 없다.

13. <문법>

#부사어 #품사\_문장 성분 #탐구

정답률	선지별 선택비율				
	①	②	③	④	⑤
92%	2%	2%	92%	2%	2%

◆정답 ③

⇒부사어 <너무>는 관형어 <헌>을 수식한다.

◆오답 풀이

- ① \*<부시계>=부시(어간)+계(부사형 어미)  
⇒<눈이 부시계>는 부사어로 쓰여, <푸른>을 수식한다.
- ② \*<하늘에서>=하늘(명사)+에서(부사격 조사)  
⇒<하늘에서>와 <평평>은 부사어로 쓰여, <내리고~>를 수식한다.

④

- \*<엄마와>=엄마(명사)+와(부사격 조사)
- \*<취미로>=취미(명사)+로(부사격 조사)  
⇒<엄마와>와 <취미로>는 각각 <앉았다>와 <읽는다>를 수식하는 부사어이지만, ㉠의 <취미로>와 달리, ㉡의 <엄마와>는 문장에서 없으면 비문이 되기 때문에 필수 성분에 해당한다. ㉠의 <취미로>는 없어도 비문이 되지 않기 때문에 필수 성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⑤

- \*<재로>=재(명사)+로(부사격 조사) ☞부사어
- \*<재가>=재(명사)+가(보격 조사) ☞보어  
⇒부사격 조사와 보격 조사가 각각 붙은 ㉡의 <재로>는 <부사어>이고 ㉠의 <재가>는 <보어>로서, 문장 성분은 서로 다르지만 없으면 비문이 되기 때문에 서술어가 반드시 필요로 하는 성분이라는 점에서는 같다.

※<문장 성분>에 대해 알아보자!

- ㄱ.주성분: 1)주어-무엇이, 누가  
2)서술어-어찌하다, 어떠하다  
3)목적어-‘을/를’이 붙은 대상  
4)보어-되다/아니다 앞에서‘이/가’가 붙는말
- ㄴ.부속성분: 1)관형어-체언(명사, 대명사, 수사)을 꾸밈  
2)부사어-용언(동사, 형용사)을 꾸밈
- ㄷ.독립성분: 감탄사나 접속부사

※<품사>와 <문장 성분>의 차이점

☞낱말의 개별 성질은 품사이고 낱말의 문장에서의 역할이 문장 성분이다.

\*나는 학교에 갔다

- 나(대명사)+는(조사) 학교(명사)+에(조사) 갔다(동사)
- ☞나는(주어)+학교에(부사어)+갔다(서술어)

14. <문법>

#음운 변동 #음운의 개수 #자음군 단순화 #비음화 #유음화 #ㄴ첨가

정답률	선지별 선택비율				
	①	②	③	④	⑤
72%	9%	72%	9%	4%	6%

◆정답 ②

※음운 변동 사항

- ㉠<흙일>→흙일(자음군 단순화)→흙닐(ㄴ첨가)→흥닐(비음화)
- ㉡<닿는>→닿는(자음군 단순화)→달른(유음화)
- ㉢<발야구>→발냐구(ㄴ첨가)→발라구(유음화)

⇒㉠<닿는>에는 첨가가 없다.

◆오답 풀이

① [정답 근거 참고]

⇒㉠~㉢은 각각 2회 이상의 음운 변동이 일어났다.

③

※음운의 개수

㉠ **홍일**: ㅎ, ㅡ, ㄹ, ㄱ, ㅣ, ㅇ →6개

[**홍닐**]: ㅎ, ㅡ, ㅇ, ㄴ, ㅣ, ㄹ →6개

㉡ **달는**: ㄷ, ㅏ, ㄹ, ㅎ, ㄴ, ㅡ, ㄴ →7개

[**달른**]: ㄷ, ㅏ, ㄹ, ㄹ, ㅡ, ㄴ →6개

㉢ **발야구**: ㅂ, ㅏ, ㄹ, ㅏ, ㄱ, ㅏ →6개

[**발랴구**]: ㅂ, ㅏ, ㄹ, ㄹ, ㅏ, ㄱ, ㅏ →7개

⇒음운 변동의 결과 음운의 개수에 변화가 없는 것은 ①이다.

④ [정답 근거 참고]

⇒㉡과 ㉢에서 일어난 음운 변동의 횟수(2회)는 같다.

⑤

⇒㉢에서 첨가된 음운은 ㉠에서 첨가된 음운(‘ㄴ’)과 같다.

※<자음군 단순화=겹받침 발음>에 대해 알아보자!

1. ㅃ, ㅆ, ㄸ, ㄺ, ㄻ, ㄼ, ㄽ은 항상 뒤의 자음이 탈락한다.

값[갑], 없다[업따], 몫[목], 외곶[외골], 앓다[안따], 훑다[할 따], 앓는[안는], 잃는[일른]

2. ㄹ은 ‘발다’만 제외하고 항상 뒤의 자음이 탈락한다.

여덟[여덜], 뿔다[닐따] / 예외 : 뽕다[밥따]

3. ㄷ, ㅌ은 항상 앞의 자음이 탈락한다.

삶[삼], 굶다[굼따], 읊다[읍따]

4. ㄷ, ㅌ은 뒤에 ㄱ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올 때만 제외하고 항상 앞의 자음이 탈락한다.

닭[닥], 읽다[익따] / 예외: 읽고[일꼬], 읽게[일께]

※비음화 규칙: 비음 아닌 자음(ㄱ, ㄷ, ㅂ)이 비음(ㄴ, ㄹ)을 만나 비음(ㅇ, ㄴ, ㄹ)으로 바뀌는 현상.  
(국물→궁물, 꽃말→꼇말→꼇말, 밥물→방물)

※<유음화>에 대해 알아보자.

⇒‘ㄴ’이 ‘ㄹ’을 만나 ‘ㄹ’로 바뀜. (칼날:[칼랄], 신라:[실라])

※‘ㄴ’음 첨가 현상: 합성어 및 파생어에서, 앞 단어나 접두사의 끝이 자음이고 뒤 단어나 접미사의 첫음절이 ‘이, 야, 여, 요, 유’인 경우에는, ‘ㄴ’ 음을 첨가하여 [니, 냐, 녀, 뇨, 뉴]로 발음한다.

숨-이불[숨 : 니불], 한-여름[한녀름], 국민-윤리[국민닐리]

※<음운의 개수> 주의점!

- ㄱ. 기본 자음과 모음은 1음운.
- ㄴ. 된소리, 거센소리, 이중모음도 1음운.
- ㄷ. 초성의 ‘ㅇ’은 음운이 아님.
- ㄹ. 받침의 ‘ㅇ’은 음운에 해당.

15. <문법>

#사전

정답률	선지별 선택비율				
	①	②	③	④	⑤
86%	86%	1%	7%	4%	2%

◆정답 ①

⇒표제어의 뜻풀이가 추가되었지만 다의어의 중심적 의미는 <손톱이나 뽕족한 기구 따위로 바닥이나 거죽을 문지르다>로 수정 되지 않았다.

◆오답 풀이

②

⇒[김:뽕]이라는 표준 발음이 추가로 인정되어 기존의 표준 발음과 함께 제시(김:뽕 / 김:뽕)되었다.

③

⇒개정 후에는 <내용>에 ‘방언’이라는 설명도 없고 <코로 말을 수 있는~표현에 쓰인다>라는 뜻도 추가되어 적절한 이해이다.

④

⇒과학적 정보를 반영하여 뜻풀이 일부가 갱신(9개의 행성→8개의 행성)되었다.

⑤

⇒개정 전에는 없었지만 개정 후에는 스마트 폰이라는 표제어가 등장했기 때문에 적절한 이해이다.

실전에서 긴장감을 관리하는 것도 실력이다.

평소에 적절한 긴장감을 갖고 문제를 푸는 연습을 하자!

※16~19, <아리스토텔레스의 목적론>

① 자연에서 발생하는 모든 일은 목적 지향적인가? 2 자기 몸통보다 더 큰 나뭇가지나 잎사귀를 허둥대며 운반하는 개미들은 분명히 목적을 가진 듯이 보인다. 3 그런데 가을에 지는 낙엽이나 한밤중에 쏟아지는 우박도 목적을 가질까? 4 아리스토텔레스는 모든 자연물이 목적을 추구하는 본성을 타고나며, 외적 원인이 아니라 내재적 본성에 따른 운동을 한다는 목적론을 제시한다. 5 그는 자연물이 단순히 목적을 갖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목적을 실현할 능력도 타고나며, 그 목적은 방해받지 않는 한 반드시 실현될 것이고, 그 본성적 목적의 실현은 운동 주체에 항상 바람직한 결과를 가져온다고 믿는다. 6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러한 자신의 견해를 “자연은 헛된 일을 하지 않는다!”라는 말로 요약한다.

아리스토텔레스의 목적론

② 1근대에 접어들어 모든 사물이 생명력을 갖지 않는 일종의 기계론의 견해가 강조되면서 아리스토텔레스의 목적론은 비과학적이라는 이유로 많은 비판에 직면한다. 2갈릴레이는 목적론적 설명이 과학적 설명으로 사용될 수 없다고 주장하며 베이컨은 목적에 대한 탐구가 과학에 무의하다고 평가하고, 스피노자는 목적론이 자연에 대한 이해를 왜곡한다고 비판한다. 3이들의 비판은 목적론이 인간 이외의 자연물도 이성을 갖는 것으로 의인화한다는 것이다. 4그러나 이런 비판과는 달리 아리스토텔레스는 자연물을 생물과 무생물로, 생물을 식물·동물·인간으로 나누고, 인간만이 이성을 지닌다고 생각했다.

**목적론에 대한 비판**

③ 1일부 현대 학자들은, 근대 사상가들이 당시 과학에 기초한 기계론적 모형이 더 설득력을 갖는다는 일종의 교조적 믿음에 의존했을 뿐, 아리스토텔레스의 목적론을 거부할 충분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비판한다. 2이런 맥락에서 볼로틴은 근대 과학이 자연에 목적이 없음을 보이지도 못했고 그렇게 하려던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고 지적한다. 3또한 우드필드는 목적론적 설명이 과학적 설명은 아니지만, 목적론의 옳고 그름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목적론이 거짓이라 할 수도 없다고 지적한다.

**목적론을 비판한 이들을 비판**

④ 117세기의 과학은 실험을 통해 과학적 설명의 참거짓을 확인할 것을 요구했고, 그 경향은 생명체를 비롯한 세상의 모든 것이 물질로만 구성된다는 물질론으로 이어졌으며, 물질론 가운데 일부는 모든 생물학적 과정이 물리·화학 법칙으로 설명된다는 환원론으로 이어졌다. 2이런 환원론은 살아 있는 생명체가 죽은 물질과 다르지 않음을 함축한다. 3하지만 아리스토텔레스는 자연물의 물질적 구성 요소를 알면 그것의 본성을 모두 설명할 수 있다는 엠피도클레스의 견해를 반박했다. 4이 반박은 자연물이 단순히 물질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며, 또한 그것의 본성이 단순히 물리·화학적으로 환원되지 않는다는 주장을 내포한다.

**물질론과 환원론을 반박하는 아리스토텔레스**

⑤ 1첨단 과학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생명체의 존재 원리와 이유를 정확히 규명하는 과제는 아직 진행 중이다. 2자연물의 구성 요소에 대한 아리스토텔레스의 탐구는 자연물이 존재하고 운동하는 원리와 이유를 밝히려는 것이었고, 그의 목적론은 지금까지 이어지는 그러한 탐구의 출발점이라 할 수 있다.

**목적론의 의의**

**★문단별 요약★**

①

\*아리스토텔레스의 목적론: 모든 자연물이 목적을 추구 (by내적 본성)  
→방해가 없다면, 목적이 실현되며 바람직한 결과를 가져옴 (자연은 헛된 일을 하지 않음)

②

<목적론에 대한 비판-자연물도 '이성' 有>  
\*갈릴레이: 목적론은 과학적 설명으로 사용×  
\*베이컨: 목적에 대한 탐구는 과학에 무의  
\*스피노자: 목적론은 자연에 대한 이해 왜곡 (but 아리스토텔레스: 인간만이 '이성' 有)

③

<목적론 비판에 대한 반박>  
\*볼로틴: 근대 과학은 '자연에 목적 없음'을 제시하지 못함  
\*우드필드: 목적론의 옳고 그름 확인 불가→목적론을 거짓으로 볼 수 없음

④

\*물질론: 세상의 모든 것이 물질로만 구성  
\*환원론: 생물학적 과정이 물리·화학 법칙으로 설명 →(살아있는 생명체=죽은 물질)  
\*엠피도클레스: 물질적 구성 요소를 통해 자연물의 본성을 모두 설명 가능  
→(아리스토텔레스의 반박: 자연물이 물질로만 구성×, 본성의 물리·화학적 환원×)

⑤

\*목적론의 의의: 자연물의 존재 및 운동 원리(이유)를 탐구하는 출발점이 됨

**★지문 보충 해설★**

①

1~2 <문고+답하기>의 구성으로 화법이나 작문 상황에서는 청자나 독자의 흥미를 유발하여 서두를 집중하게 한다. 비문학에서 서두에 이런 구성이 나타나면 본격적인 화제를 다루기에 앞서서 몸을 푸는 단계이므로 썩 스킵트 읽어내자. 하지만 이후에 다시 이런 구성이 나온다면 4번째 문장처럼 '답'에 해당하는 부분에 포인트를 두어야 한다.

3

'그런데', '그러나(하지만)'등 전환 및 반대의 흐름을 나타내는 말이 사용되면 주의가 필요하므로 가장 눈에 띄는 세모 표시가 적절하다. [②-4, ③-3, ④-3,4도 마찬가지로]

4

\*피정의향(목적론)은 물론, 인문 지문에서 인물명(아리스토텔레스)이 나온다면 동그라미를 치고 키워드(목적, 내재적 본성)에는 밑줄을 긋자.

\*'본성'을 통해 이와 대립적인 어휘인 '이성'이 나올 수 있으며 이들의 대립항으로 내용이 전개될 수도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5

\*문장이 길다면 심표에 사선 표시를 해두는 것이 좋다.

\*'항상 바람직한 결과를~'처럼 다른 예외적인 경우를 허용하지 않는 절대적 용어(항상, 모두, 모든, 꼭, 반드시...)가 사용된 문장은 (예외를 허용하는) 부적절 선지로 가공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눈여겨보아야 한다.

6

다른 인물명이 나와도, 같은 인물명이 나와도 일단은 계속 동그라미를 해두자. 이는 인물에 따른 선지의 정/오를 판단하는 문제가 나올 시 신속하게 근거를 탐색할 수 있게 해준다.

②

\*인문 지문에서 인물명에는 무조건 동그라미, 키워드에는 밑줄!

1

<해석 주의>

\*목적론은~비판에 직면: 목적론에 어떤 허점(단점, 문제점, 보완해야할 점)이 있어 비판을 받음.  
(목적론이 무엇을 비판×)

2

대상에 대한 부정적 서술은 밑줄×가 좋다.  
(과학적 설명으로 사용×)

4

‘그러나~아리스토텔레스는~’처럼 문단의 마지막 문장이 이전 내용과는 반대의 흐름이라면, 이를 바탕으로 다음 내용이 전개될 수 있음을 예측하면서 지문을 읽어나가야 한다.

3

1

‘일부 현대 학자들’처럼 인물명이 아니더라도 견해나 입장을 나타내는 단체에도 동그라미를 쳐두자.

2

‘이’, ‘이런’ ‘이렇게’, ‘여기서’, ‘이와 같이’, ‘이들은’처럼 이전 내용의 흐름을 이어가는 지시 대명사(이~, 그~)에는 > 표시가 적절하다. [4]-2,4도 마찬가지]

3

‘거짓~없다’처럼 <부정+부정>이 조합 문장은 해석에 주의해야 한다. <부정+부정>은 결국엔 <긍정>을 나타낸다.

4 1

\*시대를 나타내는 말이 지문에 초반 혹은 중반이 나타나면, 시대별로 글이 전개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동그라미를 쳐두는 것이 좋겠지만 ‘17세기’와 같이 지문 후반에 나타나면 그리 신경 쓸 필요가 없다.

\*‘물질론’, ‘환원론’처럼 개념을 뽑아낼 수 있는 어휘에는 무조건 동그라미를 쳐두자.

16. <인문>

#공통 선지의 법칙 #논지 전개 방식 #비난\_비판 #끝문단에 주목 #비교 #평가 기준의 척도 #평가원 이의제기 #시대 구분

정답률	선지별 선택비율				
	①	②	③	④	⑤
82%	3%	2%	5%	8%	82%

정답 ⑤

\*근대에 접어들어 모든 사물이 생명력을 갖지 않는 일종의 기계라는 견해가 강조되면서, <아리스토텔레스의 목적론>은 비과학적이라는 이유로 많은 비판에 직면한다. 1)갈릴레이는 목적론적 설명이 과학적 설명으로 사용될 수 없다고 주장하며, 베이컨은 목적에 대한 탐구가 과학에 무익하다고 평가하고, 스피노자는 목적론이 자연에 대한 이해를 왜곡한다고 비판한다.~그러나 이런 비판과는 달리 2)아리스토텔레스는 자연물을 생물과 무생물로, 생물을 식물·동물·인간으로 나누고, 인간만이 이성을 지닌다고 생각했다. [2문단]

\*하지만 3)아리스토텔레스는 자연물의 물질적 구성 요소를 알면 그것의 본성을 모두 설명할 수 있다는 엠페도클레스의 견해를 반박했다. 4)이 반박은 자연물이 단순히 물질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며, 또한 그것의 본성이 단순히 물리·화학적으로 환원되지도 않는다는 주장을 내포한다. [4문단]

\*5)자연물의 구성 요소에 대한 아리스토텔레스의 탐구는 자연물이 존재하고 운동하는 원리와 이유를 밝히려는 것이었고, 그의 목적론은 지금까지 이어지는 그러한 탐구의 출발점이라 할 수 있다. [끝문단]

⇒특정 이론(아리스토텔레스의 목적론)에 대한 비판들을1) 검토하고2~3) 그 이론에 대한 해석을 제시하여4) 의의를 밝히고 있다.4)

▶‘~에 대한 의의’는 글의 마무리 부분에 나오기 마련이므로 끝 문단을 먼저 살펴보는 것이 좋다.

※<비난 vs 비판>에 대해 알아보자!

- ㄱ.비난: 남의 잘못을 말함. (부정적)
- ㄴ.비판: 남의 잘못을 말함.+문제의 원인 및 대안을 제시함 (긍정적)

★내용 전개 문제는 끝 문단에 주목하라!

☞지문의 끝 문단은 처음-중간의 내용을 정리 및 요약한다. 이를 통해 대부분 글의 전개 방식이 드러나기도 한다. 그래서 시간이 부족해 지문 전체를 검토할 수 없을 때, 혹은 지문을 모두 검토해도 정답의 근거가 잘 안 보일 때 끝 문단에서 특히나 첫 문장 혹은 끝 문장에 주목하라! 이 부분과 대응성이 높은 선지가 내용 전개 문제의 답이 될 가능성은 굉장히 높다.

[끝문단 2문장]:자연물의 구성 요소에 대한 아리스토텔레스의 탐구는 자연물이 존재하고 운동하는 원리와 이유를 밝히려는 것이었고, 그의 목적론은 지금까지 이어지는 그러한 탐구의 출발점이라 할 수 있다.→(목적론의 의의)

⑤ 특정 이론에 대한 비판들을 검토하고 그 이론에 대한 해석을 제시하여 의의를 밝히고 있다.

(2016 수능) 전개방식 문제

\*지식 경영의 성패는 지식의 성격에 대한 정확한 이해에 기초하여 구성원들이 지식 공유와 확산 과정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끝문단 끝문장]

③ 지식에 대한 논의에 기초하여 지식 경영론을 소개하고 지식 경영의 성패를 좌우하는 요건을 검토하고 있다. (정답☆)



◆오답 풀이

①

\*17세기의 과학은 실험을 통해 과학적 설명의 참거짓을 확인할 것을 요구했고, 그런 경향은 생명체를 비롯한 1)세상의 모든 것이 물질로만 구성된다는 <물질론>으로 이어졌으며, 물질론 가운데 일부는 모든 생물학적 과정이 물리·화학 법칙으로 설명된다는 <환원론>으로 이어졌다. 이런 환원론은 살아 있는 생명체가 죽은 물질과 다르지 않음을 함축한다. 하지만 <아리스토텔레스>는 자연물의 물질적 구성 요소를 알면 그것의 본성을 모두 설명할 수 있다는 엠페도클레스의 견해를 반박했다. 이 반박은 2)자연물이 단순히 물질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며, 또한 그것의 본성이 단순히 물리·화학적으로 환원되지도 않는다는 주장을 내포한다. [4문단]

※'물질론'(환원론): 오직 물질로만 구성○  
 ↔'목적론'(아리스토텔레스): 오직 물질로만 구성×

⇒두 이론의 대립적인 내용은 있으나1~2) 각각의 장단점이 비교된 것은 아니다.

☞<환원론>은 <물질론>으로부터 나온 것이기 때문에 동일하게 간주하면 되고 지문에 제시된 <아리스토텔레스>의 이론은 <목적론> 하나이기 때문에 별도의 언급이 없어도 <아리스토텔레스>의 입장, 견해, 생각, 주장은 모두 <목적론>과 관련된 것으로 판단하면 된다.

▶<비교>는 <대조>와는 달리, 대상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모두 나타내는 것에 유의하자.

\*비교: 둘 이상의 사물을 견주어 서로 간의 유사점, 차이점, 일반 법칙 따위를 고찰하는 일.

☆평가원 국어 시험의 통계를 살펴보면, '대상의 장단점'이 거론된 선지는 대부분 부적절한 선지에 해당한다.

② [선지 ①의 근거 지문 참고]  
 ⇒특정 이론에 대한 상반된 주장은 있지만1~2) 절충 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아니다. 절충 방안은 두 대상의 주장(특성)의 일부를 덜고 일부를 각각 조합한 것이다.

③ [정답 선지의 근거 지문 참고]  
 ⇒특정 이론(아리스토텔레스의 목적론)에 대한 비판들을1) 검토하는 것2~3)은 있지만 새로운 이론을 도출하는 것은 아니다.

- ※다양한 <평가 기준>의 척도를 알아보자
- ㄱ. 타당성: 사물의 이치에 맞는 옳은 성질
  - ㄴ. 합리성: 이론이나 이치에 합당한 성질 →(상식적)
  - ㄷ. 객관성: 언제 누가 보아도 그러하다고 인정되는 성질
  - ㄹ. 공정성: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올바른 성질
  - ㅁ. 정확성: 바르고 확실한 성질
  - ㅂ. 신뢰성: 굳게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성질

☞정확하고 객관적인 근거를 들어 공정하게 의견을 제시하면 의견의 타당성이 높아져 '합리적이다'라고 할 수 있고 그 의견에 신뢰가 간다.

평가원 의의제기

\*목적론에 대한 비판의 타당성 검증 후 환원론이라는 새로운 결론이 도출된 것으로 볼 수 있지 않나요?

☞<환원론>은 실험을 통해 과학적 설명의 참 혹은 거짓을 확인하는 과학적 경향에 따라 나온 것으로, <목적론>과 대립적 성격을 가진 것일 뿐이지, <목적론>을 통해 도출된 것이 아니다.

④

\*근대에 접어들어 모든 사물이 생명력을 갖지 않는 일종의 기계라는 견해가 강조되면서, 아리스토텔레스의 목적론은 비과학적이라는 이유로 많은 비판에 직면한다.~[2문단]

\*17세기의 과학은 실험을 통해 과학적 설명의 참거짓을 확인할 것을 요구했고, 그런 경향은 생명체를 비롯한 세상의 모든 것이 물질로만 구성된다는 물질론으로 이어졌으며,~[4문단]

⇒특정 이론(목적론)에 대한 비판들은 시대순으로 제시된 것이 아니라, 근대에 한정된다.

※시대 구분  
 중세: 9~16세기, 근대: 17~19세기, 현대: 20세기~

★공통 선지의 법칙★ (자세한 내용 2쪽~ 참고)  
 선지 ③,⑤에 '비판'과 '검토'가 공통된다.

- ③ 특정 이론에 대한 다양한 비판의 타당성을 검토한 후~
- ⑤ 특정 이론에 대한 비판들을 검토하고~☞(☆정답)

그래서 지문과 문제에 상관없이 ③,⑤ 중에서 답이 있을 가능성은 약 70%이다.

17. <인문>

#공통 선지의 법칙 #헛갈림 주의 #견해 #이해 #Q&A #야기

정답률	선지별 선택비율				
	①	②	③	④	⑤
94%	2%	1%	94%	2%	1%

◆정답 ③

\*<아리스토텔레스>는 1)모든 <자연물>이 목적을 추구하는 본성을 타고나며,→(자연물은 본성적임) 외적 원인이 아니라 내재적 본성에 따른 운동을 한다는 목적론을 제시한다.→(자연물이 운동을 함, 곧 운동의 주체는 자연물임) 그는 <자연물>이 단순히 목적을 갖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2) (본성적) 목적을 실현할 능력도 타고나며, 그 목적은 방해받지 않는 한 반드시 실현될 것이고, 3)그 본성적 목적의 실현은 운동 주체(자연물)에 항상 바람직한 결과를 가져온다고 믿는다. [1문단]

⇒본성적 운동의 주체인 자연물은 1) 본성적 목적을 실현할 능력이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본성을 실현할 능력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2~3)

**Q&A**

\*<본성 실현>과 <본성적 목적의 실현>은 다른 거 아닌가요?

⇒철수가 선한 목적으로 아픈 친구의 가방을 들어주었다고 한다면, 철수는 <선한 목적 실현>을 행한 것이지 <선함 실현>을 행한 것은 아니라고 말할 수 있다? <선한 목적 실현>을 통해 <선함 실현>이 되는 것처럼 <본성적 목적의 실현>을 통해 <본성 실현>도 되는 것이다.

**◆오답 풀이**

①

\*그러나 이런 비판과는 달리 <아리스토텔레스>는 자연물을 생물과 무생물로, 생물을 식물·동물·인간으로 나누고, 1)인간만이 이성을 지닌다고 생각했다. [2문단]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만이 이성을 지닌다고 생각했기에 1) 인간이 아닌 개미의 본성적 운동은 이성에 의한 것으로 설명될 수 없다.

②

\*그(아리스토텔레스)는 <자연물>이 단순히 목적을 갖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목적을 실현할 능력도 타고나며, 그 목적은 방해받지 않는 한 반드시 실현될 것이고, 1)그 본성적 목적의 실현은 운동 주체에 항상 바람직한 결과를 가져온다고 믿는다. [1문단]

⇒<자연물>의 목적 실현은 항상 바람직한 결과를 가져온다고 믿기 1) 때문에 자연물에 해가 될 수 없다.

④

\*1)<아리스토텔레스>는 모든 자연물이 목적을 추구하는 <본성>을 타고나며, [1문단]

⇒모든 자연물이 목적을 추구하는 '본성', 1) 즉 '본성'적 목적을 타고 났으니 낙엽의 운동도 '본성'적 목적 개념으로 설명된다.

▶[선지 ②, ④]에서 '항상 바람직한 결과를~', '모든 자연물'처럼 다른 예외적인 경우를 허용하지 않는 절대적 용어(항상, 모두, 모든, 꼭, 반드시...)가 사용된 문장은 (예외를 허용하는) 부적절 선지로 가공될 확률이 높다.

⑤

\*1)<아리스토텔레스>는 모든 자연물이 목적을 추구하는 본성을 타고나며, 외적 원인이 아니라 <내재적 본성>에 따른 운동을 한다는 목적론을 제시한다. [1문단]

⇒자연물의 본성적 운동은 외적 원인이 아닌, <내재적 본성>에 의해 야기된다.

\*야기: 일이나 사건 따위를 끌어 일으킴.

**◆헛갈림 주의!**

(A:원인=내재적 본성, B:결과=자연물의 본성적 운동)

\*A가 B를 야기함 = A는 B의 계기가 됨 = A로 인해 B가 일어남  
=A가 B를 불러일으킴 = A 때문에 B가 일어남

**★공통 선지의 법칙★** (자세한 내용 2쪽~ 참고)

선지 ③, ⑤에 (키워드 비중이 가장 높은) '본성적 운동'이 공통된다.

③ 본성적 운동의 주체는 본성을~ (정답 ☆)

⑤ 자연물의 본성적 운동은 외적 원인에~

그래서 지문과 문제에 상관없이 ③, ⑤ 중에서 답이 있을 가능성은 약 70%이다.

**18. <인문>**

#논의 #비난\_비판 #문제 풀이 TIP

정답률	선지별 선택비율				
	①	②	③	④	⑤
95%	2%	95%	1%	1%	1%

**◆정답 ②**

\*1)<갈릴레이>는 <목적론적 설명>이 <과학적 설명>으로 사용될 수 없다고 주장하며, [2문단]

\*또한 2)<우드필드>는 <목적론적 설명>이 <과학적 설명>은 아니지만, 3)목적론의 옳고 그름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목적론이 거짓이라 할 수도 없다고 지적한다. [3문단]

⇒<갈릴레이>와 <우드필드>는 <목적론적 설명>이 <과학적 설명>이 아니라는 데 동의한다. 1~2)

지문 3)은 목적론이 거짓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을 나타낼 뿐, 이로 인해 <목적론적 설명>이 <과학적 설명>은 아니라는 것을 다시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오답 풀이**

①

\*1)<갈릴레이>는 <목적론적 설명>이 과학적 설명으로 사용될 수 없다고 주장하며, [2문단]

\*일부 현대 학자들은, 근대 사상가들이 당시 과학에 기초한 기계론적 모형이 더 설득력을 갖는다는 일종의 교조적 믿음에 의존했을 뿐, 아리스토텔레스의 2)<목적론>을 거부할 충분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비판한다. →(목적론에 대한 비판을 비판함 = 목적론에 대한 비판을 반박함 = 목적론을 옹호함) 3)이러한 맥락(목적론 옹호)에서 <볼로틴>은 근대 과학이 자연에 목적이 없음을 보이지도 못했고 그렇게 하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고 지

적한다. [3문단]

⇒<갈릴레이>는 <목적론>이 과학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과학에 기초하지 않아서) 과학적 설명으로 사용될 수 없다고 했다. 1) 그리고 <볼로틴>은 <목적론>을 거부할 충분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다는 맥락을 따른 것이지 2~3) <목적론>을 비판한 것은 아니다.

※<비난 vs 비판>에 대해 알아보자!

- ㄱ. 비난: 남의 잘못을 말함. ☞(부정적)
- ㄴ. 비판: 남의 잘못을 말함.+문제의 원인 및 대안을 제시함 ☞(긍정적)

③

\*1)<근대>에 접어들어 모든 사물이 생명력을 갖지 않는 일종의 <기계>라는 견해가 강조되면서, 아리스토텔레스의 목적론은 비 과학적이라는 이유로 많은 비판에 직면한다. 갈릴레이는 목적론적 설명이 과학적 설명으로 사용될 수 없다고 주장하며, 2)<베이컨>은 목적에 대한 탐구가 과학에 무익하다고 평가하고, [2문단]

\*<일부 현대 학자>들은, 3)<근대 사상가>들이 당시 과학에 기초한 <기계론적 모형>이 더 설득력을 갖는다는 일종의 <교조적 믿음>에 의존했을 뿐, 아리스토텔레스의 4)<목적론>을 거부할 충분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비판한다. 이런 맥락에서 볼로틴은 근대 과학이 자연에 목적이 없음을 보이지도 못했고 그렇게 하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고 지적한다. 또한 5)<우드필드>는 목적론적 설명이 과학적 설명은 아니지만, 목적론의 옳고 그름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목적론이 거짓이라 할 수도 없다고 지적한다. [3문단]

※지문의 큰 흐름

[2문단] 근대 학자(베이컨): <목적론> 비판  
 [3문단] 현대 학자(우드필드): <목적론> 거부 못함

⇒<교조적 신념>은 <목적론>을 비판하기 위해, 근대 사상가들의 <기계론적 모형>과 관련된 것이지 1,3) <목적론적 설명>이 <교조적 신념>에 의존(관련)한 것은 아니다. <베이컨>은 <목적론>을 비판한 근대 사상가에 해당하지만 1~2) <우드필드>는 <목적론>을 거부하지 못하는 흐름을 따르고 있다. 4,5)

④

\*1)<스피노자>는 <목적론>이 자연에 대한 이해를 왜곡한다고 비판한다. [2문단]

\*이런 맥락에서 2)<볼로틴>은 근대 과학이 자연에 <목적>이 없음을 보이지도 못했고 그렇게 하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고 지적한다. [3문단]

⇒<스피노자>는 <목적론>이 자연에 대한 이해를 왜곡한다고 1) 했고 <볼로틴>은 근대 과학이 자연에 <목적>이 없음을 보이지

도 못했고 그렇게 하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고 했을 뿐, 2) <목적론>이 자연에 대한 이해를 확장한다고 주장한 것은 아니다.

⑤

\*<스피노자>는 목적론이 자연에 대한 이해를 왜곡한다고 비판한다. 이들의 비판은 1)<목적론>이 인간 이외의 자연물도 이성을 갖는 것으로 의인화한다는 것이다. [2문단]

\*또한 2)<우드필드>는 목적론적 설명이 과학적 설명은 아니지만, 목적론의 옳고 그름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목적론이 거짓이라 할 수도 없다고 지적한다. [3문단]

⇒<목적론>이 사물을 의인화하기 1) 때문에 거짓이라고 비판하는 이는 <스피노자>이다. 하지만 <우드필드>는 목적론적 설명이 과학적 설명은 아니지만, 목적론의 옳고 그름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목적론이 거짓이라 할 수도 없다고만 할 뿐이다. 2)

※의인법 vs 활유법에 대해 알아보자!

- ㄱ. 의인법: 사람이 아닌 것을 사람에 비거 사람이 행동하는 것처럼 표현하는 수사법.
- ㄴ. 활유법: 무생물을 생물인 것처럼, 감정이 없는 것을 감정이 있는 것처럼 표현하는 수사법.

★문제 풀이 TIP!

실제 시험에서는 선지의 내용 중 부적절한 것을 하나라도 발견하면 바로 다음 선지로 넘어가야 경제적인 문제 풀이가 된다.

- ① 갈릴레이(×)와 볼로틴(×)은~
- ② 갈릴레이(○)와 우드필드(○)는~
- ④ 스피노자(×)와 볼로틴(×)은~

☞[2문단]에서 <갈릴레이>와 <스피노자>의 부적절함이 먼저 발견되면, <볼로틴>은 검토 없이 다음 선지로 넘어가야 한다.

19. <인문>

#보기 제시 #3점 #지문\_선지 간의 변형 #문제 풀이 TIP

정답률	선지별 선택비율				
	①	②	③	④	⑤
84%	2%	6%	84%	3%	5%

◆정답 ③

<보기>

창발론(마이어)은 복잡성의 수준이 한 단계씩 오를 때마다 1) 구성 요소에 관한 지식만으로는 예측할 수 없는 특성들이 나타난다는 이론이다.

\*하지만 2)<아리스토텔레스>는 자연물의 물질적 구성 요소를 알면 그것의 본성을 모두 설명할 수 있다는 엠페도클레스의 견해를 반박했다. [4문단]

- 1)마이어: 구성 요소로 생명체의 특성을 예측(설명) 불가
- 2)아리스토텔레스: 구성 요소로 생명체의 본성(특성) 설명 불가

⇒<마이어>는 <아리스토텔레스>처럼, 생명체의 특성들은 구성 요소들에 관한 지식만으로 예측할 수 없다고 보겠군.1~2)

♣지문-선지 간의 변형 양상

- \*<예측할 수 없는 특성이 나타난다>=<특성을 예측할 수 없음>
- \*<자연물의 물질적 구성 요소를 알면>=

<구성 요소들에 관한 지식만으로>

- \*<본성을 모두 설명할 수 있다는 엠페도클레스의 견해를 반박=본성을 모두 설명할 수 없음>=<특성들은 예측할 수 없음>

★비문학 점수를 올리기 위한 공부법이 그리 많지도 명쾌하지도 않다. 위와 같은 지문-선지 간의 변형 양상을 익혀두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니 나올 때마다 잘 익혀두자.

◆오답 풀이

①

<보기>

창발론은 복잡성의 수준이 한 단계씩 오를 때마다 1)구성 요소에 관한 지식만으로는 예측할 수 없는 특성들이 나타난다는 이론이다.

\*하지만 2)<아리스토텔레스>는 자연물의 물질적 구성 요소를 알면 그것의 본성을 모두 설명할 수 있다는 <엠페도클레스>의 견해를 반박했다. [4문단]

⇒<아리스토텔레스>는 <엠페도클레스>의 물질론적 견해를 반박했고2) 구성 요소에 관한 지식만으로는 예측할 수 없는 특성들이 나타난다1)는 <마이어>의 이론은 <엠페도클레스>의 물질론적 견해와는 대립을 이룬다.

②

<보기>

1)<마이어>는 여전히 생명체가 물질만으로 구성된다고 보지만, 2)물리·화학적 법칙으로 모두 설명되지는 않는다고 본다.

\*하지만 <아리스토텔레스>는 자연물의 물질적 구성 요소를 알면 그것의 본성을 모두 설명할 수 있다는 엠페도클레스의 견해를 반박했다. 이 반박은 3)자연물이 단순히 물질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며, [4문단]

⇒<아리스토텔레스>는 자연물이 물질만으로 구성된다는 것에 부정적이고3) <마이어>만이 자연물이 물질만으로 구성된다고 본다.1)

2)로 인해 1)이 부정되는 것이 아님을 주의하자. ‘나는 아침에 유통기한이 지난 우유를 먹었지만 배탈이 난 것은 아니다’에서 배탈이 나지 않아도 우유를 먹은 사실이 부정되지 않는 것과 같다.

④

<보기>

그<마이어>는 생명체가 분자, 세포, 조직에서 개체, 개체군에 이르기까지 단계적으로 점점 더 복잡한 체계를 구성하며, 세포 이상의 단계에서 1)각 체계의 고유 활동은 미리 정해진 <목적>을 수행한다고 생각한다.

\*2)<아리스토텔레스>는 모든 자연물이 <목적>을 추구하는 본성을 타고나며, [1문단]

⇒<마이어>는 <아리스토텔레스>와 마찬가지로, 모든 자연물이 목적 지향적으로 운동한다고 보겠군.1~2)

⑤

<보기>

<마이어>는 여전히 생명체가 물질만으로 구성된다고 보지만, 1)물리·화학적 법칙으로 모두 설명되지는 않는다고 본다.→(환원론 부정)

\*물질론 가운데 일부는 모든 생물학적 과정이 물리·화학 법칙으로 설명된다는 <환원론>으로 이어졌다.~하지만 <아리스토텔레스>는 자연물의 물질적 구성 요소를 알면 그것의 본성을 모두 설명할 수 있다는 엠페도클레스의 견해를 반박했다. 이 반박은 자연물이 단순히 물질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며, 또한 그것의 본성이 단순히 2)물리·화학적 환원되지도 않는다는 주장을 내포한다. [4문단]

⇒<마이어>와 <아리스토텔레스> 모두 모든 자연물의 본성에 대한 물리·화학적 환원을 부정한다.1~2)

★문제 풀이 TIP!

실제 시험에서는 선지의 내용 중 부적절한 것을 하나라도 발견하면 바로 다음 선지로 넘어가야 경제적인 문제 풀이가 된다.

- ① 마이어(×)는 아리스토텔레스(×)처럼,
- ② 마이어(○)는 아리스토텔레스(×)처럼,
- ③ 마이어(○)는 아리스토텔레스(○)처럼,
- ④ 마이어(○)는 아리스토텔레스(×)와 달리,
- ⑤ 마이어(×)는 아리스토텔레스(×)와 달리,

쉬운 문제의 정답을 평범하게 찾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남들보다 빠르고 정확해야만 문제 풀이 경쟁력이 생긴다.

# ※20~22

## (가) 이육사, <강 건너간 노래>

- \*갈래: 자유시, 서정시
- \*성격: 상징적, 의지적, 희망적, 낭만적
- \*주제: 부정적 현실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으려는 의지

### \*구성

- 1연: 꿈을 잃은 자의 상실감
- 2연: 깊어지는 상실감
- 3연: 잃어버린 조국에 대한 절망적인 상황 표현
- 4연: 상실과 정말의 시간, 가혹한 현실의 시간
- 5연: 어려움을 극복하려는 의지

### \*특징

- 지난날을 회상하며 시상을 불러일으킴
- ‘갓소’를 반복하여 화자의 정서를 강조
- 활유법을 통한 화자의 의지를 드러냄.
- 수미 상관의 구성을 통해 의지를 강조함

### \*감상의 길잡이

이 시는 화자 자신이 걸어온 길, 추구하던 가치 등을 ‘내가 부르던 노래’라는 시어를 통해 상징적으로 그리고 있다. 강조차 얼어붙는 겨울밤, 자신이 부르는 노래는 그 현실을 넘어 하늘 끝 사막까지 날아갔음을, 어린 날개가 지쳐 떨어져 사막에서 타 죽었을 수도 있음을 말하고 있다. 화자는 극한적인 현실에서 그에 굴하지 않고 약한 존재이지만 강한 의지로 자신이 추구하는 가치를 실현하고자 했던 자신의 태도를 돌아보고 있는 것이다.

선달에도 보름께 달 밝은 밤(시간적 배경)

앞내강 짹짹 얼어 조이던 밤에(특색한 현실)

내(시적 화자)가 부른 노래(희망)는 강 건너 갓소(절망적 현실 인식)

### 꿈을 잃은 자의 상실감

강 건너 하늘 끝에 사막(부정적 현실)도 닿은 곳  
내 노래는 체비(희망)같이 날아서 갓소

### 깊어지는 상실감

못 잇을 계집애(새로운 시적 대상) 짐조차 없다가에  
가기는 갓지만 어린 날개(노래) 지치면  
그만 어느 모래불에 떨어져 타서 죽겠조(절망적 상황의 절정)

### 잃어버린 조국에 대한 절망적인 상황 표현

사막은 끝없이 푸른 하늘이 덮여  
눈물 먹은 별들이 조상 오는 밤(절망적 시대를 시각적 형상화)  
상실과 정말의 시간, 가혹한 현실의 시간

밝은 옛일을 무지개보다 곱게 짜내나니(옛날의 아름다움 회상)  
한 가락 여기 두고 또 한 가락 어디맨가  
내가 부른 노래는 그 밤에 강 건너 갓소.

### 어려움을 극복하려는 의지

## (나) 김광규, <묘비명>

- \*갈래: 자유시, 서정시
- \*성격: 비판적, 풍자적
- \*주제: 물질적 가치에 경도된 세대 비판과 진정한 삶의 가치에 대한 성찰

### \*특징

- 지시어의 사용으로 화자가 현재 묘비를 관찰하고 서술하는 듯한 효과
- 묘비를 앞에 두고 관찰하는 방식으로 시상 전개
- 반어법을 사용하여 풍자의 효과를 높임
- 대립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주제를 강조

### \*감상의 길잡이

이 시는 물질적 가치 때문에 정신적 가치가 퇴색해 버린 현실을 비판적 태도로 형상화하고 있다. 이 시에서 정신적 가치를 도외시키고 물질적 가치만을 숭상한 사람과 그 사람을 찬양하는 ‘어느 문인’은 모두 비판의 대상이다. 그러므로 ‘행복하게’ 살았다는 표현과 ‘훌륭한 비석’이라는 표현은 모두 반어적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곧 우리의 삶과 역사와 시인 자신에 대한 반성이기도 하다.

한 줄의 시(정신적 가치→긍정)는커녕

단 한 권의 소설도 읽은 바 없이

그는 한평생을 행복하게 살며

많은 돈(세속적 가치→부정)을 벌었고

높은 자리에 올라

이처럼 훌륭한(반어법) 비석을 남겼다

### 세속적 가치를 추구한 그가 남긴 훌륭한 비석

그리고 어느 유명한 문인(지식인)이

그를 기리는 묘비명을 여기에 썼다(학문으로 아첨함)

### 물질적 가치에 영합한 문인의 위선

비록 이 세상이 잿더미가 된다 해도

불의 뜨거움 곳곳이 견디며

이 묘비는 살아 남아(세속적 가치는 남아)

귀중한(반어법) 사료가 될 것이니

역사는 도대체 무엇을 기록하며(잘못된 역사에 대한 비판)

시인은 어디에 무덤을 남길 것이냐(세속적 가치의 시인은 무덤

이 필요 없다)

### 묘비의 가치와 시인의 역할에 대한 비판적 전망

### ★인강 연동 (23:00~)



- \*QR리더(스캐너)어플을 사용하거나 네이버 어플 검색창 맨 오른쪽에 카메라 그림을 클릭하여 QR코드를 클릭!
- \*위의 타임라인을 참고하세요.

20. <현대시>

#공통 선지의 법칙 #공통점 #평가원 이의제기

정답률	선지별 선택비율				
	①	②	③	④	⑤
53%	4%	3%	53%	4%	36%

◆정답 ③

(가)

1)내가 부른 <노래>는 강 건너 갔소

~

2)내 노래는 제비같이 날아서 갔소

~

한 가락 여기 두고 또 한 가락 어디맨가

3)내가 부른 노래는 그 밤에 강 건너 갔소.

(나)

그를 기리는 <묘비명>을 여기에 썼다

비록 이 세상이 잿더미가 된다 해도

4)불의 뜨거움 곳곳이 견디며

이 묘비는 살아 남아

▶시적 대상에 생명력 부여? <활유법 or 의인법> 사용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관건!

⇒(가)는 화자가 부른 <노래>에 생명력을 부여하여, 목적지를 향해 가는 의지를 지는 존재로 나타내고,1~3) (나)는 <묘비명>에 생명력을 부여하여 불의 뜨거움을 곳곳이 견디는 의지를 지는 존재로 나타내고 있다.4)

※<의인법 vs 활유법>에 대해 알아보자!

ㄱ.활유법: 무생물을 생물인 것처럼, 감정이 없는 것을 감정이 있는 것처럼 표현하는 수사법.

ㄴ.의인법: 사람이 아닌 것을 사람에 비겨 사람이 행동하는 것처럼 표현하는 수사법.

☞인간만이 가질 수 있는 특성이면 의인법, 인간을 포함하여 다른 생물체까지 나타나는 특성이면 활유법이다. (위 시의 '노래'와 '묘비명'은 활유법에 해당)

평가원 이의제기

\* (가)시에서 '노래'는 강 건너의 집조차 없는 계집애에게 희망을 전달해 주러 간 것이라고 볼 수 있지만 단지 부정적인 공간에 희망을 전달하러 가는 그 자체로 인해 '노래'가 '의지를 지닌 존재다'라고 여기는 것은 다소 억지스러운 부분입니다. 시 전체의 분위기와 '강 건너'라는 장소의 의미를 고려했을 때 '노래'는 단지 부정적인 현실에 희망을 전달해주는 생명력을 지닌 매개체에 불과합니다. 즉, '시적 화자'가 부정적인 현실에 희망을 전달하리라는 목적을 달성하고자 '노래'라는 시적 대상을 매개체로 이용한 것이지요. 시적 화자가 이러한 목적을 지니고 있다고 해서 매개체인 '노래'라는 시적 대상이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보는 것은 옳지 않다고 주장합니다.

☞<의지>의 사전적 의미는 <어떠한 일을 이루고자 하는 마음>이다. <노래>가 강 건너 목적지를 향해 이동하는 하는 자체가 어떤 '목적'을 지닌, 즉 <어떠한 일을 이루고자 하는 마음>인 <의지>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노래>가 단순히 무생물적인 매개체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활유법이 사용되어 생물이면 지닐 수 있는 <의지>를 갖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노래가 화자의 분신이자 마음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화자('나')와 대상('노래')을 동일시한다면 노래가 의지를 지닌 존재라는 판단은 더욱 확실해진다.

\* (나)의 경우 묘비에 대해 의지를 지녔다고 판단하기 어렵게 보입니다. 물론 묘비(비석)이 불의 뜨거움을 곳곳이 견디는 점에서 생명력이 있지만 의지를 지녔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의지>의 사전적 의미는 <어떠한 일을 이루고자 하는 마음>이다. 비석이 불의 뜨거움을 곳곳이 견디는 것도 어떤 일을 이루고자 하는 것(행위, 마음)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불이 의지를 지녔다고 판단할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가)와 (나)는 특정 청자를 염두에 두었다고 볼 수는 있지만, 그 청자가 (겉으로 드러나게) 명시적으로 설정된 것은 아니다. (청자가 명시적으로 드러나려면, 보통 '엄마야, 누나야, 아버지!'처럼 화자와 청자의 관계를 알 수 있는 말이 나온다)

그리고 (나)는 반어법(훌륭한 비석, 귀중한 사료)을 사용하여 물질적 가치에 경도된 세태를 <풍자적>으로 비판하고 있지만, (가)에는 '앞내강 짹짹 얼어', '사막', '모래불'처럼 현실에 대한 부정적 시각만 있을 뿐, <풍자>는 없다.

※<풍자 vs 해학 vs 언어유희>에 대해 알아보자!

ㄱ. 풍자: 남 혹은 현실의 부정적인 면을 비웃으면서 비판

→(웃음+비판 목적)

ㄴ. 해학: 오직 웃음을 유발할 목적 →(웃음 목적)

ㄷ. 언어유희: 말이나 동음이의어를 해학적으로 사용

→(웃음 목적+비판 동반가능)

▶'웃음'은 우리 문학의 주요한 테마 요소로 희화화, 풍자, 해학은 모두 웃음을 동반하는 공통점이 있고 <반어법>을 사용한 비판이 웃음을 유발한다는 점에서 <풍자>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②

⇒(가)는 '~갔소'처럼 유사한 시구를 반복하여 (부정적 현실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으려는) 화자의 의지를 강조하지만, (나)는 유사한 시구의 반복이 없다.

④

⇒(가)는 '달 밝은 밤', '앞내강 짹짹 얼어', '하늘 끝에 닿은 사막', '끝없이 푸른 하늘' '눈물 먹은 별'처럼 다양한 이미지를 통해 자연의 모습을 감각적으로 드러내지만 (나)는 '뜨거움'이라는 단일한 이미지를 통해 (→다양한 이미지×) 자연(불)을 나타낼 뿐이다.

<사물 vs 자연물>

\***사물**: 물질세계에 있는 모든 구체적이며 개별적인 존재를 통틀어 이르는 말.

\***자연물**: 자연계에 있는, 저절로 생긴 물체.

↳ ‘자연물’은 ‘사물’의 일부에 해당하고 (나)의 ‘묘비’, ‘젓더미’는 저절로 생긴 것이 아니라, 인위적으로 혹은 인위적인 결과에 의한 것이므로 자연물이 아닌, 사물에 해당한다.

⑤

⇒(나)는 반어법(훌륭한 비석, 귀중한 사료) 사용했기 때문에, 반어적 어조를 활용하여 (물질적 가치에 경도된) 현실에 대한 비판적 태도를 드러낸다고 볼 수 있지만, (가)는 반어적 어조를 활용했다고 볼만한 곳이 없다.

※<반어 vs 역설>에 대해 알아보자!

ㄱ. 반어: 겉표현과 속마음이 반대.

(지각한 학생에게 “참 빨리도 왔다”라고 비꼼)

ㄴ. 역설: 겉표현은 모순되지만 깊은 속 뜻 나타냄.

(님은 갔지만 님을 보내지 않았다)

※<시적 어조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자.

1) 청자의 유무: 독백조, 대화조

2) 화자의 유형: 남성적, 여성적 어조

3) 청자에 대한 화자의 태도: 명령, 찬양, 의문, 청유 등

4) 화자의 감정 상태: 걱정적, 영탄적, 관조적, 애상적, 긍정적 등

5) 대상에 대한 화자의 태도: 냉소적, 친화적, 비판적, 우호적, 풍자적, 해학적, 반어적 등

평가원 이의제기

\* (가)에서는 <밤은 옛일을 무지개보다 곱게 짜내나니 한 가락 여기 두고 또 한 가락 어디엔가 내가 부른 노래는 그 밤에 강 건너 갔소> 부분에서 <밤>은 긍정적이고 희망적이지만 <내가 부른 노래가 강 건너 갔다>는 점에서 결국 바뀐 것이 없다는 것에 반어적 어조라고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가)작품에도 반어라고 볼 수 있는 구절이 2곳 있습니다. 먼저 3연의 내용을 반어로 볼 수 있습니다. <집조차 없는 처지에 있는 이의 삶에 다가가야 한다는 화자의 목표>와 <그것을 실패하고 떨어져 타서 죽은 결과> 사이의 불일치, 즉 상황적 반어가 있습니다. 또한 현실에 대한 비판적 태도를 보이고 있는 작품인데 5연에서 <밤은 옛일을 무지개보다 곱게 짜내나니>라는 표현에서 ‘곱게’도 반어로 볼 수 있습니다.

↳ 지각한 친구에게 ‘참 빨리도 왔다’라고 비꼬는 것처럼 <반어>는 속마음(늦게 옴을 질책)은 표현하지 않고, 속마음과는 반대(일찍 옴)로 표현하는 것이다. 긍정적 목표와 부정적 결과는 대립적인 두 가지의 상황을 모두 표현했기 때문에 <반어>가 아니라 단지 대립적 상황이 한 작품 안에 있을 뿐이다. 대립적인 두 상황을 모순적인 상황으로 본다면, ‘반어’가 아닌 역설에 더 가깝다고 볼 수 있다. ‘반어’와는 달리 ‘역설’은 모순적인 상황이 겹으로 전부 드러나기 때문이다. 이처럼 긍정과 부정의 상황이

혼재되어 있다고 <반어>가 되는 것은 아니다. 또한 <곱게>는 긍정적인 <옛일>에 어울리는 긍정적인 수식어이다.

★최심의 조언★

위의 이의제기한 수험생처럼, 문학 용어의 의미를 대충대충 공부하면, 그 적용도 당연히 틀리게 되어 이렇게 오답 선지를 억지로 정답으로 껴맞추는 불편한 능력이 생긴다. 총만국을 보는 여러분은 용어 하나하나도 대충대충이 아닌, 확실하고 정확히 공부해 두자. 그러기 위해서는 N회독은 필수!

★공통 선지의 법칙★

(자세한 내용 2쪽~ 참고)

\* 위 문제의 경우, 선지 ②, ③에 의지가 공통된다.

② 유사한 시구를 반복함으로써 화자의 의지~

③ 시적 대상에 생명력을 부여하여 의지~ (정답☆)

그래서 지문과 문제에 상관없이 ②, ③중에서 답이 있을 가능성은 약 70%이다.

21. <현대시>

#대립 선지의 법칙 #이해 #평가원 이의제기 #Q&A

정답률	선지별 선택비율				
	①	②	③	④	⑤
91%	1%	4%	2%	91%	2%

◆정답 ④

(가)

㉠) 눈물 먹은 별들이 조상\* 오는 밤

\*조상: 남의 죽음에 대하여 2) 슬퍼하는 뜻을 드러내어 위문함.

[A]

여기서 반영은 3) ‘있는 그대로의 현실’로서의 반영과 ‘있어야 하는 현실’로서의 반영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전자는 4) 역사와 현실의 모습을 사실 그대로 보여주는 일상적 진실을 반영하는 것을 말하고,

⇒㉠ <눈물 먹은 별들이 조상 오는 밤>은 눈물과 슬픔의 밤으로, 1~2) 화자는 (암울하고 절망적인) 있는 그대로의 현실, 즉 일상적 진실을 3~4) 부정적으로 인식할 뿐이지, 자연물에 대한 화자의 태도 변화를 통해, 일상적 현실이 희망적으로 바뀌었음을 보여 주는 것은 아니다.

◆오답 풀이

①

⇒㉡ <앞내강 쟁쟁 얼어 조이던 밤에>는 극한의 추위(쟁쟁 얼어)를 드러내는 시간(밤)적 배경을 제시하여, 화자나 인물이 처한 상황(암담하고 혹독함)을 드러내고 있다.

②

⇒㉢ <강 건너 하늘 끝에 사막도 닿은 곳>은 (화자가 건너가고자 하는 강 저편의) 현실의 모습을 사막으로 표상하여, 화자나 인물이 (사막하고 고된 상황에) 직면하게 될 공간적 배경을 드

러내고 있다.

\*표상: 대표로 삼을 만큼 상징적인 것.

③

(가)

내 1)노래는 제비같이 날아서 갔소

못 잇을 계집애 집조차 없다가에

가기는 갔지만 2)어린 날개 지치면

㉠그만 어느 모래불에 떨어져 타서 죽겠쥬.

⇒㉠<그만 어느 모래불에 떨어져 타서 죽겠쥬>는 죽음의 상황을 가정하여, 2) 화자에게 닮친 일상적 현실이 절망적인 상황임을 (화자의 의지가 반영된) 노래에 1) 투영하여 드러내고 있다.

**평가원 이의제기**

\*화자에 닮친 일상적 현실이라고 되어있다. 하지만 '㉠'부분인 타서 죽겠쥬라는 부분은 일상적 현실이라고 보기에는 힘들다. 왜냐하면 타서 죽는다는 것이 일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 선지 ③은 ㉠을 <화자에게 닮친 일상적 현실>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화자에게 닮친 일상적 현실>이 ㉠을 통해 드러나는 지의 여부를 묻고 있는 것이다. 선지가 길다면 주어-대상-서술어 관계를 잘 파악해야한다.

⑤

⇒㉠<밤은 옛일을 무지개보다 곱게 짜내나니>는 부정적 현실인 밤과 희망을 나타내는 무지개의 이미지를 대응시켜, 화자가 추구하는 당위적 진실에 대한 소망을 담아내고 있다.

\*당위적: 마땅히 그렇게 하거나 되어야 하는.

**Q&A**

\*밤은 부정적인 상황이고 희망은 긍정적인 가치인데 어떻게 대응되나요?

☞ <대응>은 '어떤 두 대상이 주어진 어떤 관계에 의하여 서로 짝이 되는 일.'이다. 두 대상이 꼭 같은 성격이어만 대응되는 것이 아니다. 밤과 무지개는 문장 안에서 대립적 이미지로 짝을 이루는 대응이 되는 것이다.

★대립 선지의 법칙★ (자세한 내용 2쪽~ 참고)

\*위 문제는 상황의 긍정-부정을 기준으로 삼으면, (긍정:④ ↔ 부정:①,②,③)로 1대 3 대립을 이룬다.

- ① ㉠: 극한의 추위를 드러내는~→(부정)
- ② ㉡: 현실의 모습을 사막으로 표상하여,~→(부정)
- ③ ㉢: 죽음의 상황을 가정하여,~→(부정)
- ④ ㉣: 일상적 현실이 희망적으로~→(긍정) (정답☆)

그래서 선지 ④가 정답이 될 가능성은 90%이상이다.

**22. <현대시>**

#3점 #이해

정답률	선지별 선택비율				
	①	②	③	④	⑤
75%	3%	4%	12%	6%	75%

◆정답 ④

(나)

1)한 줄의 시는커녕

단 한 권의 소설도 읽은 바 없이

그는 한평생을 2)행복하게 살며

3)많은 돈을 벌었고

높은 자리에 올라

이처럼 훌륭한 비석을 남겼다

그리고 어느 유명한 문인이

4)그를 기리는 <묘비명>을 여기에 썼다

⇒(나)는 물질적 가치로 인해 정신적 가치가 밀려난 현실을 비판하는 것으로, 한 줄의 시는커녕 단 한 권의 소설도 읽은 바 없이, 1) 행복하게 사는 것은 2) 결코 행복할 수 없음을 <반어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이에 따라 <묘비명>은 물질적 가치를 추구한 3) 그를 기리는 것이기 4) 때문에 시인의 관점을 드러내는 소재가 아니라, 시인의 관점에서 비판의 대상이 되는 소재이다.

◆오답 풀이

①

(가)

1)내(화자)가 부른 <노래>는 강 2)건너 갔소

(다)

한편 3)'시에 대한 시 쓰기'라는 형식을 통해 시 그 자체를 반영하는 특수한 경우도 있다. 이때 4)반영의 대상은 외부 현실이 아니라 시 쓰기 상황이나 5)시를 쓰는 시인이 된다.

※노래의 이동성→삶의 방향

⇒(가) 작품을 '시에 대한 시 쓰기'로 보면, 3) 시의 화자는 곧 시인이 된다. 5) 그리고 <노래>는 화자가 부른 것이므로, 1) 이동하는 성격을 지닌 2) <노래>는 시인 자신인 화자가 추구하는 바람직한 삶의 방향을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 4~5)

②

(가)

내 <노래>는 제비같이 날아서 갔소

1)못 잇을 계집애 집조차 없다가에

⇒<노래>가 강을 건너간 이유를 못 잇을 계집애 집조차 없다가에 1)로 말하고 있으므로, 이 <노래>는 시가 '집조차 없'는 처지에 있는 이의 삶에 다가서야 한다는, (가)를 쓴 시인의 관점을 드러낸다고 할 수 있다.



③

(나)

1)한 줄의 시는커녕

단 한 권의 소설도 읽은 바 없이

그는 한평생을 행복하게 살며

2)많은 돈을 벌었고

높은 자리에 올라

이처럼 훌륭한 비석을 남겼다

그리고 어느 유명한 문인이

그를 기리는 <묘비명>을 여기에 썼다

⇒<묘비명>의 내용은 시와 소설과 같은 정신적 가치를 외면하고 1) 부와 명예를 최고의 가치로 추구한 2) 사람의 삶이 담긴 것이다. 그래서 (나)를 쓴 시인 자신이 추구하는 삶(정신적 가치 중시)과는 거리가 있는 사람의 인생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④

(나)

1)이 <묘비>는 살아 남아

2)귀중한(→반어법) 사료가 될 것이니

3)역사는 도대체 무엇을 기록하며

4)시인은 어디에 무덤을 남길 것이냐

⇒화자는 <묘비>에 기록된 부정적인 인물에 대한 기록이 남아 서 1) 후세인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2) 생각을 하고 있다. <묘비명>에 이러한 생각을 통해 (나)를 쓴 시인이 시 쓰기를 통해 '무엇을 기록'해야 하는지에 대해 자기 성찰을 하게 되는 3~4) 계기라 할 수 있다.

※23~26, 김만중의 <사씨남정기>

- \*갈래: 국문 소설, 가정 소설, 목적 소설
- \*성격: 가정적, 풍간적
- \*주제: 처첩 갈등을 통해 본 권선징악적 삶의 모습

\*특징

- ① 숙종이 인현왕후를 폐위한 사건을 풍자하기 위한 의도로 쓰임.
- ② 선인과 악인의 전지적 작가 시점 구성을 통해 사건을 전개함.
- ③ 처첩 간의 갈등을 소재로 한 최초의 가정 소설임.
- ④ 일대기적 구성을 취함.
- ⑤ 풍간을 목적으로 함.
- ⑥ 천우신조(天佑神助)에 의해 우연적으로 사건이 전개됨.

\*구성

발단: 중국 명나라 세종 때 금릉 순천부에 사는 유현이라는 명신(名臣)의 아들로 태어난 연수는 15세에 장원 급제하여 한림학사를 제수 받는다.

전개: 유연수(유 한림)는 덕성과 재학(才學)을 겸비한 사씨와 결혼하나, 늦도록 후사(後嗣)가 없어 교씨를 첩으로 맞아들인다. 교씨는 천성이 간악한 인물로 아들을 낳자 정실이 되기 위해 사씨를 참소한다. 결국 유 한림은 사씨

를 폐출시키고 교씨를 정실로 삼는다.

위기: 교씨는 문객 동청과 간통하면서 유 한림을 참소하여 유배시킨다.

절정: 마침내 조정에서는 유 한림에 대한 혐의를 풀어 소환하고, 충신을 참소한 동청을 처형한다.

결말: 유 한림은 사방으로 사씨의 행방을 찾다가 소식을 들은 사씨와 해후한다. 유 한림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고향으로 돌아와 간악한 교씨를 처형하고 사씨를 다시 정실로 맞아들인다.

\*감상의 길잡이

이 작품은 가부장제 사회에서 여성의 문제를 다룬 작품이다. 축첩 제도의 문제점과 권선징악이라는 교훈을 드러내고자 하였다. 배경이 명나라로 설정된 것은 작가가 표현하고자 하는 날카로운 저항 의식을 가리기 위함일 것이다. 이 소설을 통해 작가는 숙종이 인현 왕후를 폐출하고 장희빈을 중전으로 책봉한 일에 반대하는 입장을 나타내고자 했으며, 결국 정의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사필귀정(事必歸正)의 주제를 표현하였다.

소설에서 사씨는 현모양처로서 성품이 곧고 착한 여인의 전형이며, 교씨는 위선적이고 교활한 악인의 전형이어서 선악의 대립이 분명하게 전개된다.

왕비가 웃으며 말했다.

“부인(사씨)이 이곳에 오긴 오겠지만 아직 때가 멀었소. 남해 도인이 그대와 인연이 있으니 잠깐 의탁하게 될 것이오. 이 또한 하늘의 뜻이 나라.”

사 씨가 여쭙었다.

1)“남해라면 바다 끝으로 알고 있사옵니다. 첩(사씨)에게는 탈 것이 없고 돈도 없는데 어찌 갈 수 있겠나이까?”

왕비가 말했다.

“조만간 길을 인도하는 자가 있을 것이니 조금도 염려 마라.”

이윽고 좌우에 앉아 있는 부인들을 하나하나 소개했다. 위국부인 장강, 한나라의 반첩여 등이 있었다. 사 씨가 다소곳이 일어나 머리를 조아리고 말했다.

2)“뜻밖에도 모든 부인님의 얼굴을 오늘 뵈게 되니 크나큰 영광입니다.”

왕비는 사 씨의 꿈속에서 하늘의 뜻을 일러줌

드디어 하직을 하고 여동의 인도를 받아 내려오는데, 걸었던 주렴을 내리는 소리가 요란하였다. 3)이 소리에 놀라 몸을 일으키니 유모와 시비가 부인이 깨신다 하고 부르거늘 사 씨가 일어나 앉으니 이미 날이 저물었다. 4)멍한 정신이 한참 만에야 진정되었다. 입에서는 향기로운 냄새가 났고 왕비께서 하시던 말씀이 뚜렷했다. 유모에게 물었다.

5)“내가 어디 갔다 왔느냐?”

유모와 시비가 대답했다.

“부인께서 기절하는 바람에 소인들이 간호하여 이제야 깨어나셨는데 어디를 가셨단 말입니까?”

사 씨가 조금 전에 있었던 일을 다 말하고 대나무 수풀을 가리키며 말했다.

6)“분명히 저 길로 갔다 왔으니 어찌 꿈이라 하리오. 믿지 못하겠다면 나를 따라오라.”

사씨는 유모와 시비를 데리고 꿈속 장소로 감

그러고는 길을 찾아 대나무 수풀 뒤쪽으로 가니 사당이 하나 있었다. 현관이 걸려 있는데 황룡모라고 쓰여 있었다. 분명 아황과 여영, 두 왕비의 묘로 꿈에서 본 것과 같았다. 사당 안으로 들어가 살펴보니 두 왕비의 초상화가 걸려 있는데 꿈에서 본 것과 같았다. 7)이에 사 씨가

향을 피우고 절하며 말했다.

“침이 왕비의 가르치심을 입어 훗날 좋은 시절을 만나서 영화를 누리게 된다면 어찌 그 은혜를 잊으리까?”

분향을 마친 후 앉아서 8)신세를 생각하니 슬픔이 밀려왔다. 시비를 시켜 묘지기 집에 가서 밥을 구해 와서는 세 사람이 나누어 먹었다. 이윽고 사 씨가 말했다.

“의지할 곳이 없으니 신령이 나를 놀리시는구나.”

앞길이 막막하여 어쩔 줄 모르는 중 벌써 달이 밝았다. 세 사람이 방황하고 있는데 묘문으로 두 사람이 들어와 물었다.

“어려움을 만나 물에 빠지려 하시는 부인이 아니옵니까?”

9)사 씨가 눈을 들어 자세히 보니 한 명은 여승이고 다른 한 명은 여동이였다. 크게 놀라며 말했다.

“어찌 우리를 아는가?”

여승이 합장하고 말했다.

“우리는 동정 군산에 사는 사람인데 조금 전 꿈결에 관음보살께서 어진 여자가 화를 만나 날이 저물어 갈 곳을 몰라 방황하니 급히 황릉묘로 가서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이에 배를 저어 와서 부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관음보살의 명을 받은 여승과 여동은 사씨 일행을 만난**  
(중략)

한편 한림학사 유연수는 유배지에 도착하니 바람이 거세고 인심이 사나워 갖은 고초를 겪게 되었다. 10)외로운 가운데 이러한 고생을 하니 예전의 총명함이 점점 돌아와 뉘우치며 말했다.

“사 씨가 동청을 꺼렸는데 이제 와서 생각하니 그 말이 옳다. 어진 아내를 의심했으니 무슨 면목으로 조상을 대하리오.”

밤낮 이런 생각을 하면서 탄식하니 병에 걸리고 말았다. 이곳에는 마땅한 의약이 없었다. 병세는 날로 심해져 죽을 지경에 이르렀다.

**사씨를 의심했던 지난 일을 탄식하며 병에 걸린 유연수**

하루는 흰 옷 입은 노파가 병(瓶)을 들고 와서 말했다.

“상공(유연수)의 병이 위독하니 이 물을 먹으면 좋아지리라.”

한림이 물었다.

11)“그대는 누구인데 유배당한 사람의 병을 구하시오?”

노파가 말했다.

“나는 동정 군산에 사는 사람이다.”

그러고는 병을 뜰 가운데 놓고 사라졌다. 12)한림이 놀라 일어나니 꿈이었다.

**노파는 꿈속에서 유연수에게 병을 고칠 물을 놓고 감**

13)이상하게 생각했는데 다음 날 아침 하인이 물을 청소하다가 들어와 고했다.

“뜰에서 물이 솟아나옵니다.”

14)한림이 이상하게 여겨 창을 열고 보니 꿈에 노파가 병을 놓았던 자리였다. 물을 한 그릇 떠오라고 해서 마시니 맛이 달고 상쾌한 것이 마치 단 이슬을 먹은 것 같았다. 원래 행주는 수질이 좋지 않은 곳이다. 한림의 병도 그렇게 좋지 않은 물 때문에 생긴 것이었다. 그런데 이 물을 먹은 즉시 병세가 사라지고 예전의 얼굴과 기력을 회복하였다.

**꿈을 깬 유연수는 노파가 알려준 물을 먹고 회복함**

그것을 본 사람들이 모두 신기하게 여겼다. 이후로도 그 샘은 마르지 않아 마을 사람들이 나누어 마셨다. 이로 인해 물로 인한 병이 없어져 자 사람들이 그 샘을 학사정이라고 하였는데 지금까지 전해진다.

**마르지 않는 샘인 학사정의 유래**

**<인물의 심리 및 태도>**

- \*사 씨: 남해로 갈 방법을 걱정하며 물어봄1)  
역사적인 인물을 만나 영광스러워 함2)  
꿈에서 깨 놀란 후 진정됨3~4)

자신의 상황을 궁금해 함5)

꿈을 현실로 확인함6)

초월적 존재에 대한 믿음7)

현재 신세에 대한 슬픔8)

자신을 알아보는 이들을 보고 놀람9)

\*유 한림: 유배지에서의 외로움과 후회10)

자신의 구하려는 이를 궁금해 함11)

꿈에서 깨 놀라며 이상히 여김12~14)

**★인강 연동 (22:34~)**



\*QR리더(스캐너)어플을 사용하거나 네이버 어플 검색창 맨 오른쪽에 카메라 그림을 클릭하여 QR코드를 클릭!  
\*위의 타임라인을 참고하세요.

**23. <고전소설>**

#사례\_예시

정답률	선지별 선택비율				
	①	②	③	④	⑤
92%	2%	92%	2%	2%	2%

◆정답 ②

\* “내(사 씨)가 어디 갔다 왔느냐?”

<유모>와 시비가 대답했다.

“1)부인(사 씨)께서 기절하는 바람에 소인(유모)들이 간호하여 이제야 깨어나셨는데 어디를 가셨단 말입니까?”[지문초반]

⇒<사 씨>가 기절한 사이 <유모>는 사 씨를 곁에서 간호한 것이지1) 황릉묘에 가서 ‘사 씨’를 깨울 방도를 찾아 온 것은 아니다.

◆오답 풀이

①

\* <왕비>가 웃으며 말했다.

“부인(사 씨)이 이곳에 오긴 오겠지만 아직 때가 멀었소. 1) <남해 도인>이 그대와 인연이 있으니 잠깐 의탁하게 될 것이요. 이 또한 하늘의 뜻이니라.”

사 씨가 여쭙었다.

2)“남해라면 바다 끝으로 알고 있사옵니다. 침(사씨)에게는 탈 것이 없고 돈도 없는데 어찌 갈 수 있겠나이까?”

왕비가 말했다.

3)“조만간 길을 인도하는 자가 있을 것이니 조금도 염려 마라.”

~

드디어 하직을 하고 여동의 인도를 받아 내려오는데, 걸었던 주렴을 내리는 소리가 요란하였다. 이 소리에 놀라 몸을 일으키니 유모와 시비가 4)부인(사 씨)이 깨신다 하고→(사 씨가 꿈을

꾸었음을 알 수 있음) 부르거늘 사 씨가 일어나 앉으니 이미 날이 저물었다. [지문초반]

⇒<사 씨>는 꿈에서4) <왕비>로부터 ‘남해 도인’과 인연이 있어 1) 바다 끝으로2) 향할 여정이 예비되어 있음을3) 들었다.

③

\* <사 씨>가 눈을 들어 자세히 보니 한 명은 <여승>이고 다른 한 명은 여동이였다. 크게 놀라며 말했다.

“어찌 우리(사 씨)를 아는가?”

<여승>이 합장하고 말했다.

“우리(여승 일행)는 동정 군산에 사는 사람인데 조금 전 1)꿈결에 관음보살께서 어진 여자(사 씨)가 화를 만나 날이 저물어 갈 곳을 몰라 방황하니 급히 황릉묘로 가서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지문중반]

⇒<사 씨>는 묘에서 만난 <여승>의 말을 통해 <여승> 일행이 찾아온 연유를1) 알게 되었다.

④

\*한편 <한림학사 유연수=유 한림>는 유배지에 도착하니 바람이 거세고 인심이 사나워 갖은 고초를 겪게 되었다.~

1)“<사 씨>가 <동청>을 꺼렸는데 이제 와서 생각하니 2)그 말이 옳도다.→(사 씨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았음⇨후회) 3)어진 아내(사 씨)를 의심했으니 무슨 면목으로 조상을 대하리오.”

[지문중반]

⇒<유 한림>은 전에 <동청>을 꺼렸던 ‘사 씨’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고1~2) <사 씨>를 의심했었다.3)

\*동청: 간교한 계책을 세우는 명수로서 교 씨와 사통할 뿐 아니라 유 한림까지 파직하고 귀양을 가게 하는 등 갖은 악행을 저지르는 악인의 전형적 인물

⑤

\*원래 행주는 1)수질이 좋지 않은 곳이다. 2)<한림>의 병도 그렇게 좋지 않은 물 때문에 생긴 것이었다. 그런데 이 물을 먹은 즉시 병세가 사라지고 예전의 얼굴과 기력을 회복하였다. 그것을 본 사람들이 모두 신기하게 여겼다. 3)이후로도 그 샘은 마르지 않아 <마을 사람들>이 나누어 마셨다. 이로 인해 물로 인한 병이 없어지자 사람들이 그 샘을 학사정이라고 하였는데 지금까지 전해진다. [지문후반]

⇒<마을 사람들>은 <유 한림>의 사례를2) 보고 수질 탓에 생긴 1) 병을 없앨 방도를 찾을 수 있었다.3)

※<사례와 예시>

ㄱ. 사례: 어떤 일이 전에 실제로 일어난 예. (→과거의 일)

ㄴ. 예시: 예를 들어 보임.

## 24. <고전소설>

#필수 암기 사항 #현실성 정도 #평가원 이의제기

#고전소설의 특징

정답률	선지별 선택비율				
	①	②	③	④	⑤
92%	2%	1%	3%	92%	2%

◆정답 ④

\* <여승>이 합장하고 말했다.

“우리(여승 일행)는 동정 군산에 사는 사람인데 조금 전 꿈결에 1)관음보살께서 어진 여자(사 씨)가 화를 만나 날이 저물어 갈 곳을 몰라 방황하니 급히 황릉묘로 가서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이에 ㉠배를 2)저어 와서 부인(사 씨)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배>는 관음보살의 명1)을 받은 <여승 일행> <사 씨>를 만나기 위해 타고 온 것이지,2) <사 씨>가 준비한 것이 아니다.

◆오답 풀이

①

\*드디어 하직을 하고 여동의 인도를 받아 내려오는데, 걸었던 ①주렴을 내리는 소리가 요란하였다. 1)이 소리에 놀라 몸을 일으키니 유모와 시비가 부인이 깨신다 하고 부르거늘 <사 씨>가 일어나 앉으니 이미 날이 저물었다.

※왕비와 사 씨의 대화(꿈 속, 비현실)→꿈을 깨고 현실로 복귀

⇒①<주렴을 내리는 소리>는 <사 씨>가 꿈에서 깨게 되는 소리로,1) <사 씨>가 비현실 세계에서 현실 세계로 돌아오게 되는 계기이다.

⇨고전 소설에서는 꿈속 상황이 자주 나온다. 꿈속을 현실로 착각하면 상황이나 사건이 이해가 안 될 수 있으니 꿈속과 현실을 잘 구분하면서 지문을 읽어나가자.

②

\*사 씨가 조금 전에 있었던 일을 다 말하고 ㉠대나무 수풀을 가리키며 말했다.

“분명히 1)저 길(대나무 수풀 길)로 갔다 왔으니 어찌 꿈이라 하리오. 믿지 못하겠다면 나를 따라오라.”

그러고는 길을 찾아 <대나무 수풀> 뒤쪽으로 가니 사당이 하나 있었다. 현판이 걸려 있는데 황릉묘라고 쓰여 있었다. 분명 아황과 여영, 두 왕비의 묘로 2)꿈에서 본 것과 같았다.

⇒㉠<대나무 수풀>은 <사 씨>가 꿈에서 보았던 곳과 같은 장소로,1~2) 꿈속의 비현실적 상황과 꿈을 깬 현실적 상황의 경계를 모호하게 만드는 공간이다.

♣필수 암기 사항!

\*모호: 의미가 분명하지 않음.

\*중의: 의미가 분명하나 2가지 이상임.

\*모순: 2가지가 서로 일치되지 않음.

※산문 문학의 현실성 정도에 대해 알아보자!

- ㄱ. 설화: 초(비)현실적인 것이 대부분
- ㄴ. 고전 소설: 초(비)현실적인 비중이 높음.
- ㄷ. 현대 소설: 현실적인 것이 대부분
- ㄹ. 수필: 완전한 현실적인 것

③

\*사당 안으로 들어가 살펴보니 두 1)왕비의 ㉠초상화가 걸려 있는데 2)꿈에서 본 것과 같았다. 이에 3)사 씨가 향을 피우고 절하며 말했다.

4)“첩이 <왕비>의 가르치심을 입어 훗날 좋은 시절을 만나서 영화를 누리게 된다면 어찌 그 은혜를 잊으리까?”

⇒㉠<초상화>는 <사 씨>가 꿈에서 보았던 왕비의 모습을1~2) 환기하는 물건으로, 현실 세계에는 존재하지 않는 초월적 존재(왕비)에 대한 <사 씨>의 믿음을 드러내는3~4) 소재이다.

▶(비현실적, 기이한, 신이한, 초월적)은 같은 맥락의 어휘이다.

**평가원 이의제기**

\*왕비를 초월적 존재로 본다고 하더라도 초상화를 두고 향을 피운 '사 씨'가 "첩이 왕비의 가르치심을 입어 훗날 좋은 시절을 만나서 영화를 누리게 된다면 어찌 그 은혜를 잊으리까?" 라는 말을 합니다. 아마 이것으로 '사 씨'의 믿음을 말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사 씨의 행동을 보면 조금 다른 양상을 나타냅니다. '사 씨'는 분향을 마치고는 '앞서 신세를 생각하니 슬픔이 밀려왔다.'라는 서술이 있습니다. 그리고는 또한 이런 말을 합니다 "의지할 곳이 없으니 신령이 나를 놀리시는구나." 이 말은 왕비에 대한 믿음이 있는 상태라고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분향 후 신세를 생각해 슬퍼지는 것도 초월적 존재에 대한 '믿음'을 말하기엔 잘 맞지 않는 느낌이 듭니다. 그렇다면 '사 씨'가 '초상화' 앞에서 말한 대사는 마치 "정말 그렇게 된다면야 얼마나 좋겠습니까(혹은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하는 투로 보입니다.

☞독실한 기독교 신자인 철수가 (자신의 기도가 이루어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 현실의 처지를 걱정한다고 해서 철수가 하나님을 믿는 사실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첩이 왕비의 가르치심을 입어 훗날 좋은 시절을 만나서 영화를 누리게 된다면>은 사 씨가 초월적 존재에게 바라는 희망 사항이고 신세를 한탄하는 것은 현실에 대한 판단이다. 현재는 어려운 처지이기 때문에 신세를 한탄하면서 초월적 존재에게 바람을 말하고 의지하려는 것은 자연스러운 행동으로 당연히 초월적 존재에 대한 믿음을 전제로 한다.

이의 제기할 수험생은 사 씨가 초월적 존재에 대한 믿음이 있고 바람을 말했다면 그 바람대로 일이 이루어질 텐데 왜 신세를 한탄하는 거지라는 의문을 제기한 듯한데, 사 씨는 자신의 바람을 초월적 존재가 무조건 들어준다고 확신하는 것은 아니다. 이는 <영화를 누리게 된다면>이라고 가정하는 것에서 알 수 있다. 하여간 사 씨가 현실에 대해 한탄을 하든, 현실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든 사 씨가 초월적 존재에 대한 믿음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고전 소설의 특성에 대해 알아보자!

- ㄱ. 비현실적인 요소 多
- ㄴ. 사건의 우연적 전개
- ㄷ. 서술자의 개입 등

⑤

\*하루는 흰 옷 입을 노파가 ㉠병(甁)을 들고 와서 말했다.

~

그러고는 1)병을 뜰 가운데 놓고 사라졌다. <한림>이 놀라 일어나니 꿈이었다.

~

그런데 2)이 물을 먹은 즉시 병세가 사라지고 예전의 얼굴과 기력을 회복하였다.

⇒㉠<병>은 <유 한림>이 꿈 꿈에 등장한 물건으로, 1) <유 한림>이 처한 위급한 상태를 호전시킬2) 방도가 생기게 하는 단초(실마리)이다.

25. <고전소설>

#이해 #평가원 이의제기

정답률	선지별 선택비율				
	①	②	③	④	⑤
95%	95%	1%	1%	2%	1%

◆정답 ①

\*<사 씨>가 여쭙었다.

“남해라면 바다 끝으로 알고 있습니다. 첩에게는 탈 것이 없고 돈도 없는데 어찌 갈 수 있겠나이까?”

<왕비>가 말했다.

1)“조만간 길을 인도하는 자가 있을 것이니 조금도 염려 마라.”

[지문초반]

\*한편 한림학사 <유연수>는 유배지에 도착하니 바람이 거세고 인심이 사나워 갖은 고초를 겪게 되었다.

~

병세는 날로 심해져 죽을 지경에 이르렀다. 하루는 흰 옷 입은 <노파>가 ㉠병(甁)을 들고 와서 말했다.

2)“상공(유연수)의 병이 위독하니 이 물을 먹으면 좋아지리라.”

⇒㉠와 ㉡에는 모두 꿈을 꾸 주체인 <사 씨>와 <유연수>를 돕는1~2) 역할을 하는 존재인 <왕비>와 <노파>가 출현한다.

\*상공: 조선시대의 벼슬 명.

**평가원 이의제기**

\*왕비는 사 씨를 돕지 않습니다. 왕비는 사 씨를 도울 누군가가 온다는 것을 꿈속에서 알려준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럼 선지 ①은 틀린 것 아닌가요?

☞왕비는 사 씨를 직접 돕지 않았지만 사 씨를 도울 누군가를 알려주는 것도 간접적인 도움이다. 사 씨에 입장에서는 분명 도움에 해당한다. 만약, 선지 ①이 <주체를 직접 돕는 역할을 하

는 존재가 출현한다>라고 되어 있다면 이의제기가 적절할 수 있으나 선지 ①은 <주체를 돕는~>이라고만 되어 있어 정답이 되는 것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

◆오답 풀이

②

\*그러고는 길을 찾아 대나무 수풀 뒤쪽으로 가니 사당이 하나 있었다. 현판이 걸려 있는데 황릉묘\*라고 쓰여 있었다. 분명 아황과 여영, 두 왕비의 묘로 ④**꿈**에서 본 것과 같았다.

\*황릉묘: 1)순임금의 두 왕비인 아황과 여영을 추모하기 위해 세운 사당.

⇒②는 꿈을 꾸 주체(사 씨)가 만나고 싶어 하던 역사적 인물1)이 등장하지만 ④에는 그냥 <노파>일 뿐이지 역사적 인물은 아니다.

③

\*왕비가 웃으며 말했다.

“1)부인(사 씨)이 이곳에 오긴 오겠지만 아직 때가 멀었소.→(때가 되기 전까지는 사 씨의 고난이 지속 혹은 심화 될 수도 있음)

\*하루는 흰 옷 입은 노파가 병을 들고 와서 말했다.

2)“상공의 병이 위독하니 이 물을 먹으면 좋아지리라.”

⇒③에는 꿈을 꾸 주체인 <사 씨>가 처한 고난이 심화될 것임(1) 암시한다고 볼만한 것이 있지만 ④에는 모두 꿈을 꾸 주체인 <유연수>가 처한 고난이 해결될 것임을(2) 암시하는 징표가 제시된다.

④

\*한편 한림학사 <유연수>는 유배지에 도착하니 바람이 거세고 인심이 사나워 갖은 고초를 겪게 되었다. 외로운 가운데 이러한 고생을 하니 예전의 총명함이 점점 돌아와 1)뉘우치며 말했다.

“사 씨가 동청을 꺼렸는데 이제 와서 생각하니 그 말이 옳도다. ~

하루는(→**꿈 속**) 흰 옷 입은 노파가 병을 들고 와서 말 했다.

⇒④에는 아황과 여영, ④에는 노파를 만난 기억이 각각 있을 뿐, 꿈을 꾸 두 주체(사 씨, 유연수)가 공유하고 있는 과거의 기억이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유연수>가 사 씨를 떠올리며 과거를 후회하는 것은(1) 꿈을 꾸기 이전의 현실 속 상황으로 사 씨랑 공유하는 과거의 기억에 해당하지 않는다.

⑤

⇒②와 ④ 모두 꿈을 꾸 주체(사 씨, 유연수)의 출생 내력은 없다.

26. <고전소설>

#보기 제시 #3점 #감상

정답률	선지별 선택비율				
	①	②	③	④	⑤
86%	3%	3%	3%	5%	86%

◆정답 ⑥

\*한편 한림학사 유연수는 유배지에 도착하니 바람이 거세고 인심이 사나워 갖은 고초를 겪게 되었다.

~

1)한림의 병도 그렇게 좋지 않은 물 때문에 생긴 것이었다. 그런데 이 물을 먹은 즉시 병세가 사라지고 예전의 얼굴과 기력을 회복하였다. 그것을 본 2) (인심이 사나웠던 행주) 사람들이 모두 신기하게 여겼다. 이후로도 그 샘은 마르지 않아 마을 사람들이 나누어 마셨다. 이로 인해 물로 인한 병이 없어지자 사람들이 그 샘을 학사정이라고 하였는데 지금까지 전해진다.

[지문후반]

<보기>

그는 이 소설이 3)착한 사람은 복을 받고 악한 사람은 벌을 받는다는 <복선화음>의 이치를 담고 있다고 평가한다.

⇒행주 사람들은 샘에 얽힌 이야기를(1) 듣고 신기해하며 이후 직접 샘물을 마시며 병이 없어지자 샘의 이름을 지었음(2) 뿐이지 2) <복선화음>의 이치를(3) 깨달은 것은 아니다.

지문에서 <복선화음>의 양상이 있으나, 없느냐를 묻는 것이 아니라, 행주 사람들이 <복선화음>을 깨달은 것이 없느냐를 묻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잘 구분해야 한다.

평가원 이의제기

\*유한림은 행주사람들 인심이 사나워 갖은 고초를 겪게 되었다. 어진 아내를 의심한 악한 사람이었던 유한림은 벌을 받아 유배지에 오게 되었고 착한 사람이 되어가자 얼굴과 기력을 회복하는 복을 받는 과정을 행주사람들이 보며 복선화음을 깨닫게 되는 것 아닌가?

⇒유한림이 어진 아내를 의심한 어리석음을 악으로 보고 그에 따라 유배지에서 고초를 겪는 결과는 복선화음으로 볼 수 있지만 지문에서는 행주 사람들이 유한림의 불행한 처지가 무엇 때문에 기인한 것인지를 알 수 있는 부분이 없다. 그래서 행주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유한림을 통해 복선화음을 깨닫게 된다고 말할 뚜렷한 근거가 없다.

◆오답 풀이

①

\*한편 1)한림학사 유연수는 유배지에 도착하니 바람이 거세고 인심이 사나워 갖은 고초를 겪게 되었다.

~

밤낮 이런 생각을 하면서 탄식하니 2)병에 걸리고 말았다.

[지문중반]

\*물을 한 그릇 떠오라고 해서 마시니 맛이 달고 상쾌한 것이 마치 ‘단 이슬’을 먹은 것 같았다.~그런데 3) (‘단 이슬’과 같은)

이 물을 먹은 즉시 병세가 사라지고 예전의 얼굴과 기력을 회복하였다. [지문후반]

<보기>

다만 과오가 있는 사람이라도 잘못을 깨닫고 착한 데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4)재앙이 상서로움으로 바뀌는 경우에도 주목한다.

⇒유 한림이 유배지에서 얻은 질병이1~2) ‘단 이슬’과 같은 물로써 치료된다는 설정에서,3) 유 한림의 재앙(병)이 상서로움(회복)으로 전환되는 양상을 엿볼 수 있다.4)

\*상서롭다: 복되고 길한 일이 일어날 조짐이 있다.

②

\*한편 1)<한림학사 유연수>는 유배지에 도착하니 바람이 거세고 인심이 사나워 갖은 고초를 겪게 되었다. 외로운 가운데 이러한 고생을 하니 2)‘예전의 총명함’이 점점 돌아와 3)늪우치며 말했다. [지문중반]

<보기>

다만 4)과오가 있는 사람이라도 잘못을 깨닫고 착한 데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재앙이 상서로움으로 바뀌는 경우에도 주목한다.

⇒<유 한림>이 유배지에서 고초를 겪는 가운데1) ‘예전의 총명함’을 회복하는 장면에서,2) 과오가 있는 사람이라도 잘못을 깨닫고 착한 데로 나아가는 과정을 엿볼 수 있다.3~4)

③

\*왕비가 말했다.

1)“조만간 길을 인도하는 자가 있을 것이니 조금도 염려 마라.”

[지문초반]

\*여승이 합장하고 말했다.

2)“우리(여승 일행)는 동정 군산에 사는 사람인데 조금 전 꿈결에 관음보살께서 어진 여자가 화를 만나 날이 저물어 갈 곳을 몰라 방황하니 급히 황룡묘로 가서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이에 배를 저어 와서 3)부인(사 씨)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지문중반]

<보기>

한편 4)꿈속에서 벌어지는 일이나 기이한 만남이 나타나는 등 허구적인 이야기라도 사람의 일에 연관된다면 이를 두고 괴이하거나 맹랑한 것이라고 치부할 수만은 없다고 평한다.

⇒사 씨의 꿈에서 예견된 인도자와의 인연이1) ‘여승’의 꿈에서 계시된 바2)와 조응하여 ‘여승’ 일행이 사 씨를 찾은 장면에서,3) 기이한 만남이 이루어지는 양상을4) 엿볼 수 있다.

\*조응: 둘 이상의 사물이나 현상 또는 말과 글의 앞뒤 따위가 서로 일치하게 대응함

▶(비현실적, 기이한, 신이한, 초월적)은 같은 맥락의 어휘이다.

④

\*1)이로 인해 물로 인한 병이 없어지자 사람들이 그 샘을 <학사정>이라고 하였는데 ‘지금까지 전해진다.’ [지문후반]

<보기>

한편 꿈속에서 벌어지는 일이나 기이한 만남이 나타나는 등 2) 허구적인 이야기라도 사람의 일에 연관된다면 이를 두고 괴이하거나 맹랑한 것이라고 치부할 수만은 없다고 평한다.

⇒<학사정>이 생기게 된 유래가 신이하지만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져 ‘지금까지 전해진다’고 한 점에서,1) 허구적인 이야기일지라도 사람의 일에 연관되므로 괴이한 것만으로는 볼 수 없다.2)

### ※27~32, <정부의 정책 수단>

① 정부는 국민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활동의 총체인 정책의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정책 수단의 특성을 고려하여 정책을 수행한다. 2정책 수단은 강제성, 직접성, 자동성, 가시성의 네 가지 측면에서 다양한 특성을 갖는다. 3강제성은 정부가 개인이나 집단의 행위를 제한하는 정도로서, 유해 식품 판매 규제는 강제성이 높다. 4직접성은 정부가 공공 활동의 수행과 재원 조달에 직접 관여하는 정도를 의미한다. 5정부가 정책을 직접 수행하지 않고 민간에 위탁하여 수행하게 하는 것은 직접성이 낮다. 6자동성은 정책을 수행하기 위해 별도의 행정 기구를 설립하지 않고 기존의 조직을 활용하는 정도를 말한다. 7전기 자동차 보조금 제도를 기존의 시청 환경과에서 시행하는 것은 자동성이 높다. 8가시성은 예산 수립 과정에서 정책을 수행하기 위한 재원이 명시적으로 드러나는 정도이다. 9일반적으로 사회 규제의 정도를 조절하는 것은 예산 지출을 수반하지 않으므로 가시성이 낮다.

#### 정책 수단의 특성

② 1정책 수단 선택의 사례로 환율과 관련된 경제 현상을 살펴보자. 2외국 통화에 대한 자국 통화의 교환 비율을 의미하는 환율은 장기적으로 한 국가의 생산성과 물가 등 기초 경제 여건을 반영하는 수준으로 수렴된다. 3그러나 단기적으로 환율은 이와 괴리되어 움직이는 경우가 있다. 4만약 환율이 예상과는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거나 또는 비록 예상과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더라도 변동 폭이 예상보다 크게 나타날 경우 경제 주체들은 과도한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 5환율이나 주가 등 경제 변수가 단기에 지나치게 상승 또는 하락하는 현상을 오버슈팅(overshooting)이라고 한다. 6이러한 오버슈팅은 물가 경직성 또는 금융 시장 변동에 따른 불안 심리 등에 의해 촉발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7여기서 물가 경직성은 시장에서 가격이 조정되기 어려운 정도를 의미한다.

#### 환율과 오버슈팅

③ 1물가 경직성에 따른 환율의 오버슈팅을 이해하기 위해 통화를 금융 자산의 일종으로 보고 경제 충격에 대해 장기와 단기에 환율이 어떻게 조정되는지 알아보자. 2경제에 충격이 발생할 때 물가나 환율은 충격을 흡수하는 조정 과정을 거치게 된다. 3물가는 단기에는 장기 계약 및 공공요금 규제 등으로 인해 경직적이지만 장기에는 신속적으로 조정된다. 4반면 환율은 단기에서도 신속적인 조정이 가능하다. 5이러한 물가와 환율의 조정 속도 차이가 오버슈팅을 초래한다. 6물가와 환율이 모두 신속적으로 조정되는 장기에서의 환율은 구매력 평가설에 의해 설명되는데/이에 의하면 장기의 환율은 자국 물가 수준을 외국 물가 수준으로 나눈 비율로 나타나며, 이를 균형 환율로 본다. 7가령 국내 통화량이 증가하여 유지될 경우 장기에서는 자국 물가도 높아져

장기의 환율은 상승한다. 8이> 통화량을 물가로 나눈 실질 통화량은 변하지 않는다.

**경제 충격에 따른 장기·단기 환율 조정 과정**

④ 1그런데 단기에는 물가의 경직성으로 인해 구매력 평가설에 기초한 환율과는 다른 움직임이 나타나면서 오버슈팅이 발생할 수 있다. 2가령 국내 통화량이 증가하여 유지될 경우, 물가가 경직적이어서 실질 통화량은 증가하고 이에 따라 시장 금리는 하락한다. 3국가 간 자본 이동이 자유로운 상황에서, 시장 금리 하락은 투자의 기대 수익률 하락으로 이어져, 단기성 외국인 투자 자금이 해외로 빠져나가거나 신규 해외 투자 자금 유입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4이 과정에서 자국 통화의 가치는 하락하고 환율은 상승한다. 5통화량의 증가로 인한 효과는 물가가 신속적인 경우에 예상되는 환율 상승에, 금리 하락에 따른 자금의 해외 유출이 유발하는 추가적인 환율 상승이 더해진 것으로 나타난다. 6이러한 추가적인 상승 현상이 환율의 오버슈팅인데, 오버슈팅의 정도 및 지속성은 물가 경직성이 클수록 더 크게 나타난다. 7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물가가 상승하여 실질 통화량이 원래 수준으로 돌아오고 해외로 유출되었던 자금이 시장 금리의 반등으로 국내로 복귀하면서, 단기에 과도하게 상승했던 환율은 장기에는 구매력 평가설에 기초한 환율로 수렴된다.

**환율의 오버슈팅 과정**

⑤ ①단기의 환율이 기초 경제 여건과 괴리되어 과도하게 급등락하거나, 균형 환율 수준으로부터 장기간 이탈하는 등의 문제가 심화되는 경우를 예방하고 이에 대처하기 위해 정부는 다양한 정책 수단을 동원한다. ②오버슈팅의 원인인 물가 경직성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 수단 중 강제성이 낮은 사례로는 외환의 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해 관련 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공개하거나, 불필요한 가격 규제를 축소하는 것을 들 수 있다. ③한편 오버슈팅에 따른 부정적 파급 효과를 완화하기 위해 정부는 환율 변동으로 가격이 급등한 수입 필수 품목에 대한 세금을 조절함으로써 내수가 급격히 위축되는 것을 방지하려고 하기도 한다. ④또한 환율 급등락으로 인한 피해에 대비하여 수출입 기업에 환율 변동 보험을 제공하거나, 외화 차입 시 지급 보증을 제공하기도 한다. ⑤이러한 정책 수단은 직접성이 높은 특성을 가진다. ⑥이와 같이 정부는 기초 경제 여건을 반영한 환율의 추세를 용인하되, 사전적 또는 사후적인 미세 조정 정책 수단을 활용하여 환율의 단기 급등락에 따른 위협으로부터 실질 경제와 금융 시장의 안정을 도모하는 정책을 수행한다.

**다양한 미세 조정 정책 수단**

**★문단별 요약★**

- ① <정책 수단의 특성>
  - \*강제성: 개인이나 집단의 행위를 제한하는 정도
  - \*직접성: 공공 활동의 수행과 자원 조달에 직접 관여하는 정도
  - \*자동성: 기존의 조직을 활용하는 정도
  - \*가시성: 재원이 명시적으로 드러나는 정도
- ②
  - \*환율: 외국 통화에 대한 자국 통화의 교환 비율  
-한 국가의 기초 경제 여건을 반영  
-변동 폭이 예상보다 크면, 경제 주체들은 위험에 노출됨.
  - \*오버슈팅: 경제 변수가 단기에 지나치게 상승 또는 하락.  
(by 물가 경직성, 불안 심리)
  - \*물가 경직성: 가격이 조정되기 어려운 정도
- ③ <경제에 충격이 발생→물가나 환율은 충격을 흡수>
  - \*물가: 단기-경직적, 장기-신축적 조정

\*환율: 단기, 장기-신축적 조정  
\*물가와 환율의 조정 속도 차이→오버 슈팅 초래  
\*장기적인 환율: 외국 물가/자국 물가=균형 환율

④ <구매력 평가설과는 다른 움직임→오버슈팅 발생>  
\*국내 통화량↑→물가 경직→실질 통화량↑→금리↓→투자의 기대 수익률↓→투자 자금↓→자국의 통화 가치↓→환율↑  
\*통화량↑ 효과: (물가가 신속적인 경우의) 예상 환율 상승+ (금리↓→자금의 해외 유출에 의한) 환율 상승  
\*환율의 오버슈팅: 추가적인 상승 현상→(물가의 경직성에 비례)  
\*실질 통화량과 유출 자금의 복귀  
→(구매력 평가설에 기초한 환율로 수렴)

⑤ <단기의 환율이 급등락 or 균형 환율 수준과 장기간 이탈→미세 조정 정책 활용>  
\*[강제성↓]: 정보 공개 or 불필요한 규제 축소  
→(물가 경직성 완화)  
\*[직접성↑]: 환율 변동→수입 필수품의 세금 조절→내수 위축 방지→오버 슈팅 부작용 완화  
\*[직접성↑]: 환율 변동 보험 or 보증 제공→환율 급등락 대비

**★지문 보충 해설★**

- ① 2 네 가지 측면으로 (문단내 혹은 문단별로) 글이 전개될 것임을 예측하면서 읽어 나가야 한다.
- 2~8 개념이 나열될 경우, 개념 간의 대립적 성질이 없다면 피정의향에는 동그라미 정의항 키워드에는 밑줄을 치면서 빠르게 읽어 나가자. 그렇다면 문제 풀이 시 해당 개념과 관련된 것을 신속하게 찾을 수 있다.
- ② 3 '그런데', '그러나(하지만)'등 전환 및 반대의 흐름을 나타내는 말이 사용되면 주의가 필요하므로 가장 눈에 띄는 세모 표시가 적절하다. [[3]-3,4 [4]-1도 마찬가지]
- 7 '이', '이때' '이렇게', '여기서', '이와 같이', '이들은'처럼 이전 내용의 흐름을 이어가는 지시 대명사(이~, 그~)에는 > 표시가 적절하다. [[3]-5,8 [4]-4, [5]-5,6도 마찬가지]
- ③ 1 '장기'와 '단기'의 차이점에 중점을 두고 읽어 나가자.
- 3~4 <물가-환율>처럼 대립적 항목이 정리되면 주의 깊게 살펴보자. 문제화될 가능성이 높다.

3,4+5

<원인+결과>의 구성. 국어 공부에서 인과 관계를 제대로 파악하는 작업은 논리력과 사고력에 토대가 되는 일이다.

[4]-2도 마찬가지]

6

\*문장이 길다면, 첨표에서 흐름을 끊어주자.

[4]-3,7도 마찬가지]

\*(외국 물가/자국 물가=균형 환율)처럼 공식이 정리되면 문제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4]

2~4

상·하 화살 표시를 적절하게 사용하면 구조화에 도움이 된다.

6

'경직성이 클수록 더 크게'처럼 비례 관계가 정리되는 내용은 선지 정/오 판단에 근거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다.

[5] 2~4

(2~들 수 있다.) (3한편~4또한~)에서, 문장 첫머리에 제시된 '한편', '또한'을 통해 문장을 묶거나 혹은 분류할 줄 알아야 한다. (전자는 강제성↓, 후자는 직접성↑ 경우에 해당)

★인강 연동 (40:26~)



\*QR리더(스캐너)어플을 사용하거나 네이버 어플 검색창 맨 오른쪽에 카메라 그림을 클릭하여 QR코드를 클릭!  
\*위의 타임라인을 참고하세요.

국어는 기출이 진리요  
N회독은 필수다

27. <사회>

#이해 #최선의 조언 #문제 풀이 TIP #평가원 이의제기

정답률	선지별 선택비율				
	①	②	③	④	⑤
66%	66%	9%	9%	9%	7%

◆정답 ①

\*가령 <국내 통화량이 증가>하여 유지될 경우 장기에서는 자국 물가도 높아져 1)<장기의 환율>은 상승한다. 이때 통화량을 물가로 나눈 2)<실질 통화량>은 변하지 않는다. [3문단]

⇒<국내 통화량이 증가>하여 유지될 경우 장기에는 <실질 통화량>이 변하지 않지만2) <장기의 환율>은 상승한다.1)

◆오답 풀이

②

\*환율이나 주가 등 1)경제 변수가 단기에 지나치게 상승 또는 하락하는 현상을 <오버슈팅>이라고 한다. 이러한 2)<오버슈팅>은 물가 '경직'성 또는 금융 시장 변동에 따른 불안 심리 등에 의해 촉발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2문단]

※경제 변수(금리)의 하락 폭 비교:

(물가가 '신축' < (물가가 '경직') by오버슈팅

⇒물가가 신축적인 경우가 (경제 변수가 지나치게 하락되는, 오버슈팅을 촉발하는) '경직'적인 경우1~2)에 비해 국내 통화량 증가에 따른 국내 시장 금리 하락 폭이 작을 것이다.

③

\*<물가 경직성에 따른 환율의 오버슈팅>을 이해하기 위해 통화를 금융 자산의 일종으로 보고 경제 충격에 대해 장기와 단기에 환율이 어떻게 조정되는지 알아보자.~1)<물가>는 <단기>에는 장기 계약 및 공공요금 규제 등으로 인해 '경직'적이지만 장기에는 신축적으로 조정된다. 반면 2)<환율>은 <단기>에서도 신축적인 조정이 가능하다. 이러한 <물가>와 <환율>의 조정 속도 차이가 <오버슈>팅을 초래한다. [3문단]

※단기 조정 속도 비교:

(‘물가’는 경직적) < (‘환율’은 신축적)

⇒<물가 경직성에 따른 환율의 오버슈팅>은 <단기>에는 '경직'적인 <물가>의 조정 속도1)보다 <단기>에서도 신축적인 <환율>의 조정 속도2)가 빠르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다.

④

\*그런데 단기에는 물가의 경직성으로 인해 구매력 평가설에 기초한 1)<환율>과는 다른 움직임이 나타나면서 <오버슈팅>이 발생할 수 있다. 가령 국내 통화량이 증가하여 유지될 경우, 2) <물가가 경직적>이어서 실질 통화량은 증가하고 이에 따라 <시장 금리는 하락>한다. 국가 간 자본 이동이 자유로운 상황에서, 3)<시장 금리 하락>은 투자의 기대 수익을 하락으로 이어져, 단기성 <외국인 투자 자금>이 해외로 빠져나가거나 신규 해외 투자 자금 유입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이러한 추가적인 상승 현상이 환율의 오버슈팅인데, 4)<오버슈팅의 정도> 및 지속성은 <물가 경직성>이 클수록 더 크게 나타난다.→('오버슈팅의 정도'는 '물가 경직성'에 비례) [4문단]

※물가가 경직적→시장 금리 하락→외국인 투자 자금 유출2,3)

※<외국인 투자 자금>이 국내 <시장 금리>에 민감하게 반응?

→<외국인 투자 자금>이 직접적으로는 <시장 금리>에, 근본적으로는 <물가의 경직성>에 영향을 받고 있다는 의미.

⇒<환율>의 <오버슈팅>이 발생한 상황에서1) 외국인 투자 자금이 (물가의 경직성에 영향을 받는) 국내 시장 금리에 민감하게



반응할수록,2,3) (결국엔 물가가 경직될수록) 이에 비례하는 <오버슈팅 정도>는 커질 것이다.4)

**평가원 의의제기**

\*선지 4번은 "환율의 오버슈팅이 발생'한' 상황에서"란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바, 이는 곧 (1) '이미 오버슈팅이 발생한 이후 그것이 악화되거나 지속되는 과정'뿐만 아니라 (2) '시간의 경과에 따라 실질 통화량이 다시 원래 수준으로 회복하는 과정'까지 포함한다고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즉, (2)의 기간에서는 물가 상승으로 인해 실질 통화량이 원래 수준으로 돌아오면서 시장 금리가 반등하게 되는데, 이때에는 오히려 외국인 투자 자금이 국내 시장 금리에 민감하게 반응할수록 그 복귀 속도가 빨라져 오버슈팅의 정도는 악화되고, 구매력 평가설에 기초한 환율로의 수렴 속도는 빨라질 것입니다. 선지 5번 역시 '환율의 오버슈팅이 발생한 상황에서'이란 표현을 중복하여 사용하는데, 이 경우에도 (2)의 기간을 포함한다고 해석할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 선지 ⑤는 시간 경과(걸리는 기간)에 관련된 말이 있지만 선지 ④에는 그런 말이 없기 때문에 <환율의 오버슈팅이 발생한 상황>에서는 말 그대로 시간의 경과를 고려하지 않은 초기의 상황만을 가정해 문제를 풀어야 한다.

⑤

\*그런데 단기에는 물가의 경직성으로 인해 구매력 평가설에 기초한 1)<환율>과는 다른 움직임이 나타나면서 <오버슈팅>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추가적인 상승 현상이 환율의 오버슈팅인데, 2)<오버슈팅>의 정도 및 <지속성>은 <물가 경직성>이 클수록 더 크게 나타난다. 3)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물가가 상승하여 실질 통화량이 4)원래 수준으로 돌아오고 해외로 유출되었던 자금이 시장 금리의 반등으로 국내로 복귀하면서, 단기에 과도하게 상승했던 환율은 장기에는 5)<구매력 평가설>에 기초한 환율로 수렴된다. [4문단]

⇒<환율>의 <오버슈팅>이 발생한 상황에서1) <물가 경직성>이 클수록 <오버슈팅>의 <지속성>이 커지기2) 때문에 <구매력 평가설>에 기초한 환율로 수렴되는 데5) 원래 수준으로 돌아오는 4) 걸리는 기간이3) 길어질 것이다.

**★문제 풀이 TIP!**

선지의 각 첫머리에 해당하는 말(상황, 주제)에 적절한 표시를 하고, 관련 지문을 신속하게 찾는 것이 관건.

- ① 국내 통화량이 증가하여 유지될 경우~[3문단]
- ③ 물가 경직성에 따른 환율의 오버슈팅은~[3문단]
- ④ 환율의 오버슈팅이 발생한 상황에서~[4문단]
- ⑤ 환율의 오버슈팅이 발생한 상황에서~[4문단]

**★최선의 조언★**

다른 오답 선지들에 비해, 정답 ①의 판단 과정은 간단하고 쉬운 편이다. ①을 정확하고 확실히 정답으로 판단했다면 신속하

게 다음 문제로 넘어가는 것이 좋다. 실전에서 똑같이 정답을 골라내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 누가 더 신속하고 정확하게 정답을 찾느냐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나머지 선지까지 다 검토하고 ①을 결국엔 정답으로 판단한 수험생은 선지 ①만을 확실하게 검토한 수험생에 비해 시간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하물며 모든 선지를 꼼꼼히 검토하고 결국엔 오답을 골라낸 이들은 정말 최악의 경우이다. 다른 선지들을 과감히 보지 않고 넘어가기 위해서는 꼼꼼함과 정확한 검토에 따른 어느 정도의 정답 확신을 가져야 한다.

**28. <사회>**

#이해

정답률	선지별 선택비율				
	①	②	③	④	⑤
80%	5%	4%	5%	6%	80%

**◆정답 ⑤**

\*1)<자동성>은 정책을 수행하기 위해 별도의 행정 기구를 설립하지 않고 기존의 조직을 활용하는 정도를 말한다.→(기존의 조직을 활용할수록 자동성↑)[1문단]

⇒담당 부서에서 문화 소외 계층에 제공하던 복지 카드의 혜택을 늘리는 것은, 기존의 조직을 활용하는 것이기1) 때문에 전담 부처를 신설하여 상수원 보호 구역을 감독하는 것보다 <자동성>이 높다.

☞사전적 의미의 <자동성>하고 '기존 활용'이 별 상관이 없는 것처럼, 지문에 사용된 용어는 전문어로서 사전적 의미와는 다르게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선입견 없이 제시된 의미만으로 문제를 풀어야 한다.

**◆오답 풀이**

①

\*<강제성>은 정부가 개인이나 집단의 1)행위를 제한하는 정도로서, 유해 식품 판매 규제는 강제성이 높다. [1문단]

⇒다자녀 가정에 출산 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은, 불법 주차 차량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보다 행위를 제한하는 정도1)가 낮기 때문에 <강제성>도 낮다.

②

\*<가시성>은 예산 수립 과정에서 정책을 수행하기 위한 재원이 명시적으로 드러나는 정도이다. 일반적으로 사회 규제의 정도를 조절하는 것은 1)예산 지출을 수반하지 않으므로 <가시성>이 낮다. [1문단]

⇒전기 제품 안전 규제를 강화하는 것은, 예산 지출을 수반하지 않으므로1) 학교 급식을 제공하기 위한 재원을 정부 예산에 편성하는 것보다 가시성이 낮다.

③

\*<강제성>은 정부가 개인이나 집단의 1)행위를 제한하는 정도로서, 유해 식품 판매 규제는 강제성이 높다. [1문단]

⇒문화재를 발견하여 신고할 경우 포상금을 주는 것은, <강제성>과는 상관없으므로 자연 보존 지역에서 개발 행위를 금지하는 것1)보다 <강제성>이 낮다.

⇒<강제성>이라는 상식적인 의미를 고려해 볼 때, 지문을 보지 않고도 선지 ①, ③의 부적절함을 판단할 수 있다. 이런 판단이 든다면 굳이 지문 검토를 하지 않고 다음 선지로 넘어가야 시험 시간을 1초라도 절약할 수 있다. 실전에서 1초, 1초를 모아 킬러 문제에 총력을 쏟아야 한다. 그렇다면 틀릴 문제도 건져낼 수 있다.

④

\*<직접성>은 정부가 공공 활동의 수행과 재원 조달에 직접 관여하는 정도를 의미한다. 정부가 정책을 직접 수행하지 않고 1)<민간>에 위탁하여 수행하게 하는 것은 2)<직접성>이 낮다.

[1문단]

⇒쓰레기 처리를 <민간> 업체에 맡겨서 수행하게 하는 것은, 1) 정부 기관에서 주민등록 관련 행정 업무를 수행하는 것보다 <직접성>이 낮다. 2)

29. <사회>

#1항목 후순위의 법칙 #보기 제시 #Q&A #최선의 조건 #조사 하나의 차이

정답률	선지별 선택비율				
	①	②	③	④	⑤
37%	37%	6%	17%	17%	23%

◆정답 ①

\*그런데 단기에는 물가의 경직성으로 인해 구매력 평가설에 기초한 <환율과는 다른 움직임이 나타나면서 오버슈팅이 발생>할 수 있다. 가령 국내 통화량이 증가하여 유지될 경우, 물가가 경직적이어서 실질 통화량은 증가하고 이에 따라 시장 금리는 하락한다. 국가 간 자본 이동이 자유로운 상황에서, 1)시장 금리 하락은 투자의 기대 수익률 하락으로 이어져, 단기성 외국인 2) 투자 자금이 해외로 빠져나가거나 신규 해외 투자 자금 유입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 과정에서 자국 통화의 가치는 하락하고 환율은 상승한다. 통화량의 증가로 인한 효과는 물가가 신속적인 경우에 예상되는 환율 상승에, 금리 하락에 따른 자금의 해외 유출이 유발하는 추가적인 환율 상승이 더해진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3)추가적인 상승 현상이 '환율'의 <오버슈팅>인데, <오버슈팅>의 정도 및 지속성은 물가 경직성이 클수록 더 크게 나타난다. [4문단]

<보기>

이로 인해 외환 시장에서는 4)A국에 투자되고 있던 단기성 외

국인 자금이 B국으로 유출되면서 5)A국의 환율이 급등하고 있다.

\*<오버슈팅의 정도>가 커지는 과정[4문단]:

(통화량↑ 유지) 물가 경직→실질 통화량↑→시장 금리↓1)→투자의 기대 수익률↓→투자 자금 유출2) or 투자 자금 유입 위축→통화 가치↓→추가 환율↑→(추가적인 상승 현상의) 오버슈팅↑3)

⇒B국의 시장 금리가 하락한다면 1) B국에 대한 투자 자금이 해외(A국)로 빠져나가 2) B국에 대한 <오버슈팅의 정도>는 커질 수 있다. 3) 하지만 A국에 <환율의 오버슈팅이 발생>한 상황에서, A국은 (B국으로 유출된) 투자 자금이 4) 다시 유입되는 상황이라서 (B국으로 유출된 투자 자금으로 인한) 급등된 환율이 5) 다시 안정화될 것이기 때문에 <오버슈팅의 정도>가 커질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오버슈팅의 정도>가 커지는 과정을 살펴봐도, <투자 자금의 유입>이 <오버슈팅의 정도>가 커지는 것에 영향을 주지 않음을 알 수 없다. 즉, <투자 자금의 유입>은 <오버슈팅의 정도>가 커지는 과정(원인)에 없다.

Q&A

\*선지 ①의 의미가 중의적인듯한데, 오버 슈팅의 정도가 커지는 것을 B국으로 해석한다면 적절한 거 아닌가요?

⇒발문을 다시 잘 살펴봐라. A국의 경제 상황에 대한 것이다. 그래서 오버 슈팅의 정도가 커지는 것을 A국으로 놓고 판단해야 한다. 출제자는 이를 노리고 선지 ①을 <A국의 오버슈팅의 정도>라하지 않고 그냥 <오버슈팅의 정도>라고 애매하게 설정했다. 발문을 꼼꼼히 읽는 습관을 들이자. 발문은 문제를 푸는 첫걸음이다.

◆오답 풀이

②

\*이러한 <오버슈팅>은 물가 경직성 또는 1)금융 시장 변동에 따른 불안 심리 등에 의해 촉발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2문단]

<보기>

2)금융 시장 불안의 여파로 A국의 주식, 채권 등 금융 자산의 가격 하락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면서 안전 자산으로 인식되는 B국의 채권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A국에 환율의 <오버슈팅>이 발생하였다면 이는 금융 시장 변동에 따른 불안 심리에 의해 촉발된 것으로 볼 수 있다. 1~2)

③

\*물가와 환율이 모두 신속적으로 조정되는 장기에서의 환율은 <구매력 평가설>에 의해 설명되는데, 이에 의하면 장기의 환율은 자국 물가 수준을 외국 물가 수준으로 나눈 비율로 나타나며, 이를 <균형 환율>로 본다. →(구매력 평가설에 의한 환율=균

**형 환율)** [3문단]

\*이러한 추가적인 상승 현상이 <환율의 오버슈팅>인데, 오버슈팅의 정도 및 지속성은 물가 경직성이 클수록 더 크게 나타난다. 1)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물가가 상승하여 실질 통화량이 원래 수준으로 돌아오고 해외로 유출되었던 자금이 시장 금리의 반등으로 국내로 복귀하면서, 2)단기에 과도하게 상승했던 환율은 장기에는 구매력 평가설에 기초한 환율(→균형 환율)로 수렴된다. [4문단]

⇒A국에 <환율의 오버슈팅>이 발생할지라도 시장의 조정을 통해 1) 환율이 장기에는 구매력 평가설에 기초한 <균형 환율> 수준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다.2)

**♣조사 하나의 차이가 의미를 바꾸다**

- \*시장의 조정: 시장이 자연스럽게 조정됨
- \*시장을 조정: (정부와 같은 어떤 주체가) 시장을 인위적으로 조정함

**★최선의 조언★**

실전에서 위와 같은 미세한 문법적 판단은 하루아침에 완성되지 않는다. 국어는 모든 영역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통합하여 학습하는 습관이 필요하다. 교재를 통해 다양한 풀이와 지식을 반복적으로 살피고 익혀감으로써 한 걸음 한 걸음씩 고득점을 향해 다가가자.

④

<보기>

또한 양국 간 교역 및 금융 의존도가 높은 현실을 감안할 때, <A국의 환율 상승>은 수입품의 가격 상승 등에 따른 부작용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한편으로는 1)수출이 증대되는 효과도 있다. 그러므로 2)정부는 시장 개입을 가능한 한 자제하고 환율이 시장 원리에 따라 자율적으로 균형 환율 수준으로 수렴 되도록 두어야 한다.

⇒<A국의 환율 상승>이 수출을 증대시키는 긍정적인 효과도 1) 동반하므로 A국의 정책 당국은 외환 시장 개입에 신중해야 한다.2)

⑤

\*한편 오버슈팅에 따른 부정적 파급 효과를 완화하기 위해 정부는 1)환율 변동으로 가격이 급등한 수입 필수 품목에 대한 세금을 조절함으로써 내수가 급격히 위축되는 것을 방지하려고 하기도 한다.→(수입품의 가격이 인상되면 내수가 위축됨을 알 수 있음) [끝문단]

⇒A국의 환율 상승은 B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상품의 가격을 인상시킴으로써 A국의 내수를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1)

**★1항목 후순위의 법칙★**

(자세한 내용 3쪽~ 참고)

선지 ②~④가 각각 A 혹은 B 1개만을 활용하여 설명하는데 다른 선지보다는 정답이 될 가능성이 낮다. 이를 고려하고 항목 2개 이상을 가져와 설명한 선지 ①, ⑤를 먼저 더욱 집중해서 보는 것은 정답을 조금이라도 빨리 만날 수 있다.

**30. <사회>**

#보기 제시 #3점 #그래프 #최선의 조언 #평가원 이의제기

정답률	선지별 선택비율				
56%	①	②	③	④	⑤
	6%	18%	12%	56%	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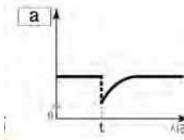
◆정답 ④

㉠(실질 통화량) ㉡(시장 금리) ㉢(환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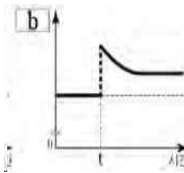
c a b

<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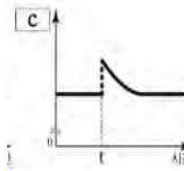
다음 그래프들은 [4문단]에서 <국내 통화량이 t시점에서 증가하여 유지>된 경우 예상되는 ㉠~㉢의 시간에 따른 변화를 순서 없이 나열한 것이다.



㉠에서 일시적인 급락 후 원래로 복구됨 (㉡시장 금리)



㉠에서 일시적인 급등 후 원래보다 높아짐 (㉢환율)



㉠에서 일시적인 급등 후 원래로 복구됨 (㉠실질 통화량)

\*가령 <국내 통화량이 증가하여 유지될 경우>, 물가가 경직적이어서 1)㉠실질 통화량은 증가하고 이에 따라 2)㉡시장 금리는 하락한다.→(㉠실질 통화량과 ㉡시장 금리는 반비례)~이 과정에서 자국 통화의 가치는 하락하고 3)㉢환율은 상승한다.~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물가가 상승하여 4)㉠실질 통화량이 원래 수준으로 돌아오고 해외로 유출되었던 자금이 5)㉡시장 금리의 반등으로 국내로 복귀하면서, [4문단]

\*가령 <국내 통화량이 증가하여 유지>될 경우 장기에서는 자국 물가도 높아져 6)장기의 ㉢환율은 상승한다. [3문단]

▶각 그래프에서 t점 이전과 이후(복구=동일? 상승or하락?)를 비교할 수 있는 감각이 있느냐, 없느냐가 문제 풀이의 관건.

⇒㉠(실질 통화량)은 증가했다가1) 원래 수준으로 돌아오기4) 때문에 그래프 c에 대응된다. 이에 반비례하는 ㉡(시장 금리)는 하락했다가2) 원래 수준으로 돌아오기5) 때문에 그래프 a에 대응된다. 이 과정에서 ㉢환율은 일시적으로도 상승하고3) 장기적으로도 상승하여6) 원래 수준보다 높아지기 때문에 그래프 b에 대응된다.

★최심층의 조언★

위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단순히 국어 독해력뿐만 아니라, 그래프를 해석하고 판단하는 능력까지 필요하다. 각 그래프에서 t점 이전과 이후(복구=동일? 상승or하락?)를 비교할 수 있는 감각이 있느냐, 없느냐가 문제 풀이의 관건인 셈. 우리는 지금까지 공부하면서 국어뿐만 아니라 다른 과목에서 많은 그래프를 접했을 것이다. 그럼에도 그래프를 해석하고 판단하는 정보의 차이는 있을 것이다. 수능 국어는 국어 독해력이 바탕이 된 종합적인 사고 및 이해를 측정하는 시험이라는 것은 염두에 두고 공부하자.

평가원 이의제기

\*<보기>에 오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변화를 나타내는 그래프에서는 조작 변인과 통제 변인이 중요한데 보기에서는 t시점 이전에는 모든 경제변수의 값이 일정하다고 말하지만 t시점 이후에는 국내 통화량 이외의 경제 변수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즉, 통제 변인에 대한 설정이 없는 것이죠, 그러니, 국외 물가가 올라갈 수도 있는 것이고, 국외 시장의 금리가 올라갈 수도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들이 어떤 영향을 줄지는 아무도 모르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문제에는 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특정 상황을 해당 그래프와 대응시키는 문제가 아닙니다. 지문에 제시된 ㉠~㉢의 개념, 특성에 해당하는 문맥을 따라 이에 가장 근접한 그래프에 대응시키면 된다. 그래서 t시점 이후는 시간이라는 변수와 문맥 상황으로도 충분히 정답 ㉣가 정답임을 추론할 수 있다.

\*<보기>에서 '장기 균형으로 수렴되는 기간은 변수마다 상이하 다.' 라고 되어 있는데 세 그래프 모두 '시간'이라는 같은 변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a, b, c 모두 같은 수렴 기간을 가진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본문의 내용과 모순되므로 또한 답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또한 그래프가 모호하여 경제 변수가 그래프의 변화가 줄어드는 시점에 도달하였는지의 유무도 확실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에 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상이하다>는 '서로 다르다'는 의미로 a, b, c 모두 같은 수렴 기간을 가질 수 없다. 그래프가 모호하여 뚜렷하지 않을지라도 ㉠~㉢에 대응되는 상대적인 특성은 뚜렷하기 때문에 선지 ㉣를 정답으로 판단하는 것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

남들 다 맞는 평범한 문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정답률 낮은 고난도 문제의 풀이 과정에 집중해라!

31. <사회>

#사례의 적절성 #평가원 이의제기

정답률	선지별 선택비율				
	①	②	③	④	⑤
67%	7%	6%	67%	12%	8%

정답 ㉢

⇒<미세 조정 정책 수단>으로 <해외 자금 유출과 유입의 통제>는 없다.

오답 풀이

\*오버슈팅의 원인인 물가 경직성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 수단 중 강제성이 낮은 사례로는 외환의 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해 1)관련 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공개하거나,~한편 오버슈팅에 따른 부정적 파급 효과를 완화하기 위해 정부는 환율 변동으로 가격이 급등한 수입 필수 품목에 대한 2)세금을 조절함으로써 내수가 급격히 위축되는 것을 방지하려고 하기도 한다. 또한 환율 급등락으로 인한 피해에 대비하여 수출입 기업에 3)환율 변동 보증을 제공하거나, 외화 차입 시 4)지급 보증을 제공하기도 한다.~이와 같이 정부는 기초 경제 여건을 반영한 환율의 추세를 용인하되, 사전적 또는 사후적인 <미세 조정 정책 수단>을 활용하여 환율의 단기 급등락에 따른 위험으로부터 실물 경제와 금융 시장의 안정을 도모하는 정책을 수행한다. [끝문단]

- ① 예기치 못한 외환 손실에 대비한 환율 변동 보험3)을 수출 주력 중소기업에 제공한다.
- ② 원유와 같이 수입 의존도가 높은 상품의 경우 해당 상품에 적용하는 세율을 환율 변동에 따라 조정2)한다.
- ④ 환율 급등으로 수입 물가가 가파르게 상승했을 때, 수입 대금 지급을 위해 외화를 빌리는 수입 업체에 지급 보증을 제공한다.4)
- ⑤ 수출입 기업을 대상으로 국내의 금리 변동, 해외 투자 자금 동향 등 환율 변동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1)

평가원 이의제기

\*선지 ①에서 '외환 손실'은 '외화량 감소'를 뜻하며, 외화의 가치인 '환율의 상승'을 야기합니다. 환율이 상승하면, 수출이 늘어나 수출 기업에게 긍정적인 현상인데 보증을 제공할 필요가 있나요?

미세 조정 정책 수단은 특정 기업을 위한 것이 아니라 실물 경제와 금융 시장의 전반적인 안정을 위한 것이다. 특정 주체가 아닌, 경제 전반적인 상황으로 이해해야한다. '외환 손실'이 부분적으로 수출 기업에게는 이익이 될지라도 오버슈팅을 일으켜 전반적인 경제 주체들을 위협에 노출시키기에 이에 대비하여 환율 변동 보증을 제공하는 것이다.

나한테 어려우면 내 경쟁자에게도 어렵다  
어려운 문제 하나는 쉬운 문제 열 개의 가치!  
N회독으로 어려운 문제에 무한 애정!!!

32. <어휘>

#바뀌 쓰기

정답률	선지별 선택비율				
	①	②	③	④	⑤
88%	4%	88%	1%	1%	6%

◆정답 ②

\*경제 주체들은 과도한 위험에 ①**노출**될 수 있다.

\*사동형: ~을 시키는 문형

\*노출: 걸로 드러나거나(사동형×) 드러냄(사동형○)

\*위험에 노출되다=위험에 드러나다 (○)

≠위험에 드러나다 (×)

(경제 주체들이 위험에 노출되는 것이지, 위험에 노출시키는 것이 아님)

\*드러내다=드러나다의 사동형

⇒<노출>은 사동형의 의미와 사동형이 아닌 의미로 구분되는데, 문맥적으로 사동형이 아닌 <걸로 드러나다>의 의미를 나타내는 ①<노출>은 사동형 의미를 지닌 <드러냄>로 바뀌 쓸 수 없다.

◆오답 풀이

①

\*환율은 이와 ①**괴리**되어(→서로 어그러져 동떨어질) 움직이는

⇒①: 동떨어져

③

\*투자 자금 유입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③**초래**한다.(→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한다)

⇒③: 불러온다(→어떤 상태를 일어나게 하다)

④

\*해외로 유출되었던 자금이 시장 금리의 반등으로 국내로 ④**복귀**하면서.(→본디의 자리나 상태로 되돌아가면서)

⇒④: 되돌아오면서

⑤

\*실물 경제와 금융 시장의 안정을 ⑤**도모**하는(→어떤 일을 이루기 위해 대책과 방법을 세우는) 정책을 수행한다.

⇒⑤: 꾀하는(→어떤 일을 이루려고 뜻을 두거나 힘을 쓰는)

※33~37

(가) 이정환, <비가>

\*갈래: 연시조

\*성격: 걱정적, 비탄적, 우국적

\*주제: 청나라에 볼모로 붙잡혀 간 두 왕자에 대한 그리움  
국치에 대한 비분강개

\*특징

-작가가 병자호란의 국치를 당한

-병자호란의 치욕에 대한 비통한 마음을 자연물과 인간사를 대비시켜 치욕스러웠던 조선의 현실을 개탄

-부정적 현실에서 오는 답답함을 걱정적 어조로 표현

\*감상의 길잡이

☞ 병자호란 직후에 지어진 총 10수의 연시조이다. 병자호란으로 인하여 조선은 치욕적인 항복을 하고, 당시 소현 세자와 봉림 대군을 포함하여 많은 백성들이 청나라에 붙잡혀 가게 된다. 이러한 현실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을 한탄하며, 작가는 수치심과 비통함, 그리고 두 왕자에 대한 그리움을 작품에 담았다.

반 밤중 혼자 일어 묻노라 이내 꿈(소현세자를 만남)아

만 리 요양(청나라)을 어느덧 다녀온고

반갑다 학가(소현세자) 선객을 친히 뵈 듯하여라

<제1수>

**청나라에 볼모로 잡혀 있는 두 왕자를 그리워함**

박제상(충신) 죽은 후에 님의 시름(임금의 걱정) 알 이 업다

이역 춘궁(청나라에 있는 조선의 왕자)을 누라서 모셔 오리

지금에 치술령 귀훈을(치술령에 맺힌 전설) 못내 슬허호라

<제4수>

**두 왕자를 모셔 오지 못하는, 신하로서의 불충과 개탄**

조정을 바라보니 무신도 하 만하라

신고흔 화친을 누를 두고 흔 것인고

슬프다 조구리(충신) 이미 죽으니 참승홀(호위할)이 업세라

<제6수>

**병자호란의 치욕을 갚기 위한 의로운 장수가 없음을 한탄함**

구중 달 발근 밤의 성려(임금의 염려) 일정 만호려니

이역 풍상에 학가인들 이즐쏘나

이 밖에 억만창생을 못내 분별하시도다 <제7수>

**근심 많은 임금에 대한 걱정**

구렁에 낳는 풀이 봄비에 절로 길어

아는 일(병자호란의 치욕) 업스니 귀 아니 조홀쏘나

우리는 너희만 못하야 시름겨워 호노라(비분강개)

<제8수>

**국치에 대한 비분과 시름**

조그만 이 한 몸이 하늘 밖에 떨어지니(화자의 처지)

오색 구름(길조) 깊은 곳에 어느 것이 서울인고

바람에 지나는 검불(낙엽) 갖하야 갈 길 몰라 호노라 <제9수>

**연군지정과 자괴감**

<현대어 풀이>

<제1수>

한밤중에 혼자 일어나 스스로에게 묻노라, 이내 꿈아  
만 리나 먼 요양을 어느 사이에 다녀왔는가  
반갑도다. 학을 타신 신선을 친히 뵈 듯하도다.

<제4수>

박제상이 죽은 후에는 더 이상 왕가의 근심을 걱정하는 사람  
이 없구나  
이역만 리 떨어진 곳의 왕세자를 누가 감히 모셔오리  
이즈음 치술령에 맺힌 전설을 내내 슬퍼하노라

<제6수>

조정을 바라보니 무신들이 많기도 많구나  
어렵고 치욕스러운 화친은 누구를 위해 한 것인가  
슬프다. 조구리가 이미 죽었으니 참승할 사람이 없구나

<제7수>

구중궁궐 달 밝은 밤에 우리 임금의 근심이 정말 많으려니  
멀리 오랑캐 땅의 왕자를 잊을소나  
그 외에도 억만창생 백성들을 못내 걱정하시는구나

<제8수>

골짜기에 나있는 풀은 봄비에 저절로 길어  
애통해 할 일이 없으니 그 아니 좋을 쓰나  
우리는 사람이 되어 너희만 못하니 시름겨워 하노라

<제9수>

조그만 이 한 몸이 하늘 밖에 떨어지니  
오색구름 깊어진 곳 어디가 서울인가  
바람에 이리저리 구르는 검불같이 갈 길 몰라 하노라

(나) 이병기, <풍란>

- \*갈래: 수필
- \*성격: 예찬적
- \*주제: 난초의 청초함과 고결한 기품 예찬

- \*구성
- 1~3문단: 글쓴이가 난을 길러 온 과정
- 4~6문단: 난에 대한 글쓴이의 각별한 애정

- \*특징
- 난초의 고결한 기품을 예찬함
- 작가가 체득한 난의 일반적 생태를 담담하게 풀어냄
- 설의적 표현을 사용해 난을 기르는 만족감과 자부심을 표현함
- 난을 통해 세속적 가치를 경계하고 청아한 정신세계를 구축함

\*감상의 길잡이

이 작품은 글쓴이가 난과 함께 수십 년을 살아오면서 느낀  
교감을 표현한 수필이다. 글쓴이는 자신의 생활과 난을 관련시  
키고, 난을 돌 볼 수 없었던 시기의 역사적 사건들을 기술하여  
개인사의 시련과 고통을 난의 시련과 결부하고 있다. 이러한  
개인적 체험을 바탕으로 글쓴이는 난이 지는 기품과 향을 담  
담하게 서술하며, 정신세계이자 고결한 인간적 면모를 상징하  
는 난을 통해 정신적 삶의 소중함을 일깨우고 있다.

이전 서울 계동 홍신허골에서 살 때 일어났다. 휘문 중학교의 교편을 잡고, 독  
서, 작시(作詩)도 하고, 고서도 사들이고, 그 틈으로써 난을 길렀던 것이다. 한가  
롭고 자유로운 맛은 몹시 바쁜 가운데에서 깨닫는 것이다. 원고를 쓰다가 밤을  
새우기도 왕왕 하였다. 그러하면 그럴수록 난의 위안이 더 필요하였다. 그 푸  
른 잎을 보고 방렬(芳烈)한 향을 맡을 순간엔, 문득 환희의 별유세계(別有世界)  
에 들어 무아무상의 경지에 도달하기도 하였다.

바쁜 생활 속에서 난으로부터 받는 위안

그러다가 조선어 학회 사건에 피검되어 홍원·함흥서 2년 만에 돌아와 보니 난  
은 반수 이상이 죽었다. 그해 여산으로 돌아와서 십여 분을 간신히 살렸다. 갑  
자기 8·15 광복이 되자 나는 서울로 또 가 있었다. 한 겨울을 지내고 와 보니  
난은 모두 죽었고, 겨우 뿌리만성한 것이 두어 개 있었다. 그걸 서울로 가지고  
가 또 살려 잎이 돌아나게 하였다. 건란(建蘭)과 춘란(春蘭)이다. 춘란은 중국  
춘란이 진기한 것이다. 꽃이나 보려 하던 것이, 또 6·25 전쟁으로 피란하였다가  
그 다음 해 여름에 가 보니, 장독대 옆 풀밭 속에 그 고해(枯骸)만 엉성하게 남  
아 있었다.

여러 일로 난을 돌보지 못해 고해만 엉성하게 남은 난

그 후 전주로 와 양사재에 있으면, 소공(素空)이 건란 한 분을 주었고, 고경선  
군이 제주서 풍란 한 등걸을 가지고 왔다. 풍란에 웅란(雄蘭)-자란(雌蘭) 두 가지  
가 있는데, 자란은 이왕 안서(岸曙) 집에서 보던 것으로서 잎이 넓적하고, 웅란  
은 잎이 좁고 빼어났다. 물을 자주 주고, 겨울에는 특히 옹호하여, 자란은 네 잎  
이 돌고 웅란은 다복다복하게 길었다. 벌써 네 해가 되었다.

새로 난을 받아 다복다복하게 돌봄

십여 일 전 나는 바닷길을 먹고 중독되어 객란(霍亂)이 났다. 5, 6일 동안  
미음만 마시고 인삼 몇 뿌리 달여 먹고 나왔으니, 그래도 병석에 누워 더 조리  
하였다. 책도 보고, 시도 생각해 보았다. 풍란은 곁에 두었다. 하얀 꽃이 몇 송  
이 벌었다. 방렬(芳烈)한 향이 움직이고 있다. 나는 밤에도 자다가 깨었다.  
그 향을 맡으며 이렇게 생각을 하여 등불을 켜고 노트에 적었다.

아픈 몸으로 꽃을 피운 난을 보고 심회를 노트에 기록함

잎이 뾰뾰하고도 오히려 영롱(玲瓏)하다  
썩은 향나무 껍질에 옥(玉) 같은 뿌리를 서려 두고  
청량(淸涼)한 물기를 머금고 바람으로 사노니

꽃은 하얗고도 어린 자연(紫煙) 빛이다  
높고 조촐한 그 품(品)이며 그 향(香)이  
숲속에 숨겨 있어도 아는 이는 아노니

완당 선생이 한묵연(翰墨緣)이 있다듯이 나는 난연(蘭緣)이 있고 난복(蘭福)이  
있다. 당외자, 계수나무도 있으나, 이 웅란에는 백중(伯仲)할 수 없다. 이 웅란은  
난 가운데에도 가장 진귀하다.

난연에 대한 예찬

‘간죽하수문주인(看竹何須問主人)\*’이라 하는 시구가 있다. 그도 그럴듯하다.  
나는 어느 집에 가 그 난을 보면, 그 주인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겠다. 고서도  
없고, 난도 없이 되짚은 서화나 붙여 놓은 방은, 비록 화려 광활하다 하더라도  
그건 한 요릿집에 불과하다. 두실 와옥(斗室蜗屋)\*이라도 고서 몇 권, 난 두어  
분, 그리고 그 사이 술이나 한 병을 두었다면 삼공(三公)을 바꾸지 않을 것 아  
닌가! 땀은 육체나 기를 따름이지만 난은 정신을 기르지 않는가!

정신적 가치를 지닌 난을 예찬하면서 자부심을 가짐

국어는 기출이 진리요  
N회독은 필수다

33. <고전시가+ 수필>

#냉소적\_자조적 #한탄 #회의적

정답률	선지별 선택비율				
	①	②	③	④	⑤
87%	87%	4%	3%	2%	4%

◆정답 ①

(가)

\*반 밤중 혼자 일어 문노라 1)이내 꿈아

만 리 요양을 어느덧 다녀온고

2)반갑다 학가\* 선객을 친히 빈 듯허여라 <제1수>

\*학가: 세자가 탄 수레. 또는 세자. 여기서는 3)병자호란에서 패배하여 심양에 잡혀간 소현 세자를 가리킴.

\*이역 춘궁을 4)뉘라서 모셔 오리\_<제4수>

\*우리는 너희만 못하야 5)시름겨워 흐노라 <제8수>

\*바람에 지나는 검불 갖하야 6)갈 길 몰라 흐노라 <제9수>

⇒(가)에는 병자호란에서 패배하여 심양에 잡혀간 소현 세자를 3) 모셔 오지 못하고4) 꿈에서나 만나야하는,1~2) 해소하기 어려운 문제적 상황에 당면하여 고쳐하는 태도가 드러나 있다.5~6)

◆오답 풀이

② [정답 근거 지문 참고]

⇒(가)에는 병자호란으로 치욕적인 일을 당한 것에3) 비통해하고 고쳐하는 모습이 있을 뿐,5~6) 자신의 나약함을 극복하고자 하는 태도가 드러나 있는 것은 아니다.

③

(나)

\*1)원고를 쓰다가 밤을 새우기도 왕왕 하였다. 그러하면 그러할 수록 난의 위안이 더 필요하였다. 그 푸른 잎을 보고 방렬한 향을 맡을 순간엔, 문득 환희의 별유세계에 들어 무아무상의 경지에 도달하기도 하였다. [1문단]

\*2)땀은 육체나 기를 따름이지만 난은 정신을 기르지 않는가! [끝문단]

⇒(나)에는 작가는 어려운 환경에서 난으로부터 위안을 받거나 1) 난을 예찬하는 태도는 있어도,2) 인간의 유한한 삶에 대해 한탄하는 태도가 드러나 있는 것은 아니다.

▶<한탄>은 주로 과거의 후회와 관련됨!

④

⇒(나)에서 작가는 ‘조선어 학회 사건에 피검’, ‘6.25 전쟁 피난’, ‘바닷게로 인한 중독’등 고난의 순간마다 난과 함께 어려움을 겪었지만 <냉소적인 태도>가 드러나 있는 것은 아니다.

<냉소 vs 자조>

\*냉소적 태도: 쌀쌀한 태도로 남을 비웃는 태도.

\*자조적 태도: 자기를 비웃는 듯한 태도.

⑤

⇒(가)에는 치욕적인 역사적 상황이 화자가 바라는 삶과 거리가 있기 때문에 고쳐하고 회의적인 태도가 나타나지만, (나)에는 고난과 시련을 함께 해 준 난에 대한 고마움과 예찬의 마음을 드러내고 있으므로 삶에 대한 회의적인 태도가 드러난다고 볼 수 없다.

\*회의적: 어떤 일에 의심을 품는.

34. <고전시가+ 수필>

#3점 #감상

정답률	선지별 선택비율				
	①	②	③	④	⑤
88%	3%	3%	88%	3%	3%

◆정답 ③

(가)

1)조그만 이 한 몸이 하늘 밖에 떨어지니

2)오색 구름 깊은 곳에 어느 것이 서울인고

바람에 지나는 검불 갖하야 갈 길 몰라 흐노라 <제9수>

⇒(가)는 자신의 ‘몸’이 하늘 밖에 떨어진 상황을 설정하여,1) 현실의 문제를 관련지어 고쳐하는 것이지,2) 현실의 문제를 떠나 고통을 잠시라도 잊으려는 것은 아니다.

고전시가에서 현실의 문제를 떠나 고통을 잠시라도 잊으려는 행위는 주로 세속을 떠나 자연 속으로 은거하는 삶과 많이 관련된다.

◆오답 풀이

①

(가)

반 밤중 혼자 일어 문노라 1)이내 꿈아

만 리 요양을 어느덧 다녀온고

반갑다 2)학가\* 선객을 친히 빈 듯허여라 <제1수>

\*학가: 세자가 탄 수레. 또는 세자. 여기서는 병자호란에서 패배하여 심양에 잡혀간 3)소현 세자를 가리킴.

⇒(가)는 ‘학가 선객’을 ‘꿈’에서나마 본 일을 언급함으로써1~2) 그를3) 만나고 싶어 하는 화자의 소망을 드러내고 있다.

②

(가)

1)박제상\* 죽은 후에 님의 시름 알 이 업다

2)이역 춘궁을 뉘라서 모셔 오리

3)지금에 치술령 귀흔을 못내 슬허흐노라 <제4수>

\*박제상: 4)신라의 충신. 왕의 아우가 왜에 볼모로 잡히자 그를 구하고 자신은 희생됨.

⇒(가)는 '박제상'이 살았던 시대와 대비함으로써 1) 그와 같은 충신을 4) 찾기 어려운 시대적 상황에 2) 대한 화자의 안타까움을 드러내고 있다. 3)

④

(나)

\*1)그러다가 조선어 학회 사건에 피검되어 흥원·함흥서 2년 만에 돌아와 보니 난은 반수 이상이 죽었다. 2)그해 여산으로 돌아와서 심여 분을 간신히 살렸다. 갑자기 3)8·15 광복이 되자 나는 서울로 또 가 있었다. 한 겨울을 지내고 와 보니 난은 모두 죽었고, 겨우 뿌리만 성한 것이 두어 개 있었다. 4)그걸 서울로 가지고 가 또 살려 잎이 돌아나게 하였다. [2문단]

⇒(나)는 역사적 상황에 따른 작가의 행적과 '난'의 생사를 관련지어 언급함으로써 1,3) '난'에 대한 작가의 애착을 드러내고 있다. 2,4)

⑤

(나)

\*1)<두실 와옥>이라도 고서 몇 권, 난 두어 분, 그리고 그 사이 술이나 한 병을 두었다면 삼공을 바꾸지 않을 것 아닌가! 빵은 옥체나 기를 따름이지만 2)난은 정신을 기르지 않는가! [끝문단]

\*두실 와옥: 몹시 작고 누추한 집.

⇒(나)는 <두실 와옥>에 사는 사람이라도 만족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해 주는 '난'을 통해 1) 작가가 지향하는 정신적 가치를 드러내고 있다. 2)

### 35. <고전시가>

#경외감

정답률	선지별 선택비율				
92%	①	②	③	④	⑤
	2%	2%	2%	2%	92%

◆정답 ⑤

구령에 났는 ①풀이 1)봄비에 절로 길어  
2)아는 일 업스니 귀 아니 조홀쏘나  
3)우리는 너희만 못하야 시름겨워 흐노라 <제8수>

조그만 4)이 한 몸이 하늘 밖에 떨어지니  
오색 구름 깊은 곳에 어느 것이 서울인고  
5)바람에 지나는 ㉠검불\* 갖하야 갈 길 몰라 흐노라 <제9수>

\*검불: 마른 나뭇가지나 낙엽 따위.

⇒자연의 순리대로 자라나는 ①<풀>은 1) 치욕적인 화자의 처지

와 대비되는 소재로, 3) 나무에서 떨어지는 ㉠<검불>은 5) 하늘 밖에 떨어지지는 4) 화자의 처지와 동일시되는 소재로 제시되고 있다.

◆오답 풀이

① [정답 근거 지문 참고]

⇒①<풀>은 화자와 대비되어 근심이 없음을 드러내는 소재이고, 2~3) ㉠<검불>은 화자가 혼란의 역사적 상황에서 갈피를 잡지 못하는 자신과 동일시하는 소재이므로 4~5) 모두 화자가 경외감을 가지고 바라보는 소재는 아니다.

\*<경외감>: 존경+두려움으로 긍정도 부정도 아닌 중립적인 이미지의 어휘이다.

②

⇒①<풀>과 ㉠<검불>은 모두 시간이 흘러 자라거나 떨어진 것이지만 이로 인해 화자의 치욕적인 처지가 부각되는 것일 뿐, 인생의 무상함을 느끼게 하는 소재는 아니다.

③ [정답 근거 지문 참고]

⇒①<풀>은 화자의 처지와 대비되어 3) 화자의 울분을 심화하는 소재로 볼 수 있으나, ㉠<검불>은 화자의 처지와 동일시되는 소재이지, 4~5) 울분을 완화하는 소재로 활용되는 것은 아니다.

④

⇒화자는 전란 후의 치욕적 상황을 이미 인식하고 있으므로 ①<풀>이 현재의 상황에 대한 인식의 계기가 되는 것은 아니고, ㉠<검불>은 현재의 화자 자신을 비유적으로 드러내는 소재이지, 과거의 사건에 대한 회고의 계기가 된 소재가 아니다.

### 36. <고전시가>

#대립 선지의 법칙 #보기 제시 #이해 #최솟값의 조건

정답률	선지별 선택비율				
83%	①	②	③	④	⑤
	2%	2%	8%	5%	83%

◆정답 ⑤

\*구중 <달 발근 밤>의 성령\* 일정 만흐려니 <제7수>  
\*구령에 났는 풀이 <봄비>에 절로 길어 <제8수>  
\*성령: 1)임금의 염려.

⇒<제7수>의 <달 발근 밤>은 임금이 잠을 자지 못하고 염려하는 1) 시간적 배경이고 <봄비>는 화자의 처지와 대비되는 풀을 자라게 하는 소재일 뿐이다. 부정적 현실이 개선되리라는 화자의 전망이나 기대와는 거리가 멀다.

◆오답 풀이

①

\*반 밤중 혼자 일어 문노라 이내 1)꿈아  
만 리 요양\*을 <어느덧 다녀온고>  
반갑다 학가\* 선객을 친히 뵈 듯하야라 <제1수>



\*박제상 죽은 후에 님의 시름 알 이 업다  
이역 춘궁을 <누리라서 모셔 오리> <제4수>

\*요양: 2)청나라의 심양.

\*학가: 세자가 탄 수레. 또는 세자. 여기서는 병자호란에서 패배하여 심양에 잡혀간 3)소현 세자를 가리킴.

⇒<제1수>의 <어느덧 다녀온고>는 화자가 꿈속에서 청나라 심양에 있는 소현 세자에게1~3) 갔다 온 것이고 <제4수>의 <누리라서 모셔 오리>는 청나라에 잡혀 있는 세자를2~3) 모셔 오기를 바라는 마음이 나타나 있다. 그래서 잡혀간 세자를 그리는 화자의 마음이 투영되어 있다는 선지 ①은 적절한 이해이다.

②

\*1)박제상\* 죽은 후에 <님의 시름> 2)알 이 업다 <제4수>  
\*슬프다 <조구리> 이미 죽으니 참승홀\*이 업세라 <제6수>

\*박제상: 3)신라의 충신. 왕의 아우가 왜에 볼모로 잡히자 그를 구하고 자신은 희생됨.

\*조구리: 조씨 성을 가진 마부. 4)충신을 가리킴.

\*참승홀: 5)높은 이를 호위하여 수레에 같이 탈.

⇒<제4수>에서 충신이었던 박제상이 죽은 후,1,3) 아무도 알리지 못하는2) <님의 시름>에 대해, <제6수>의 충신인4) <조구리>와 같이 세자를 호위할5) 인물이 없는 현실에 처한 화자는 애석함(슬프고 아까움)을 느끼고 있다.

③

\*조정을 바라보니 <무신>도 1)하 만하라  
2)<신고훈 화친> 누를 두고 훈 것인고 <제6수>

\*구중 달 발근 밤의 성려(영려) 일정 만호려니  
<이역 풍상>에 학가인들 이즐쏘냐 <제7수>

⇒<제6수>에서 조정에 많은 <무신>이 남아 있음에도1) 화친을 하여 어려움(신고-辛苦)에 처해 있음을 한탄하고 있다.2) 그래서 <신고훈 화친>을 맺은 결과로 <제7수>에서 세자가 <이역 풍상>을 겪는다고 화자는 판단하고 있다.

☞성려(영려)라는 부정적 맥락 뒤에 이어진 <이역 풍상>도 역시 부정적 의미라는 것을 판단할 수 있다. 이와 같이 고전문학에서 고어나 한자의 정확한 의미를 몰라도 문맥적 의미는 어느 정도 파악이 가능하다. 하지만 다음은 어휘 자체의 의미를 알고 있어야 한다.

\*고어 <하다>: 많다 혹은 do

\*한자 신고(辛苦): 맵고 씁→어려운 처지

★최샘의 조언★

위와 같이 배경 지식으로써 꼭 알고 있어야 하는 고어나 한자성어 등이 있는데, 이를 일일이 찾아서 공부하는 것보다 기출 교

재를 통해 한 번씩 나올 때마다 주의 깊게 살펴보고 N회독으로 계속 잊지 않게 눈으로 익혀두는 것이 좋다. 총만국 교재에 수록된 기출 지문의 내용만으로도 충분하니 적극적으로 N회독을 하자!

④

\*<구중> 달 발근 밤의 성려 일정 만호려니 <제7수>  
\*오색 구름 깊은 곳에 1)어느 것이 <서울>인고 <제9수>  
\*성려: 2)임금의 영려.

⇒<제7수>에서 근심에 싸여 있는 <구중>의 임금을2) 떠올렸던 화자는 <제9수>에서는 <서울>을 찾지 못해1) 애태우고 있다.

★문학 문제 풀이에서 <보기>가 제시된 문제가 있다면, <보기>를 먼저 읽고 지문을 읽는 것이 좋다. <보기>가 지문에 대한 감상의 길잡이나 특성을 제시하기 때문에 지문 이해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대립 선지의 법칙★ (자세한 내용 3쪽~ 참고)

\*위 문제를 화자의 태도가 긍정/부정에 따라 나눌 때, 선지 (⑤↔②,③,④) 1대3 대립을 이룬다.

② ~현실에 처한 화자는 애석함을 느끼고 있다.→(부정)

③ ~'이역 풍상'을 겪는다고 화자는 판단하고 있다.→(부정)

④ ~'서울'을 찾지 못해 애태우고 있다.→(부정)

⑤ ~화자의 전망과 기대가 담겨 있다.→(긍정)☞(☆정답)

그래서 지문 및 발문과 상관없이 1의 비율인 선지 ⑤가 정답이 될 가능성은 90%이상이다.

37. <수필>

#대립 선지의 법칙 #맥락 고려 #감상

정답률	선지별 선택비율				
	①	②	③	④	⑤
80%	80%	2%	6%	6%	6%

◆정답 ①

(나)

\*고서도 없고, 1)난도 없이 되잖은 서하나 붙여 놓은 방은, 비록 2)화려 광활하다 하더라도 그건 한 요릿집에 불과하다. 3)두실 와옥\*이라도 고서 몇 권, 난 두어 분, 그리고 그 사이 술이나 한 병을 두었다면 삼공을 바꾸지 않을 것 아닌가! [끝문단]

\*두실 와옥: 4)몹시 작고 누추한 집.

⇒난도 없이 화려하고 광활한 분위기가 생기는 것으로 보아,1~2) <화려함과 광활함>은 난 때문에 생기는 것이 아니다. 다시 말해서, 난은 <화려함과 광활함>과는 어울리지 않는, 즉 상관성이 없는 것이다. 오히려 난은 작고 누추한 곳에 어울린다.3~4) 그래서 난의 일부인 <옥 같은 뿌리>가 <화려 광활>한 이미지를 지닌다는 선지 ①은 (나)의 맥락을 고려한 감상으로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②

(나)

\*1)풍란은 곁에 두었다. 하얀 꽃이 몇 송이 벌었다. 방렬.청상한 향이 움직이고 있다. 나는 밤에도 자다가 깨었다. 그 2)향을 맡으며 이렇게 생각을 하여 등불을 켜고 노트에 적었다. [4문단]

⇒<풍란>의 향을 맡으며 [A]를 창작하였음을2) 밝히는 것으로 보아, [A]의 <높고 조출한 그 품이며 그 향>은 <풍란>의 속성을 드러낸 것으로, 작가가 <풍란>을 곁에 두고자 하는1) 이유로 볼 수 있다.

③

[A]

1)높고 조출한 그 품이며 그 향이 숲속에 숨겨 있어도 <아는 이>는 아노니

\*완당 선생이 한목연이 있다듯이 2)나는 난연이 있고 난복이 있다. [5문단]

\*3)나는 어느 집에 가 그 난을 보면, 그 주인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겠다. [끝문단]

⇒[A]의 <아는 이>는 <풍란>의 가치1) 볼 수 있는 안목을 갖춘 사람으로, '난연'과 '난복'이 있다고 생각하는 작가도2) 난을 통해 사람을 판단할 수 있기3) 때문에 <아는 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④

\*그러하면 그러할수록 1)<난>의 <위안>이 더 필요하였다. [1문단]

\*5, 6일 동안 미음만 마시고 인삼 몇 뿌리 달여 먹고 나왔으며, 그래도 2)<병석>에 누워 더 조리하였다.~3)<풍란>은 곁에 두었다.~4)그 향을 맡으며 이렇게 생각을 하여 등불을 켜고 노트에 적었다. [4문단]

⇒[A]는 평소 <난>을 통해 <위안>을 얻던1) 작가가 <병석>에 누워 조리할 때2) <풍란>에서 영감을 얻어서 창작한 것으로 볼 수 있다.3~4)

평가원 이의제기

\*[나]를 보면 '나'라는 시적 화자가 <병석에 누워 조리---향이 움직임-- 밤에 자다가 깬---향을 맡음--영감을 얻음>의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선지 4에서처럼 병석에서 조리할 때 얻은 영감이 아닌 밤에서 자다가 깨어 향을 맡으며 영감을 얻었다고 표현해야 맞습니다. 그 뒤의 내용을 보아도 조리가 끝났거나 어느 시점으로 이동한다는 명시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향을 맡을 당시 조리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조리>는 <건강이 회복되도록 몸을 보살피고 병을 다스림>이다. 지문에서 <5, 6일 동안 미음만 마시고 인삼 몇 뿌리 달여 먹고 나왔으며, 그래도 병석에 누워 더 조리하였다>에서 병은 나왔지만 <더 조리하였다>는 것을 통해 그 이후의 상황은 조리하는 과정 중에 일어난 것임을 말한다. 그래서 <책도 보고, 시도 생각해 보았다. 풍란은 곁에 두었다. 하얀 꽃이 몇 송이 벌었다. 방렬.청상한 향이 움직이고 있다. 나는 밤에도 자다가 깨었다. 그 향을 맡으며 이렇게 생각을 하여 등불을 켜고 노트에 적었다>라는 행위도 조리를 더 하는 상황 중에 일어난 것으로 볼 수 있다.

⑤

[A]

잎이 뺏뺏하고도 오히려 영롱하다  
썩은 향나무 껍질에 옥 같은 뿌리를 서려 두고  
청량한 물기를 머금고 바람으로 사노니

꽃은 하얗고도 여린 자연 빛이다  
높고 조출한 그 품이며 그 향이  
숲속에 숨겨 있어도 아는 이는 아노니

⇒[A]는 (역사적 사건 속에서도) '난'과 함께한 작가의 정신세계를 함축적으로 제시하는 한편, '풍란'에 대한 예찬적(영롱, 옥 같은, 높고 조출한) 태도를 드러낸다고 볼 수 있다.

☞시는 함축성을 바탕으로 한 문학의 갈래이기 때문에 [A]의 함축성 여부를 굳이 따져볼 필요는 없다. 그리고 단 한번이라도 대상에 대해 대한 칭찬하는 것이 있다면, 예찬적 태도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대립 선지의 법칙★ (자세한 내용 3쪽~ 참고)

\*위 문제는 선지 ①, ②에서 대상의 이미지가 대립을 이룬다.

①~'화려 광활'한 이미지를~→(☆정답)

② [A]의 '높고 조출한 그 품이며 그 향'은~

그래서 선지 ①, ②중 정답이 있을 가능성은 70%이상이다.

※수필의 특성에 대해 알아보자!

- 1) 무형식의 형식
- 2) 비전문적인 글
- 3) 개성의 문학
- 4) 고백의 문학
- 5) 소재의 다양성
- 6) 1인칭적인 문학-글쓴이의 생각과 느낌을 솔직하게 드러냄

그냥 문제 풀고

그냥 답 맞추고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

항상 어떻게 하면 신속하고 정확하게 문제를 풀까 끊임없이 고민하는 과정에서 점수는 오른다.

※38~42, <데이터의 부호화 과정>

① 1디지털 통신 시스템은 송신기, 채널, 수신기로 구성되며, 전송할 데이터를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부호화 과정을 거쳐 전송한다. 2영상, 문자 등인 데이터는 기호 집합에 있는 기호들의 조합이다. 3예를 들어 기호 집합 {a, b, c, d, e, f}에서 기호들을 조합한 add, cab, beef 등이 데이터이다. 4정보량은 어떤 기호가 발생했다는 것을 알았을 때 얻는 정보의 크기이다. 5어떤 기호 집합에서 특정 기호의 발생 확률이 높으면 그 기호의 정보량은 작고, 발생 확률이 낮으면 그 기호의 정보량은 크다. 6기호 집합의 평균 정보량을 기호 집합의 엔트로피라고 하는데 모든 기호들이 동일한 발생 확률을 가질 때 그 기호 집합의 엔트로피가 최대값을 갖는다.

데이터, 정보량, 엔트로피의 개념

② 1송신기에서는 소스 부호화, 채널 부호화, 선 부호화를 거쳐 기호를 부호로 변환한다. 2소스 부호화는 데이터를 압축하기 위해 기호를 0과 1로 이루어진 부호로 변환하는 과정이다. 3어떤 기호가 110과 같은 부호로 변환되었을 때 0 또는 1을 비트라고 하며 이 부호의 비트 수는 3이다. 4이때 기호 집합의 엔트로피는 기호 집합에 있는 기호를 부호로 표현하는 데 필요한 평균 비트 수의 최솟값이다. 5전송된 부호를 수신기에서 원래의 기호로 복원하려면 부호들의 평균 비트 수가 기호 집합의 엔트로피보다 크거나 같아야 한다. 6기호 집합을 엔트로피에 최대한 가까운 평균 비트 수를 갖는 부호들로 변환하는 것을 엔트로피 부호화라 한다. 7그중 하나인 허프만 부호화에서는 발생 확률이 높은 기호에는 비트 수가 적은 부호를, 발생 확률이 낮은 기호에는 비트 수가 많은 부호를 할당한다.

송신기에서의 부호화: 소스 부호화

③ 1채널 부호화는 오류를 검출하고 수정하기 위하여 부호에 잉여 정보를 추가하는 과정이다. 2송신기에서 부호를 전송하면 채널의 잡음으로 인해 오류가 발생하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잉여 정보를 덧붙여 전송한다. 3채널 부호화 중 하나인 삼중 반복 부호화는 0과 1을 각각 000과 111로 부호화한다. 4이때 수신기에서는 수신된 부호에 0이 과반수인 경우에는 0으로 판단하고, 1이 과반수인 경우에는 1로 판단한다. 5송신기에서 수신된 부호가 000, 001, 010, 100 중 하나라면 0으로 판단하고, 그 이외에는 1로 판단한다. 6이렇게 하면 000을 전송했을 때 하나의 비트에서 오류가 생겨 001을 수신해도 0으로 판단하므로 오류는 정정된다. 7채널 부호화를 하기 전 부호의 비트 수를, 채널 부호화를 한 후 부호의 비트 수로 나눈 것을 부호율이라 한다. 8삼중 반복 부호화의 부호율은 약 0.33이다.

송신기에서의 부호화: 채널 부호화

④ 1채널 부호화를 거친 부호들을 채널을 통해 전송하면 부호들을 전기 신호로 변환해야 한다. 20 또는 1에 해당하는 전기 신호의 전압을 결정하는 과정이 선 부호화이다. 3전압의 결정 방법은 선 부호화 방식에 따라 다르다. 4선 부호화 중 하나인 차동 부호화는 부호의 비트가 0이면 전압을 유지하고 1이면 전압을 변화시킨다. 5차동 부호화를 시작할 때는 기준 신호가 필요하다. 6예를 들어 차동 부호화 직전의 기준 신호가 양(+)의 전압이라면 부호 0110은 '양, 음, 양, 양'의 전압을 갖는 전기 신호로 변환된다. 7수신기에서는 송신기와 동일한 기준 신호를 사용하여, 전압의 변화가 있으면 1로 판단하고 변화가 없으면 0으로 판단한다.

송신기에서의 부호화: 선 부호화

★문단별 요약★

- ①
- \*디지털 통신 시스템: 송신기, 채널, 수신기로 구성
- \*부호화 과정: 데이터를 빠르고 정확히 전달
- \*데이터: 기호 집합에 있는 기호들의 집합
- \*정보량: 기호 발생을 인지할 때 얻는 정보의 크기
- \*기호 발생 확률과 정보량은 반비례

- \*엔트로피: 기호 집합의 평균 정보량
- \*엔트로피의 최대값: 모든 기호들이 동일한 발생 확률일 때
- ②
- \*송신기에서의 기호 부호화 변환 과정:  
소스 부호화, 채널 부호화, 선 부호화
- \*소스 부호화: 기호를 0과 1로 변환→데이터 압축
- \*엔트로피: 기호를 부호로 표현하는데 필요한 평균 비트 수의 최솟값→(평균 비트 수가 엔트로피보다 크거나 같으면 전송된 기호가 원래의 기호로 복원됨)
- \*엔트로피 부호화: 기호 집합을 엔트로피에 최대한 가까운 평균 비트 수를 갖는 부호들로 변환.
- \*허프만 부호화: 발생 확률이 높은 기호에는 비트 수가 적은 부호를, 발생 확률이 낮은 기호에는 비트 수가 많은 부호를 할당.
- ③
- \*채널 부호화: 채널 잡음→오류 발생→부호에 잉여 정보를 추가→오류를 검출, 정정
- \*삼중 부호화: 0→000, 1→111  
-0이 과반수인 경우: 0으로 판단→오류 정정  
-1이 과반수인 경우: 1으로 판단→오류 정정
- \*부호율=(채널 부호화 전, 부호의 비트 수)÷(채널 부호화 후, 부호의 비트 수)
- ④
- \*채널 부호화를 거친 부호들은 전기 신호로 변환 후 채널을 통해 전송.
- \*선 부호화: 0 또는 1에 해당하는 전기 신호의 전압을 결정하는 과정.
- \*차동 부호화: 부호의 비트가 0→전압을 유지  
부호의 비트가 1→전압 변화  
(전압의 변화가 있으면: 1, 전압의 변화가 없으면: 0으로 판단)

지문에 적절한 밑줄과 도형 표시를 꼭 해라  
독해&문제 풀이에 도움이 될 것이다

★지문 보충 해설★

- ①
- 1
- '송신기', '채널', '수신기'처럼 기술 지문에서 구성 요소가 나오면 각 구성 요소별로 글이 전개될 수 있음에 유의하자.
- 3
- 예시는 앞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충하는 것이기 때문에 앞 내용이 어렵지 않다면 슬쩍 넘겨 읽어도 좋다.
- 5
- 비례 관계는 선지의 정/오 판단의 근거로 자주 활용된다. (화살표로 시각적 효과를 극대화하자)
- ②
- 1
- 부호화의 종류별로 글이 전개될 것임을 예측해 볼 수 있다.

2  
 '~부호로 변환하는 과정'처럼 기술 지문에서 과정을 예시하면 과정의 순서에 유의하자. 순서를 바꾸거나 주체와 대상을 바꿔 치기한 부적절 선지가 출제되기 마련이다.

4.7  
 '이때', '여기서', '이와 같이', '이러한', '그중' 처럼 이전 내용의 흐름을 이어가는 지시 대명사에는 > 표시가 적절하다.  
 [3]-4,6도 마찬가지

3  
 5  
 '즉'은 앞의 내용을 한 번 더 쉽게 정리해 준다.

7  
 수식이 정리되는 내용은 문제할 될 가능성이 높다.

4 5  
 실전에서 첫 독해시, 예시가 이해 안 간다고 너무 집착하지 말자. 전체 흐름과 핵심을 파악한 뒤 문제 풀이 시, 그때 다시 살펴봐도 늦지 않다.

**★인강 연동 (1:21:33~)**



\*QR리더(스캐너)어플을 사용하거나 네이버 어플 검색창 맨 오른쪽에 카메라 그림을 클릭하여 QR코드를 클릭!  
 \*위의 타임라인을 참고하세요.

38. <기술>

정답률	선지별 선택비율				
	①	②	③	④	⑤
74%	7%	74%	7%	7%	5%

◆정답 ②

\*전송된 1)<부호>를 <수신기>에서 원래의 <기호>로 복원하려면 부호들의 평균 비트 수가 기호 집합의 엔트로피보다 크거나 같아야 한다. [2문단]

⇒<수신기>에는 <부호>를 <기호>로 복원하는 기능이 있다.1)

◆오답 풀이

①

\*1)<소스 부호화>는 데이터를 <압축>하기 위해 기호를 0과 1로 이루어진 부호로 변환하는 과정이다. [2문단]

⇒영상 데이터는 <소스 부호화> 과정에서 <압축>된다.

③

\*채널 부호화는 1)오류를 검출하고 정정하기 위하여 부호에 <잉여 정보>를 추가하는 과정이다. [3문단]

⇒<잉여 정보>는 데이터를 압축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류를 검출하고 정정하기 위하여 추가한 정보이다.1)

④

\*디지털 통신 시스템은 송신기, 채널, 수신기로 구성되며, 1)전송할 데이터를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부호화 과정>을 거쳐 전송한다. 2)영상, 문자 등인 데이터는 기호 집합에 있는 기호들의 조합이다. [1문단]

\*3)송신기에서 부호를 전송하면 채널의 <잡음>으로 인해 오류가 발생하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잉여 정보를 덧붙여 전송한다. [3문단]

⇒송신기에서 부호를 전송하면 채널의 <잡음>으로 인해 오류가 발생한다.3) 마찬가지로 기호 집합에 있는 기호들의 조합인 영상을2) 전송할 때에도 <부호화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1) 이때 잡음으로 인한 오류가 발생한다.

⑤

\*1)<채널 부호화>는 오류를 검출하고 정정하기 위하여 부호에 잉여 정보를 추가하는 과정이다. [3문단]

⇒전송할 기호에 정보를 추가하여 오류에 대비하는 과정은 <채널 부호화>이다.1)

단순 내용일치 문제는 틀릴 이유가 없다  
 주의력과 신속함으로 해결!

39. <기술>

#이해 #비례 관계

정답률	선지별 선택비율				
	①	②	③	④	⑤
68%	4%	68%	9%	12%	7%

◆정답 ②

\*기호 집합의 '평균 정보량'을 기호 집합의 <엔트로피>라고 하는데 1)모든 기호들이 동일한 발생 확률을 가질 때 2)그 기호 집합의 엔트로피(='평균 정보량')는 최댓값을 갖는다. [1문단]

⇒평균 정보량(엔트로피)가 최댓값을 갖는 경우는2) 모든 기호들이 동일한 발생 확률을 가질 때이다.1) 그래서 기호들의 발생 확률이 다른(각각 1/4, 3/4) 경우의 평균 정보량은 최댓값이 될 수 없다.

◆오답 풀이

①

\*어떤 기호 집합에서 특정 1)<기호의 발생 확률>이 높으면 그 기호의 <정보량>은 적고, 발생 확률이 낮으면 그 기호의 정보량은 많다. [1문단]

⇒<기호들의 발생 확률>은 <정보량>과 반비례하기1) 때문에 기호들의 발생 확률이 모두 1/2인 경우, 각 기호의 정보량은 동일하다.

③ [선지 ①의 근거 지문 참고]

⇒<기호들의 발생 확률>은 <정보량>과 반비례하기1) 때문에 기호들의 발생 확률이 각각 1/4, 3/4인 경우, 기호의 정보량이 더 많은 것은 발생 확률이 1/4인 기호이다.

④

\*이때 1)<기호 집합의 엔트로피>는 기호 집합에 있는 기호를 부호로 표현하는 데 필요한 <평균 비트 수의 최솟값>이다. [2문단]

\*기호 집합의 평균 정보량을 2)<기호 집합의 엔트로피>라고 하는데 모든 기호들이 동일한 발생 확률을 가질 때 그 기호 집합의 엔트로피는 <최댓값>을 갖는다. [1문단]

※<기호 집합의 엔트로피>=<평균 비트 수의 최솟값>

⇒기호를 부호화하는 데 필요한 <평균 비트 수의 최솟값>이 곧 <기호 집합의 엔트로피>이다.1) 이 <기호 집합의 엔트로피>는 모든 기호들이 동일한 발생 확률을 가질 때 <최대>가 되기2) 때문에 기호들의 발생 확률이 모두 1/2로 동일할 경우 기호를 부호화하는 데 필요한 <평균 비트 수의 최솟값>도 최대가 된다.

⑤

\*어떤 1)기호 집합에서 특정 기호의 <발생 확률>이 높으면 그 기호의 <정보량>은 적고, <발생 확률>이 낮으면 그 기호의 <정보량>은 많다. 2)기호 집합의 평균 정보량\*을 <기호 집합의 엔트로피>라고 하는데 모든 기호들이 동일한 발생 확률을 가질 때 그 기호 집합의 엔트로피는 최댓값을 갖는다. [1문단]

\*3)평균 정보량: 각 기호의 발생 확률과 정보량을 서로 곱하여 모두 더한 것.

※'발생 확률'과 '정보량'은 반비례1)

<발생 확률 1/4, 3/4의 엔트로피>의 정보량: 3/4, 1/4

<발생 확률 3/4, 1/4의 엔트로피>의 정보량: 1/4, 3/4

⇒기호들의 발생 확률(1/4, 3/4 & 3/4, 1/4)이 순서만 바뀌어 있을 뿐이지 두 기호 집합의 <기호들의 발생 확률>은 동등하고 이에 따른 정보량도 동등하다. 그렇다면 평균 정보량의 값이3) 동일해지며 이에 따라 <기호 집합의 엔트로피>도 같아진다.2) 굳이 평균 정보량을 일일이 계산할 필요가 없다.

40. <기술>

#평가원 이의제기 #비례 관계

정답률	선지별 선택비율				
	①	②	③	④	⑤
55%	18%	10%	8%	9%	55%

◆정답 ⑥

\*어떤 기호가 110과 같은 부호로 변환되었을 때 0 또는 1을 <비트>라고 하며 이 부호의 비트 수는 3이다. [2문단]

\*채널 부호화 중 하나인 1)<삼중 반복 부호화>는 0과 1을 각각 000과 111로 부호화한다. 이때 2)수신기에서는 수신한 부호에 0이 과반수인 경우에는 0으로 판단하고, 1이 과반수인 경우에는 1로 판단한다.→(과반수 비트에 해당하는 숫자로 판단) 즉 수신기에서 수신된 부호가 000, 001, 010, 100 중 하나라면 0으로 판단하고, 그 이외에는 1로 판단한다. 이렇게 하면 3)000을 전송했을 때 하나의 비트에서 오류가 생겨 001을 수신해도 0으로 판단하므로 오류는 정정된다. [3문단]

⇒<삼중 반복 부호화>를 이용하여 0을 부호화하면, 000이 된다.1) 이중 두 개의 비트에 오류가 있어 011이 되면 1이 과반수이기 때문에 부호화된 000을 1로 판단한다.2) 그래서 하나의 비트에 오류가 있을 때는 오류가 정정되지만3) 두 개의 비트에 오류가 있으면 오류는 정정되지 않는다.

평가원 이의제기

\*001을 예를 들면 만약 두 개의 비트에 오류가 있을 시에 두 번째에 있는 0과 마지막에 있는 1이 오류가 나서 010으로 수신하면 똑같이 0으로 판단하니 오류가 정정되는 거 아닌가요?

※<삼중 반복 부호화>를 이용하여 0을 부호화하면, 000이 된다.1) 001을 예를 들어 설명할 수 없다.

◆오답 풀이

①

\*1)<송신기>에서는 소스 부호화, 채널 부호화, <선 부호화>를 거쳐 기호를 부호로 변환한다. [2문단]

\*채널 부호화를 거친 부호들을 채널을 통해 전송하려면 2)부호들을 전기 신호로 변환해야 한다. 0 또는 1에 해당하는 (부호들을) 전기 신호의 전압을 결정하는 과정이 <선 부호화>이다. [4문단]

⇒<선 부호화>가 부호를 전기 신호로 변환2)하는 것은 <송신기>에서 이루어진다.1)

②

\*1)어떤 기호 집합에서 특정 기호의 <발생 확률>이 높으면 그 기호의 <정보량>은 적고, 발생 확률이 낮으면 그 기호의 정보량은 많다. [1문단]

\*그중 하나인 2) <허프만 부호화>에서는 <발생 확률>이 높은 기호에는 <비트 수>가 적은 부호를, 발생 확률이 낮은 기호에는 비트 수가 많은 부호를 할당한다. [2문단]

- 1) <발생 확률>과 <정보량>은 반비례
- 2) <발생 확률>과 <비트 수>는 반비례
- ☞ <정보량>과 <비트 수>는 정비례

⇒ <허프만 부호화>에서는 <정보량>이 많은 기호에 상대적으로 <비트 수>가 많은 부호를 할당한다.

③

\*1) 채널 부호화는 오류를 검출하고 정정하기 위하여 부호에 <잉여 정보>를 추가하는 과정이다. 송신기에서 부호를 전송하면 채널의 잡음으로 인해 오류가 발생하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 <잉여 정보>를 덧붙여 전송한다. [3문단]

⇒ <잉여 정보>는 채널 부호화 과정에서 오류를 검출하고 정정하기 위하여 추가되는 것이지, 1~2) 잉여 정보를 제거한 후 선 부호화하는 것이 아니다.

④

\* <정보>량은 어떤 <기호>가 발생했다는 것을 알았을 때 얻는 정보의 크기이다. [1문단]

\*어떤 기호가 110과 같은 부호로 변환되었을 때 0 또는 1을 <비트>라고 하며 이 부호의 비트 수는 3이다. [2문단]

\*1) 채널 부호화를 하기 전 부호의 비트 수를, 채널 부호화를 한 후 부호의 비트 수로 나눈 것을 <부호율>이라 한다. [3문단]

1) 부호율 = (채널 부호화 전, 부호의 비트 수) ÷ (채널 부호화 후, 부호의 비트 수)

⇒ 채널 부호화 과정에서 부호에 일정 수준 이상의 잉여 정보(기호=비트)를 추가하면 (채널 부호화 후, 부호의 비트 수) > (채널 부호화 전, 부호의 비트 수)가 되기 때문에 부호율은 1보다 작아진다.

41. <기술>

#이해 #3점 #평가원 이의제기

정답률	선지별 선택비율				
	①	②	③	④	⑤
43%	10%	7%	15%	43%	25%

◆정답 ④

\*채널 부호화 중 하나인 1) <삼중 반복 부호화>는 0과 1을 각각 000과 111로 부호화한다. [3문단]

\*선 부호화 중 하나인 2) <차동 부호화>는 부호의 비트가 0이면

전압을 유지하고 1이면 전압을 변화시킨다. [4문단]

<보기>

3) 엔트로피 부호화를 통해 ‘맑음’, ‘흐림’, ‘비’, ‘눈’을 각각 00, 01, 10, 11의 부호로 바꾼다. →(‘비’=10)

⇒ 날씨 ‘비’의 부호인 10을 3) <삼중 반복 부호화>하면 111000이 된다. 1) 이를 <차동 부호화>할 경우, 순차적으로 (전압 변화 + 전압 변화 + 전압 유지 + 전압 유지 + 전압 유지)가 된다. 2) 이에 따라 기준(첫) 신호가 양(+)의 전압이면 ‘음, 양, 음, 음, 음, 음’의 전압을 갖는 전기 신호로 변환된다.

평가원 이의제기

\*지문에서는 부호 0110을 <양, 음, 양, 양>으로 봅니다. 이와 같은 추론 방식으로 4번 선지를 보면 <음, 양, 음, 음, 음, 음>은 110101로 분석되며, 이것은 11로 ‘눈’을 의미하는 신호입니다.

☞ 지문에서 부호 0110을 <양, 음, 양, 양>으로 각각 대응시킨 것이 아니라, 부호 0110을 양의 전압을 기준 신호로 삼아 0일 때 전압 유지(→양), 1일 때 전압 변환(→음)된 결과이다. 그래서 <음, 양, 음, 음, 음, 음>은 110101로 그대로 대응되는 것이 아니다.

\*선지 ④는 <삼중 반복 부호화>에서 오류가 검출되면,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선지 ④가 적절하려면, <삼중 반복 부호화를 이용할 때 오류는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조건이 꼭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 그런 논리라면, 국어 시험의 모든 지문과 문제에 어떤 현상이나 원리 과정이 기술될 때, 예외나 오류를 관련지어야 하는데 이는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일반적으로 선지에 서술된 것은 <오류나 예외가 일어나지 않음>을 전제한다. 즉, <오류나 예외>에 관한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대상의 개념이나 특성에 맞게 정상적인 과정을 거쳐 일이 일어남을 전제로 문제를 풀어야 한다. 그래서 선지 ④도 <삼중 반복 부호화와 차동 부호화> 일반적인(정상적인, 오류나 예외 없는) 진행 과정이 전제되어 있는 것이다.

\*기준 신호 양을 0으로 놓게 되면 <음음음양양양>이 되는 것 아닌가요?

☞ 날씨 ‘비’의 부호인 10을 <삼중 반복 부호화>하면 111000이 되고 여기에서 기준 신호는, 첫 신호에 해당하는 1이다. 기준 신호를 0으로 놓을 수 없다.

\*4번 선지에는 데이터를 기호 (0, 1)로 바꾸는 엔트로피 부호화 과정을 거친다고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문과 2번 선지 모두 엔트로피 부호화 과정을 거쳐야만 0과 1로 이루어진 부호로 바꿀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번 문제의 <보기>에서도 날씨 데이터가 부호로 변환되기 위해서는 엔트로피 부호화를 시행해야 함을 직접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따라서 엔트로피 부호화 과정을 포함하지 않은 4번 선지는 데이터가 부호로 변환조차 되지 않았으므로 엔트로

피 부호화를 가정한 삼중 반복 부호화와 차동 부호화의 참 거짓 여부를 떠나서 전제가 성립하지 않아 틀린 선지가 됩니다.

☞ [3문단] '채널 부호화 중 하나인 '삼중 반복 부호화'는 0과 1을 각각 000과 111로 부호화한다.', [4문단] '선 부호화 중 하나인 '차동 부호화'는 부호의 비트가 0이면 전압을 유지하고 1이면 전압을 변화시킨다.'라고 제시된 것처럼, <삼중 반복 부호화>와 <차동 부호화>의 개념 특성에 <엔트로피 부호화>과정이 전제되어 있어 굳이 엔트로피 부호화 과정 여부를 추가 설명할 필요가 없다.

\*지문에서 <기준 신호>에 대해 명확히 정의하지 않았습니다. 2번째 부호부터 마지막 부호까지는 전압의 변화를 통해 표현할 수 있음을 추론할 수 있지만 부호화의 시작점에서는 반드시 기준 신호 체계에 따라 시행해야 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시에서 0이 양으로 변환된다고 해서 1 또한 양으로 변환되면 안 된다는 근거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따라서 근거 부족으로 인해 거짓인 선지가 됩니다.

☞ [4문단] '예를 들어 차동 부호화 직전의 기준 신호가 양(+)의 전압이라면 부호 0110은 '양, 음, 양, 양'의 전압을 갖는 전기 신호로 변환된다.'을 통해 <기준 신호>는 부호의 첫 번째 신호임을 추론할 수 있다. 물론 <기준 신호>가 명확히 정의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추론으로 선지 ④가 적절하다는 것은 충분히 판단할 수 있다.

\*차동 부호화 과정이 반드시 앞에서 뒤로 진행된다는 근거가 지문에 없습니다. 지문에서 든 예시는 0110 즉 앞뒤 순서를 바꿔도 0110입니다. 그러나 4번 선지에서 묻고 있는 데이터의 해당 부호는 비대칭이므로 정답이 아님을 추론할 수 있습니다. 앞뒤 순서가 바뀔 수 있다는 추론은 송신의 과정이 뒤에서부터 이루어질 수 있다는 배경지식을 중학교 교과과정과 고등학교 교과과정의 '가정과 기술', '정보' 과목에서 습득했기 때문입니다. 교육과정에 충실하게 기반한 엄밀한 풀이가 오답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은 수능 시험의 형평성에 크게 어긋납니다.

☞ 글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쓰는 것처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흐르는 것은 일반적인 진행과정이라서 일일이 이를 명시하지 않는다. 다만, 이에 반하는 상황이 있다면 별도로 명시할 것이다. 예외적인 경우나 일반적이지 않은 많은 상황을 제시하지 않는 한, 국어를 공부할 때에는 기본적으로 일반적인 상황을 전제로 문제를 풀자.

◆오답 풀이

①

\*기호 집합의 평균 정보량을 기호 집합의 엔트로피라고 하는데 1) 모든 기호들이 동일한 발생 확률을 가질 때 2) 그 기호 집합의 <엔트로피>는 최댓값을 갖는다. [1문단]

\*3) 어떤 기호가 110과 같은 부호로 변환되었을 때 0 또는 1을 비트라고 하며 이 부호의 비트 수는 3이다. →(비트 수=기호의 개수) 이때 기호 집합의 4) <엔트로피>는 기호 집합에 있는 기호

를 부호로 표현하는 데 필요한 평균 비트 수의 최솟값이다.

[2문단]

<보기>

날씨는 '맑음', '흐림', '비', '눈'으로만 분류하며, 5) 각 날씨의 발생 확률은 모두 같다. 6) 엔트로피 부호화를 통해 '맑음', '흐림', '비', '눈'을 각각 00, 01, 10, 11의 부호로 바꾼다.

⇒ 기호 집합 {맑음, 흐림, 비, 눈}의 각 부호는 00, 01, 10, 11로 6) 각각의 비트 수는 동일하게 2개이고 3) 평균 비트 수도 2개이다. 이때 평균 비트 수의 최솟값인 <엔트로피>도 마찬가지로 2로 4) 각 날씨의 발생 확률이 모두 같기 1, 5) 때문에 엔트로피 2가 최대값으로 2) 더 커질 수는 없다.

②

<보기>

<엔트로피 부호화>를 통해 '맑음', '흐림', '비', '눈'을 각각 00, 01, 10, 11의 부호로 바꾼다. →(맑음:00, 흐림:01, 비:10, 눈:11)

\*01(흐림)10(비)00(맑음)01(흐림)

⇒ <엔트로피 부호화>를 통해 4일 동안의 날씨 데이터 '흐림비 맑음흐림'은 '01100001'로 바꾼다.

③

\*채널 부호화 중 하나인 <삼중 반복 부호화>는 0과 1을 각각 000과 111로 부호화한다. 이때 1) 수신기에서는 수신한 부호에 0이 과반수인 경우에는 0으로 판단하고, 1이 과반수인 경우에는 1로 판단한다. [3문단]

⇒ <삼중 반복 부호화>를 이용하여 전송한 특정 날씨의 부호를 <110001>과 <101100>으로 각각 수신하였다면, <110001>에서 1과 0이 과반수, <101100>에서도 1과 0이 과반수이므로 서로 같은 날씨로 판단한다. 1)

⑤

\*채널 부호화 중 하나인 1) <삼중 반복 부호화>는 0과 1을 각각 000과 111로 부호화한다. [3문단]

\*선 부호화 중 하나인 2) <차동 부호화>는 부호의 비트가 0이면 전압을 유지하고 1이면 전압을 변화시킨다. [4문단]

<보기>

3) 엔트로피 부호화를 통해 '맑음', '흐림', '비', '눈'을 각각 00, 01, 10, 11의 부호로 바꾼다.

⇒ 선지 ⑤에서 <삼중 반복 부호화>와 <차동 부호화>를 이용하여 날씨를 '흐림(01)'로 판단했다는 것은 전송된 부호의 특정 날씨가 '흐림'이라는 의미이다. '흐림(01)'을 <삼중 반복 부호

화>하면 <000111>이 된다.1) 이를 <차동 부호화>하면, 기준 신호가 양(+)의 전압일 때, <000111>은 <유지, 유지, 유지, 변화, 변화, 변화>이기2) 때문에 <양, 양, 양, 음, 양>의 전기 신호로 변환된다. 그래서 수신기에서 <음, 음, 음, 양, 양, 양>을 수신했다면, ('호림'이 아닌 다른 날씨일 것이지) '호림'이라고 판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42. <어휘>

#동음이의어

정답률	선지별 선택비율				
	①	②	③	④	⑤
77%	5%	8%	7%	77%	3%

◆정답 ④

\*원래의 기호로 ㉠복원(→변화된 것을 원래대로 회복)하려면~

\*동음이의어: 발음은 같지만 의미가 다른 단어.  
(타는 배와 먹는 배)

⇒금이 간 인간관계를 복원(復原)에서 <복원>은 '변화된 것(인간관계)을 원래대로 회복'한다는 의미로 ㉠<복원>과 의미가 같기 때문에 서로 동음이의어가 아니다.

◆오답 풀이

\*서로 발음만 같고 의미가 다른 동음이의어에 해당한다.

①

\*㉠전송(→글이나 사진 따위를 전류나 전파를 이용하여 먼 곳에 보냄)할 데이터를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하기~

⇒전송(餞送): 예를 갖추어 떠나보냄을 이룸.

②

\*영상, 문자 등인 데이터는 ㉢기호(→어떠한 뜻을 나타내기 위하여 쓰이는 부호, 문자, 표지 따위를 통틀어 이룸) 집합에~

⇒기호(嗜好): 즐기고 좋아함.

③

\*기호를 ㉡부호(→일정한 뜻을 나타내기 위하여 따로 정하여 쓰는 기호)로 변환한다.

⇒부호(富豪): '부자집'

⑤

\*전압의 ㉣결정(→행동이나 태도를 분명하게 정함) 방법은~

⇒결정(結晶): 애써 노력하여 보람 있는 결과를 이루는 것을 비유적으로 이룸.

평가원 이의제기

\*본문에 쓰인 '전송'의 '전'은 장음이 아닌 단음으로 발음하지만 선지 1번에서 쓰인 '전송'은 표준국어대사전에 의하면 '전송05(餞送) [전 : -]'으로 되어 있어 '전'의 발음이 '[전 : ]'으로 발음됩니다. 따라서 본문의 '전송'과 1번 선지의 '전송'은 소리가 다른 단어입니다.

☞소리의 길이가 서로 달라도 여전히 의미가 서로 같기 때문에 동음이의어에 해당하지 않는다.

※43~45, 이문구의 <관촌수필>

- \*갈래: 연작소설, 자전적 소설
- \*성격: 회고적, 자전적, 향토적
- \*주제: 산업화로 인한 농촌의 파괴와 인간애 추구

\*전체 구성

[1편] 일락서산(日落西山): 오랜만에 성묘를 하기 위해 고향을 찾은 '나'는 어린 시절의 고향 풍경과 함께 담담하게 회상함.

[2편] 화무십일(花無十日): 6·25 전쟁 중 피란길에서 '나'의 집에 머물렀던 윤 영감 일가의 비극적인 삶을 회상하고 피란민 일가에 대한 '나'의 어머니의 따뜻한 인간애를 다룸.

[3편] 행운유수(行雲流水): '나'의 집에서 부엌일을 거들며 함께 자란 오점이의 결혼 생활과 떠돌이 삶을 가슴 아프게 그림.

[4편] 녹수청산(綠水靑山): 대북이네와 그 이웃들이 맺었던 순박한 관계와 그 삶이 퇴색해 가는 과정을 보여 줌.

[5편] 공산토월(空山吐月): 어린 시절 석공네 집과 '나'가 특별한 인연을 맺게 되었던 사연과 성실하게 살던 석공이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했던 과정을 이야기 함.

[6편] 관산추정(關山獨丁): 유년 시절의 고향 친구를 만난 이야기를 중심으로 마을 안을 흐르던 한내가 도시에서 밀려들어온 퇴폐적 소비문화의 하수구로 전락한 실상을 그림.

[7편] 여요주서(與謠註序): 중학 동창인 친구가 아버지의 약값을 마련하려고 꿩을 잡아 팔려다가 발각되어 자연 보호를 위해했다는 이유로 공권력의 횡포에 시달리는 내용을 그림.

[8편] 월곡후야(月谷後夜): 벽촌에서 소녀를 겁탈한 사건이 일어나 동네 청년들이 나서 범인에게 사적인 제재를 가한다는 내용을 그림.

\*감상의 길잡이

☞주인공인 '나'가 자신의 말로 고향에서 태어나 성장하기까지의 과정을 말하고 있는 수필 형식의 소설이다. 고향으로 가는 길과 고향에 가서 느낀 감회를 중심으로 하고 과거의 회상을 통한 가족사 서술이 추가된다. 충청도 특유의 사투리와 한문투의 고풍스런 문체, 1인칭 독백체 등은 작품 전체에 고아하고 따뜻한 분위기를 주지만, 이야기 내용은 심각한 가족사와 농촌 공동체의 붕괴여서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 작가는



이 작품을 통해 산업화 과정에서 일어나는 인간성의 소외와 갈등, 농촌의 붕괴, 그리고 자신의 비극적인 가족사를 형상화함으로써 오늘날의 우리 삶을 되돌아보게 한다.

조무래기들은 도깨비불만 보면 네 그르니 내 옴으니 하며 짜그락거리기 일췌였고, 그러면 나이 좀 있는 사람이 열른 쉬쉬하면서, 도깨비가 뜯겠다고 나무라주게 마련이었던 것이다. 도깨비가 들으면 무엇이 어떻다고 불똥 꼬듯 서두르며 말리려 들었을까. 그것은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았다. 알면서도 짐짓 모르는 시늉을 해 보이려 했지만, 그네들도 어려서부터 가르쳐 준 이가 없어 이렇다 하게 내놓지 못하는 눈치가 역연하던 것이다. 그것은 바지랑대에 등을 매달고 명석에 둘러앉아 삼을 삼거나 태모시를 뿜던 늙고막의 아낙네들도 마찬가지로 가늠을 못 해, 도깨비불에 손가락질하면 도깨비가 쫓아온다는 것밖에 다른 말은 할 줄 모르고 있었다. 그네들은 낮출말로, 도깨비들이 벌거벗고 산다더라고 귀뜸해 주었으며, 그것은 그것들이 여름내 왕대피 자드락이나 갯가에 나와 불놀이를 하다가도, 기러기 그림자에 눈두렁 콩노릇이 지고 오러논에 자마구가 일며부터는 아무도 모르게 간곳없이 사라지던 것을 보아 믿을 만한 말이라고 우길 따름이었다.

**【과거】 금기시 되어난 도깨비불이 사라져감**

된내기 빛에 두엄이 허영계 흰 위로 난초 치던 붓끝 같은 마늘 싹이 솟고, 보리밭 머리에 장끼가 내리기 시작하여 이듬해 구렁찰 논배미에서 뜸- 뜸- 뜸부기 짹 짹 소리로 개구리 눈두렁 넘기 바쁘던 여름까지는 도깨비들이 감못하기도 했었다. 그러나 아직 화령기에도 이르지 않았던 나는 정말 알지 못했다. 차지던 바람이 베저지고 개펄에 성에 영기듯 허영계 소금기가 끼는 철이 되면, 음습한 바람이 맴돌아야 난동하던 인화(燐火)가 전혀 일지 않던 것을.

**【과거】 도깨비불의 사라져가는 것을 알지 못했던 나**

어른들이 눈을 꿈적이며 떡탕곳 개펄계를 그만 보라고 타이른 밤이면 담 밑에 반딧불만 자주 날아도, 쫓불 불이려 혼자 사당(祠堂) 문을 열 때처럼 뒷덜미가 선뜩하고 떨떠름하여 담 밑에도 가지 못할 만큼이나 그 도깨비불은 여간 두려운 존재가 아니었다. 그러므로 그런 날은 아무리 무더위도 모기가 떼메어 간다는 핑계로 마실 마당에서 일찍 물러나곤 하였다.

(중략)

복산이가 자리를 만들 동안 나는 변소를 찾아 나섰다. 농가라면 흔히 그렇듯 그곳은 저만치 밭마당 구석에 따로 나와 있었다. 나는 마당을 가로질러 가면서 무심결에 개펄 쪽을 둘러보다가 소스라쳐 놀라며 그 자리에 굳어 버리고 말았다.

**【현재】 나는 낚시꾼들의 불을 도깨비불로 착각해 놀람**

1)아- 나는 참으로 오랜만에 가슴이 벅차오르는 것을 느꼈다.

도깨비불—그렇다. 왕대피 밑 떡탕곳 개펄에 푸른빛을 내뿜는 도깨비불이 즐비하게 들어서 있던 것이다.

하나 둘 서이 너이……나는 어느새 도깨비불들을 손가락으로 헤아려 나가고 있었다. 번치 않은 것이 한 가지 더 있다는 반가움, 반가움과 즐거움에 들떠 그것들을 차곡차곡 빠뜨리지 않고 세어 나갔다.

“마흔다섯……”

2)하고 중얼거리며 나는 손가락을 떨었다. 내일 새벽엔 안개도 볼 수 있으리라고 믿어, 가슴의 설렘에 손가락마저 떨린 거였다. 모를 일이었다. 옛날로 돌아가 혹시 길 잃은 여우가 울부짖게 될는지도.

**【현재】 착각한 도깨비불을 세며 감회에 젖는 나**

“게서 뭐 허냐?”

복산이가 같은 용무로 나오면서 허렁거리를 했다.

“아,

도깨비불……

생전 못 볼 줄 알았다가 보니 좋은데. 멋있는걸.”

나는 건너편을 손가락질하면서 들뜬 소리로 말했다.

“무엇이?”

“저 도깨비불…….”

“무엇 불?”

“옛날에 보던 도깨비불, 그거 아냐?”

“무슨 불? 허어 참, 그러게 장가를 가라구.”

“……”

“도깨비불 좋아허네……저게? 슬고래라서 안주두 고루 먹어 헛소리는 안 험중 알았더니…….”

“그럼 모르겠는데…….”

“뭘 몰리? 저건 서울서 온 낚시꾼들의 간드레 불이여. 명색 문화인이라면서

밤낚시 한 번두 못 해 봤구먼.”

**【현재】 복산이는 도깨비불이 낚시꾼들의 불임을 알려줌**

나는 무엇에 반혀 하늘 높이 떠올랐다가 거꾸로 떨어진 기분이었다. 3)오랜 꿈결에서 순간적으로 깨어난 것처럼 허망하고 민망했다.

“이리 죽 늘어앉은 디는 물길이구, 저쪽 저리 둘러앉은 디가 유수지여. 갯물이 들어오면 수문을 막았다가 쓸물 때 열여 물을 빼는디 민물고기 갯물 고기가 섞이구 해서 써알두 게가 굶구, 물길에서는 잔챙이래두 붓어만 문다네. 남포, 청라 담에는 여기를 친다는 거.”

그게서야 나는 늘어앉은 불빛들이 제자리에 죽어 있음을 비로소 깨달았다. 무등 타기와 솜바꼭질을 하던 살아 있는 불이 아니라 것만 진작 알았어도 마흔다섯까지 수효를 헤아리지는 않았을 터였다. 나는 무슨 재산불이를 어둠 속에 잃고 찾지 못한 투로 무거워진 가슴을 안고 복산이 따라 방으로 들어갔다.

**【현재】 도깨비불이 아님을 알 나는 허망하고 민망해함**

**<인물의 심리&태도>**

\*나: 낚시꾼의 불을 도깨비불로 생각하여 떨리고 벅차오름(1~2) 도깨비불의 정체를 알고 허망하고 민망해함(3)

**43. <현대소설>**

#평가원 이의제기 #내적 갈등\_외적 갈등 #소설의 시점

정답률	선지별 선택비율				
	①	②	③	④	⑤
89%	2%	4%	89%	3%	2%

**◆정답 ③**

\*어른들이 눈을 꿈적이며 떡탕곳 개펄계를 그만 보라고 타이른 밤이면 담 밑에 반딧불만 자주 날아도, 쫓불 불이려 혼자 사당 문을 열 때처럼 뒷덜미가 선뜩하고 떨떠름하여 담 밑에도 가지 못할 만큼이나 그 <도깨비불>은 여간 두려운 존재가 아니었다.

(중략)

~아- 나는 참으로 오랜만에 가슴이 벅차오르는 것을 느꼈다.

<도깨비불>—그렇다.

⇒과거와 현재를 매개(도깨비불)하는 경험을 제시하여 인물이 겪는 인식의 변화(두려움→감격)를 드러내고 있다.

**평가원 이의제기**

\*현재와 과거의 매개가 명확히 드러나 있는 부분은 찾을 수 없습니다.

⇒(중략) 이전에는 과거 도깨비불에 대한 두려움이 나타나 있고 (중략) 이후에는 현재 도깨비불에 대한 반가움이 나타나 있다. 현재 서술자인 나가 현재 도깨비불에 대한 반가움을 갖는 이유는 과거 도깨비불에 대한 추억의 연장선으로 볼 수 있다. 그래서 도깨비불이 과거와 현재를 매개한다고 볼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도깨비불>에 대한 과거의 생각과 내가 낚시꾼들의 불을 도깨비불로 착각하고 복산이가 이를 알려주는 사건이 한 번 있을 뿐이지, 특정(동일한) 사건이 반복되는 것은 아니고 이로 인해 인물들의 갈등이 심화되는 것도 아니다.

※내적 갈등 vs 외적 갈등에 대해 알아보자!

- ㄱ. 내적 갈등: 마음속 내면의 고민, 걱정 (짜장? 짬뽕? 무얼 먹지)
- ㄴ. 외적 갈등: 인물vs인물 / 인물vs사회 환경이 서로 대립

(부모와 자식 간의 가치관의 차이 / 자유를 빼앗은 일제에 대한 인물의 투쟁)

☞마을 사람들이 아이들에게 도깨비불에 대한 주의를 주는 것과 복산이가 나에게 도깨비불이 낚시꾼의 불이었음을 알려주는 것은 갈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인물의 갈등이 심화>되는 경우는 인물의 갈등이 원래 있던 상태에서 더욱 깊어지는 것과 관련되지만 인물의 갈등이 없거나 인물의 갈등이 최초 나타나기만 하는 것과는 관련이 없다.

②  
⇒<내가 낚시꾼들의 불을 도깨비불로 착각하고 복산이가 이를 알려주는 사건>이 한 장소에서, 즉 한 장면에서 벌어지고 있으므로 빈번하게 장면이 교차되는 것은 아니다. 지문에서 중략이전은 과거 회상이기 때문에 회상은 한 장면으로 본다.

◆만약, 장면이 단 한 번 교차(혹은 교체) 된다면?  
→단 한 번이기 때문에 빈번한 장면 교차(혹은 교체)가 아니다.

④  
⇒지문 전체가 나의 관점에서, 내가 서술하기 때문에 서술자를 달리하는 것은 아니다.

※소설의 시점에 대해 알아보자!

- ㄱ. 1인칭 시점: 주인공 혹은 관찰자  
→(지문에 일단 나가 등장하면 1인칭으로 판단!)
- ㄴ. 3인칭 시점: 관찰자 혹은 전지적  
→(3인칭 전지적 시점은 모든 인물의 심리 서술 가능!)

☆소설의 시점과 관련된 문제는 수능에 2년에 한 번꼴로 출제된다.

**평가원 이의제기**

\*(중략) 전까지는 '도깨비불'을 두려워하는 인물의 관점에서 서술하고 있지만 (중략) 후에는 '도깨비불'을 보자 반가워하는 인물의 관점에서 서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④도 맞는 선지가 되는 것 아닌가요?

☞관점이 다른 것이지 서술자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서술자는 '나'로 동일하다. 1인칭 시점에서의 서술자는 오직 '나'이므로 서술자가 달라지는 경우를 생각해보기 어렵다.

⑤  
⇒지문은 시간의 역전(현재→과거)이 아닌, 과거(중략 이전)에서 현재(중략 이후)라는 시간의 흐름대로 서술되어 있다.

▶과거는 대화 없이 사건이 빠르게 압축적으로 서술되고 현재는

대화과 함께 사건 전개가 느린 편이다.

44 <현대소설>

#이해

정답률	선지별 선택비율				
	①	②	③	④	⑤
76%	11%	76%	9%	2%	2%

◆정답 ②

\*어른들이 눈을 꿈적이며 먹탕곳 개펄계를 그만 보라고 타이른 밤이면 ㉠담 밑에 반딧불만 자주 날아도, 촛불 불이려 혼자 사당 문을 열 때처럼 1)뒤틀미가 선풍하고 떨떠름하여 담 밑에도 가지 못할 만큼이나 그 도깨비불은 여간 2)두려운 존재가 아니었다.

⇒뒤틀미가 선풍하고 떨떠름하여1)와 두려운 존재2)를 통해 각각으로 인해 연상된 상황을 궁극해 하는 '나'의 <호기심>이 아닌, <두려움>이 나타나 있다고 보는 것이 적절하다. 도깨비불이 '나'의 <호기심>을 자극한 것은 맞지만 그 <호기심>이 ㉠에서는 <두려움>으로 나타난 것이다.

\*선풍: 갑자기 서늘한 느낌이 드는 모양.  
→('호기심'이 아닌, '두려움'과 어울림)

▶위 문제처럼 지문 부분에 대한 이해 문제는, 대개 해당 부분의 바로 전후 맥락에서 정답의 핵심 단서가 있기 마련이다.

◆오답 풀이

①

\*㉠기러기 그림자에 눈두렁 콩노곳이 지고 오려논에 자마구가 일며부터는 아무도 모르게 간곳없이 사라지던 것을 보아 1)믿을 만한 말이라고 우길 따름이었다.

⇒㉠에서 '나'는 어른들이 '믿을 만한 말'이라며 우긴다고1) 생각하기 때문에 어른들의 말을 온전하게 받아들이지는 않는 '나'의 미심쩍음이 드러난다.

③

\*㉡나는 마당을 가로질러 가면서 무심결에 개펄 쪽을 둘러보다가 소스라쳐 놀라며 그 자리에 굳어 버리고 말았다.  
아- 1)나는 참으로 오랜만에 가슴이 벅차오르는 것을 느꼈다.

⇒㉡에는 우연히 발견한 대상에 대한 '나'의 반가움이 담겨 있다.1)

④

\*㉢1)내일 새벽엔 안개도 볼 수 있으리라고 믿어, 가슴의 설렘에 손가락마저 떨린 거였다. 모를 일이었다. 옛날로 돌아가 2)혹시 길 잃은 여우가 울부짖게 될지도.

⇒㉔에는 예측하는 상황이 일어날 것이라는 짐작에서1~2) 비롯된 '나'의 기대감이 나타난다.

⑤

\*㉔무등 타기와 숨바꼭질을 하던 살아 있는 불이 아니란 것만 짐작 알았어도 마흔다섯까지 수효를 헤아리지는 않았을 터였다. 1)나는 무슨 재산불이를 어둠 속에 잃고 찾지 못한 투로 무거워진 가슴을 안고 복산이 따라 방으로 들어갔다.

⇒㉔에는 대상의 실체를 확인하기 전에 했던 자신의 행동(가슴 벽참, 반가움, 설렘, 기대감)에 대한 '나'의 허무감이1) 드러난다.

45. <현대소설>

#보기 제시 #감상 #3점

정답률	선지별 선택비율				
	①	②	③	④	⑤
84%	3%	2%	3%	84%	8%

◆정답 ④

\*그네들은 낮춘말로, 도깨비들이 벌거벗고 산다더라고 귀뽀해 주었으며, 그것은 그것들이 여름내 왕대피 차드라이나 갯가에 나와 불놀이를 하다가도, 기러기 그림자에 논두렁 콩노릇이 지고 오려논에 자마구가 일며부터는 아무도 모르게 간곳없이 사라 지던 것을 보아 1)민을 만한 말이라고 우길 따름이었다. [지문초반]

\*어른들이 눈을 꿈적이며 떡탕곳 개펄계를 그만 보라고 타이른 밤이면 담 밑에 반딧불만 자주 날아도, 쫓불 불이려 혼자 사당 문을 열 때처럼 뒷덜미가 선풍하고 떨떠름하여 담 밑에도 가지 못할 만큼이나 그 2)도깨비불은 여간 두려운 존재가 아니었다. 그러므로 그런 날은 아무리 무더워도 모기가 떠메어 간다는 핑계로 마실 마당에서 일찍 물러나곤 하였다. [지문중반]

⇒<아무리 무더워도> 핑계를 대고 <마실 마당에서 일찍 물러나곤> 한 것은, 어른들의 처벌이 두려워서 한 행동이 아니라, 도깨비불을 두려워서 한 행동에 해당한다.2)

어른들의 말을 그냥 우기는 것쯤으로1) 생각하는 태도로 보아 '나'가 어른들의 처벌을 두려워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

◆오답 풀이

①

\*1)조무래기들은 도깨비불만 보면 네 그르니 내 울으니 하며 짜그락거리기 일쑤였고, 그러면 나이 좀 있는 사람이 얼른 쉬쉬하면서, 도깨비가 들겠다고 나무라 주게 마련이었던 것이다.~알면서도 짐짓 모르는 시늉을 해 보이려 했지만, 그네들도 어려서부터 2)가르쳐 준 이가 없어 이렇다 하게 내놓지 못하는 눈치가 역연하던 것이다. [지문초반]

<보기>

\*일반적으로 3)금기를 설정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알려지지 않지만,

⇒<짜그락>거리는 <조무래기들>을 말리던 어른들이1) 그 이유를 이렇다 하게 내놓지 못하는 눈치가 역하였던 것은,2) 금기가 설정된 근본적 이유가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이겠군.3)

②

\*그것은 바지랑대에 등을 매달고 멍석에 둘러앉아 삼을 삼거나 태모시를 튼던 늘그막의 아낙네들도 마찬가지로 가슴을 못 해, 도깨비불에 손가락질하면 도깨비가 쫓아온다는 것밖에 다른 말은 할 줄 모르고 있었다. [지문초반]

<보기>

이를 통해 금기와 금기의 대상이 환기하는 의미는 세대를 거쳐 전달됨으로써 1)서로 다른 세대 간에 공동체의 체험을 공유하는 데에 기여하기도 한다.

⇒<늘그막의 아낙네들>이 아이들에게 <도깨비불에 손가락질하면 도깨비가 쫓아온다>고 말하는 것은, 공동체의 금기를 서로 다른 세대(어른-아이)가 공유하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겠군.1)

③

\*그네들은 낮춘말로, 도깨비들이 벌거벗고 산다더라고 귀뽀해 주었으며, [지문초반]

<보기>

\*일반적으로 금기를 설정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알려지지 않지만, 1)금기와 그 대상에 대한 추측은 구전의 방식을 통해 은밀하게 전파되어 구성원들 간에 회자된다.

⇒<그네들>이 <낮춘말로> <도깨비들이 벌거벗고 산다>고 <귀뽀>을 해 주는 행위는, 구전의 방식을 통해 금기의 대상에 대한 추측이 은밀하게 전파되는 정황을 보여 주는 것이겠군.1)

⑤

\*1)그제서야 나는 늘어앉은 불빛들이 제자리에 죽어 있음을 비로소 깨달았다.→(도깨비불이 아님을 인식 ≒ 상실감에 빠짐) ~ 나는 무슨 재산불이를 어둠 속에 잃고 찾지 못한 투로 무거워진 가슴을 안고 복산이 따라 방으로 들어갔다. [지문후반]

⇒<재산불이>를 잃은 듯 <무거워진 가슴을 안고> 방으로 들어가는 행동은, 나의 상실감을 드러내는 것이고1) 이것이 공동체에서 공유되던 금기에 관련된 일들이므로, 추억으로만 남게 된 상황에 대한 '나'의 심리를 드러낸 것이라 할 수 있다.

1회 끝

※1~2, <발표>

1. <화법>

#공통 선지의 법적 #발표 계획 #보조 자료 #평가 기준의 척도 #열거\_반복\_대구 #사례\_예시

정답률	선지별 선택비율				
	①	②	③	④	⑤
91%	4%	91%	2%	3%	0%

◆정답 ②

\*1)(화면을 보여 주며) 이 그림은 <총석정>입니다. 2)정선은 수직으로 죽죽 내려 가는 수직준법을 사용해 돌기둥을 표현하고 돌기둥 위에 있었던 소나무를 생략함으로써 다른 자연물보다 돌기둥을 더욱 부각했습니다. 3)(화면을 전환하며) 이 그림은 <삼일포>입니다. 4)정선은 그리고자 하는 대상과 같은 높이에서 수평으로 사방을 둘러보며 원근을 표현하는 평원법을 사용하여 호수의 광활함을 부각했습니다. [2문단]

\*5)(화면을 보여 주며) 이 그림이 바로 <낙산사>입니다.~6)이 점처럼 보이는 것들은 일출의 장관을 즐기는 선비들로 이 그림 속의 점경 인물입니다. 이렇게 정선은 자연을 즐기고 있는 점경 인물을 등장시켜 자연과 인간의 조화를 드러냈습니다. [끝문단]

⇒청중이 발표 대상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그 특징 2,4,6)이 드러난 사례를 시각 자료1,3,5)로 제시해야지.

☞시각 자료: 화면 속 '그림'

▶보조 자료의 종류: 시각적 (그림, 도표, 통계, 지도 등) 시청각 (동영상)

※사례와 예시에 대해 알아보자!

- ㄱ. 사례: 어떤 일이 전에 실제로 일어난 예. (→과거의 일)
- ㄴ. 예시: 예를 들어 보임.

◆오답 풀이

① ⇒시각 자료와 그 특징은 제시되어 있지만 참고한 서적들은 열거는커녕 단 한번도 제시되어 있지 않다.

☞참고한 서적들이 나타나 있다면 서적의 이름이 언급되어야 한다. 출제자는 그림의 이름('총석정', '삼일포', '낙산사')을 서적의 이름으로 착각한 수험생들을 위해 매력 오답으로 설정한 것이다.

※다양한 평가 기준의 척도를 알아보자 (매년 출제되는 개념☆)

- ㄱ. 타당성: 사물의 이치에 맞는 옳은 성질
- ㄴ. 합리성: 이론이나 이치에 합당한 성질 →(상식적)
- ㄷ. 객관성: 언제 누가 보아도 그러하다고 인정되는 성질
- ㄹ. 공정성: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올바른 성질
- ㅁ. 정확성: 바르고 확실한 성질
- ㅂ. 신뢰성: 굳게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성질

☞정확하고 객관적인 근거를 들어 공정하게 의견을 제시하면 의견의 타당성이 높아져 '합리적이다'라고 할 수 있고 그 의견에 신뢰가 간다.

※열거, 반복, 대구에 대해 알아보자! (매년 출제되는 개념☆)

- ㄱ. 열거 (나열): 비슷한 말을 늘어놓음.  
(딸기, 포도, 사과는 과일의 종류이다)
- ㄴ. 반복: 동일한 말을 연속적으로 사용. (눈,눈,눈이 내린다!)  
☞운율 형성!
- ㄷ. 대구: 문장의 동일한 구조를 짝지어 줌  
(공 심은데 콩나고, 팔 심은데 팔난다.) ☞운율 형성!

③

\*제 발표가 정선의 산수화전을 관람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발표의 목적과 관련)이상 발표를 마칠 것입니다. [끝문단]

⇒시각 자료('총석정', '삼일포', '낙산사')에는 각 대상의 특징이 나타나 있는 것이지만 전체 발표 내용이 제시된 것은 아니다.

☞선지가 '~마무리해야지'라고 했기에 지문에서 마무리 부분만 보면 된다. (☆다른 부분까지 고려했다면 불필요한 시간 낭비를 한 셈!) 지문에서 두 문장에 불과한 끝문단인 마무리 부분만 보더라도 전체 발표 내용을 요약하는 것이 아님을 쉽게 판단할 수 있다.

④

\*다음 주에 우리 학교에서는 검재 정선의 산수화전을 관람할 예정입니다. 여러분들이 정선의 산수화를 감상할 때 도움이 되도록 →(발표의 취지&목적과 관련) 정선의 '관동팔경'을 중심으로 정선의 산수화에 대해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1문단]

⇒시각 자료('총석정', '삼일포', '낙산사')에는 각 대상의 특징이 나타나 있는 것이지만 발표 순서가 안내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선지가 '~발표를 시작해야지'라고 했기에 지문에서 시작 부분만 보면 된다. (☆다른 부분까지 고려했다면 불필요한 시간 낭비를 한 셈!) 지문에서 두 문장에 불과한 1문단인 시작 부분만 보더라도 발표 순서를 안내하는 것이 아님을 쉽게 판단할 수 있다.

⑤

⇒시각 자료('총석정', '삼일포', '낙산사')에는 각 대상의 특징이 나타나 있는 것이지만 발표 대상과 관련된 역사적 사건이 제시된 것은 아니다.

▶<역사적 사건>의 제시 여부는 연도를 나타내는 시대와 관련된 말을 찾아보는 것이 빠르다.